

김운용회장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IOC집행위원으로 선출

김운용회장은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지난 9월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4차 IOC 총회에서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운용회장은 86년 10월 IOC위원에 피선된 지 불과 2년만에 집행위원에 선출돼 IOC 역사상 최단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IOC TV 분과위 부위원장,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회장 등 국제 스포츠계의 요직을 맡고 있는 김운용회장은 IOC의 총사령부에 입성함으로써 한국 스포츠의 세계적인 도약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김운용회장은 11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22차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지난 86년 제20차 총회에서 처음 회장으로 피선된 김운용회장은 이로써 세번째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시범 시범경기 치른 태권도 남자부 종합1위, 여자부 종합2위 차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서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국제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올림픽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남자 32개국 120명, 여자 16개국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진 태권도경기에서 한국은 남자부가 금메달 7개를 차지하며 중주국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했으나, 여자부는 미국세에 밀리며 2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태권도계의 각성을 촉구했다. 여자부는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대만, 스페인, 덴마크 등이 우수한 신장과 체력을 바탕으로 기량을 쌓아와 중주국 태권도를 위협하는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보였다.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 대회 남자부 전체금 석권이라는 경이적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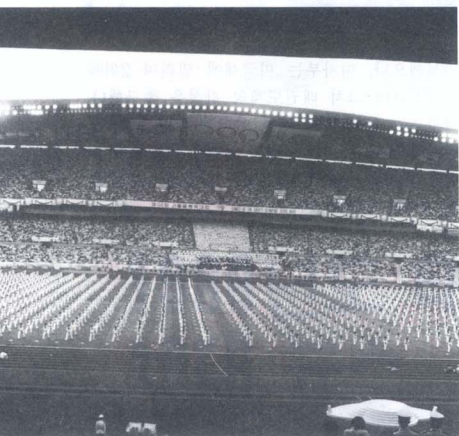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투만 두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에서 남자부는 서울에서 개최된 1회대회이후 14년만에 금메달 8개로 전체급을 석권하는 쾌거를 올렸다.

여자부에서는 플라이급을 제외한 7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냈다.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시킨 태권도시범「벽을 넘어서」 최고의 찬사받아



올림픽의 광파제가 울려 퍼진 9월 17일, 전세계 50억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보인 「벽을 넘어서」는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장벽을 깨고 화합의 무대를 장식하며 감동을 자아내게 했다.

한국인의 기상과 용기를 상징하며 86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식 공개행사에서도 태권도시범 「약동」을 펼쳐보인바 있는 태권도 시범단은 비호태권도단 8백8명 뿐만 아니라 미동국민학교의 어린이 2백명이 참가, 온국민의 의지를 대변해 벽을 허무는 작업은 올림픽의 역사에서 뿐만

이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이 길이길이 남을 감격의 무대였다고 본다.

올해의 최우수선수로 박봉권·원선진선수 뽑혀



박봉권 선수



원선진 선수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원에서 열린 88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서울올림픽의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박봉권선수(한체대)가 한체급 올린 웰터급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영예의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여자 최우수선수로도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들을 제치고 수원수성여중에 다니는 원선진선수가 핀급우승을 차지하며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태권도 간판스타 정국현선수 은퇴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 아시아선수권대회 2회 우승, '88서울올림픽대회 웰터급 금메달리스트인 정국현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다.



그동안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았고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부터 매월 연금혜택까지 받는 태권도의 간판스타 정국현선수가 이제 서울지하철공사의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태권도인 모두가 「선수 중의 선수가 코치 중의 코치」로 성장할런지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제23회 대통령기대회에서 일반부 국군체육부대 5연패, 대학부 한국체대 3연패, 고등부 동성고 2연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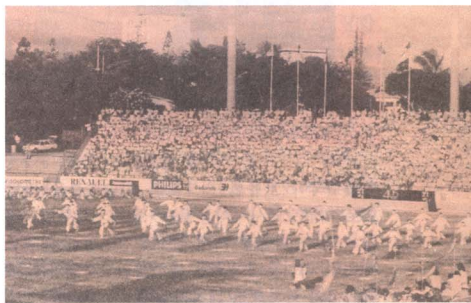
전국의 도장, 학교, 실업팀 등에서 총484명이 출전한 가운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88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통령기타기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일반부에서 국군체육부대는 지하철공사와 각각 4개체급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은메달수에서 앞선 국군체육부대가 간발의 차이로 우승, 5연패의 위업을 쌓았다.

한편 한체대도 3연패로 우승기를 영구히 보전하게 되었고 고등부에서는 동성고가 대전체



고, 성동고 등과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리를 거두어 2연패를 차지했다.

태권도 제9회 남태평양게임에 정식종목 채택



남태평양게임위원회는 1987년 2월 뉴칼레도니아에서 열린 제8회 남태평양게임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태권도를 1991년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서 개최될 제9회대회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다.

남태평양대회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국가 15개국으로 구성된 대회로 3년만에 한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정식종목 채택으로 이제 태권도는 서방국가들은 물론 동구권,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까지 보급돼 세계적인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태권도 교육용 비디오교재 제작



중주국이 보유한 최고도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태권도역사·기본동작·품새·겨루기·경기·시범·기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태권도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대한태권도협회와 B.M.코리아의 협찬으로 제작되었다.

총7천여만원의 제작비를 들인 비디오 테이프는 우리말과 영어로 제작됨으로써 국내외 태권도 보급발전에 큰 역할을 함은 물론 태권도 수련생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총4개의 테이프로 구성된 비디오는
- 제1집: 역사, 특성, 이론 및 실체(20분)
- 제2집: 기본동작 및 태극품새 (85분)
- 제3집: 유단자품새(110분)
- 제4집: 겨루기 및 시범(50분)으로 총265분이 소요되며 본 교재는 8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타기대회겸 제15회 한국중고 연맹개인대회 영신여고 여고부 10연패 위업달성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기원에 서 개최된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타기대회 겸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개인대회에는 남고부 31개교, 남중부 40개교, 여고부 14개교, 여중부 13개교 등 총128개교에서 1,286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열전을 펼쳤다.

토나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본 대회에서 남고부는 성동고, 여고부는 영신여고, 남중부는 동성중, 여중부는 철산여중이 부별 단체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중 여고부의 영신여고는 10연패의 영광을 차지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제대회 풍성한 1989년도

“

내년도에는 2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7월에 서독에서 제3회 월드게임, 9월엔 서울에서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 대회, 11월에는 미국에서 제2회 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태권도가 국제무대에서 나래를 활짝 펼치는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회별로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3회 월드컵대회

이집트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제3회 월드컵태권도대회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이집트 카이로 폴리스아카데미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월드컵대회규정에 의거하여 16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시아에서는 4개국(한국, 대만, 요르단, 쿠웨이트), 팬암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5개국(스페인, 서독, 터키, 이태리, 덴마크), 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이집트)이 참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표선수단에 단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닥터, 국제심판 각1명과 선수8명 등 총 14명을 파견하는데 대표

선수는 1988년도 국가대표 2인이 참가하게 되었다.

▲대표선수명단

핀 급 : 임창섭(경기대)

플라이급 : 정재정(경상공고)

밴 텀 급 : 조영남(동아대)

페 더 급 : 김병철(한국체대)

라이트급 : 이창건(국군체육부대)

웰 터 급 : 김용수(동아대)

미 들 급 : 정용석(한국체대)

헤 비 급 : 김현일(유도대)

2. 제3회 월드게임

전세계의 45개 종목이 참가하는 제3회 월드게임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독의 칼스루헤에서 개최된다.

태권도경기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유리파홀체육관에서

남자8체급 8개국, 여자 통합 4체급 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다.

여자부 경기는 조직위측에서 32명의 선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2체급을 1체급으로 통합하여 ▲핀급+플라이급(-47kg) ▲밴텀급+페더급(-55kg) ▲라이트급+웰터급(-65kg) ▲미들급+헤비급(+65kg)으로 4체급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한국은 대표선수단으로 남자부가 감독, 코치 선수8명 등 10명이며 여자부는 코치와 선수 4명 등 5명으로 총 15명이 파견되는데 남녀 대표선수는 1989년도 국가 대표선발전을 거쳐 선발된다.

▲참가국명단

남자부-한국, 스페인, 미국,



서독, 터어키, 요르단, 코트디브와르, 이집트(이중 불참국이 생길 경우 후보국으로는 대만,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프랑스, 이태리, 멕시코, 브라질, 가나)

여자부-한국, 대만,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서독, 캐나다(후보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터어키, 영국, 푸에르토리코, U.S버진, 아일랜드)

3. 제9회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 태권도 선수권대회

전세계 태권도 회원국들이 기량을 자랑하게 될 제9회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서울

1987년도 5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거행된 월드컵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한국선수단(위)과 개최식 모습(아래).



에서 개최된다.

1987년도 10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56개국, 여자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져 한국의 남자대표팀이 금메달 6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여자팀도 금3, 은2, 동1개로 처녀우승의 영광을 차

지한 바 있다.

남녀대표선수 1989년도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선발된다.

4. 제2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세계대학생 태권도인의 대결전이 될 제2회세계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는 11월 7일과 8일 미국의 아틀란트에서 개최된다.*

태 권 도 경 기

'88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11.2~4, 국기원

홍 보 실

올 한해동안 체급별로 가장 우수한 남녀선수는 누구인가를 선발하는 '88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서는 올 한해동안 본회와 각 연맹이 주최·주관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 남자부에 171명, 여자부에 95명 등 총 266명이 출전하였다.

본 대회에서 체급별 1위로 선발된 남자부 선수는 89년도 한국대표선수선발대회 최종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한편, 88년도 국가대표선수 중에서는 서울올림픽에서의 금메달리스트인 권태호선수와 라이트급의 박봉권선수가 각각 한 체급씩 올려 출전해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보기도 했는데 박봉권 선수는 국군체육부대의 이창건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고 올해의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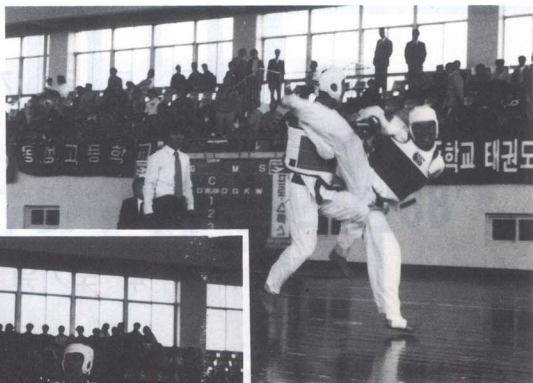
여자부경기에는 국가대표선수로 88금메달리스트인 추남률선수가 참가했는데 갑작스런 신체이상으로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여자부의 최우수선수로선 핀급에서 철산여중의 김지

향선수를 누르고 우수한 수성여중의 원선진 선수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들을 제치고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체육대학은 김철호선수가 플라이급 1위, 함준선수가 밴텀급1위, 양대승선수가 라이트급1위, 박봉권선수가 웰터급 1위 등 4명이 패권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태권도 강팀의 위력을 펼쳐보였고, 이들을 지도한 한국체대의 이승국교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또한 여자부에서는 올해에 창단된 상명여대태권도부가 4명이 출전해 박진경선수가 라이트급 1위, 양인덕 선수가 미들급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이들을 지도한 임신자코치가 지도한지 1년만에 지도상을 수상했다.

경기는 3일간 계속되었는데 선수들의 기량면에서는 U.S배 태권도 경기대회에 출전한 대표선수 8명(남4체급 여4체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수한 선수들만이 출전해 어느 대회보다도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고 있었으나,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향상이라는 면에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이기도 했다.

그러나 '89년도에는 제3회 월드컵대회, 월드게임, 제9회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회여자세계선



88서울올림픽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
박봉권선수는 웰터급에 출전하여 우승을
거두며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수권대회, 제2회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 등 4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는만큼 내년도 국가대표 선수선발전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는데 우수 선수 선발대회 체급별1위자는 국가대표선수선발최종전에 자동 출전한 특전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대회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남녀체급별로 경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부경기

◀핀급 : 예선전에서 임재경(숭실고)선수는 신재현(국군체육부대)선수를 맞아 1회에 1득점을 올렸으나 2회부터는 신재현선수의 맹추격에 고전하며 승리, 8강에 진출했다. 신재현선수는 과감한 공격을 구사하긴 했으나 계속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공격에 그치는 안타까운 대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핀급 결승전에는 한성고의 이경호선수와 풍생고의 강윤석선수가 대전을 펼쳤는데 2:1로

이경호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핀급 최강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플라이급 : 예선전에서 김훈섭선수는 한국체대의 이종선선수를 맞아 패기만만한 공격으로 노련한 전 국가대표선수를 누르기도 했다. 준결승전까지 진출한 김훈섭선수는 올해의 국가대표선수로 88서울올림픽에서 핀급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권태호선수(동성고)를 만나 2:0으로 패해 3위에 머물고 말았다.

핀급에서 한 체급올려 출전한 권태호선수는 국가대표선수답게 8강전에서 항도실고의 천영민선수를 3회1분 10초경 내려찍기 공격으로 K.O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결승전에 올라와 전 국가대표선수인 한국체대의 김철호선수를 맞아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득점을 올렸으나 체격조건에서 밀린듯 우세승을 내주며 2위에 머물렀다.

◀밴텀급 : 동아대의 심우현선수는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며 이희영선수(계명대), 백영선선수

(성동고), 진재성선수(풍생고)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는데 같은 학교의 조영남선수가 전날경기의 부상으로 기권하자 가볍게 결승전까지 진출해 한국체대의 함준선수를 2:1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페디급: 예선전에서 전국대표선수인 지하철공사의 정승환선수와 한국체대의 장혁선수의 대전은 정승환선수가 신장면에서 월등한 장혁선수를 가깝스로 우세승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한국체대의 김병철선수에게 패하는 고전을 했다.

한편 성동고의 박상노선수와 신흥고의 박의성선수는 두 선수다 우수한 기량으로 각각 2득점씩을 올리는 선전을 보였는데 박상노선수가 우세승으로 8강에 진출, 이중범(강원사대부고)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해 한국체대의 김병철선수에게 1:0인 가운데 2회마치고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박상노선수는 올해의 춘계 및 추계 중고연맹전에서 페디급과 라이트급에 출전, 각각 1위를 차지한 고교 유망주로 결승전에서도 풍생고의 이계범선수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라이트급: 라이트급의 패권은 한국체대의 이광로선수와 양대승선수의 대전으로 판가름되었는데 결승전에서 만난 두 선수는 우세를 주고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쳐 이중 양대승선수가 우세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협회임원이 우승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웰터급: 한국체대의 박봉권선수는 88국가대표선수로 라이트급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데 한체급 올라 웰터급에 출전, 예선전에서 경희대의 박용웅선수를 어렵게 누르고 2차전에 올라 황현달선수(관악고)를 누르고 8강에서도 최창익(체육교신학교)선수를 1:1 동점에 우세승을 거두는 쉽지않은 승리의 연속이었다.

준결승전에서 전국대표선수인 윤순철선수(경희대)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 전국대표선수인 이창건선수를 맞아 치열한 점전을 펼쳤으나 두 선수다 득점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박봉권선수가 우세승으로 웰터급 우승을 차지했으며 88년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포항수고의 이성훈선수는 대통령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중량급유망주로서 본대회에서의 활약에도 기대를 모았는데 예선전에서 이재영선수(한성고)와 연기호선수(국군체육부대)를, 준결승전에서도 이기훈선수(국군체육부대)를 차례로 누르고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전북협회 김현곤선수의 노련한 경기운영과 기량에 밀려 2:0으로 판정패, 2위에 머물렀으나 내년도 한체대 입학을 앞둔 이성

훈선수가 계속 꾸준한 수련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량급 유망주로 한몫할 것이라고 본다.

이성훈선수는 특기자로 포항수고에 진학했으나 공부를 하기위해 운동을 그만두다 2학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공부에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경기에 서로 상위권에 드는 좋은 성적으로 모범적인 태권도인상을 그려오고 있다.

◀헤비급: 국군체육부대의 이정진선수는 현대자동차의 임재익선수를 2:0으로 가볍게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 같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의 정치호선수를 맞아서도 무난히 승리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경희대의 노신선수와와의 결승전은 두 선수다 탐색전으로 일관해 공격없이 시간만 흘러 감점을 받기도 하는 등 별다른 공격이 없는 가운데 이정진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여자부경기

◀핀급: 예선전에서 원선진선수(수성여중)는 여중부 태권도의 명문 칠산여중의 진용순선수를 뒤돌려차기 등을 성공시키며 2:0으로 판정승한데 이어 조화임선수와 김지향선수를 눌러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칠산여중은 이로써 코치도 없이 단독으로 출전한 원선진선수에게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원선진선수는 이번의 승리로 여자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도 차지했다.

◀플라이급: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참가한 박경숙선수(서귀포중앙여중)는 결승전에서 상명여대의 강경숙선수를 맞아 위력적인 앞발차기를 과시하며 승리했다. 박선수는 국고6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난 8월에 개최된 전국 중·고연맹전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여자 태권도 유망주이다.

◀밴텀급: 정유경선수(영신여고)와 김은희선수(고양중고)의 대전은 김선수가 발이 빠르고 기술이 좋아 1회전에 1:1 동점에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2회전에 정선수가 뒷차기로 득점을 올려 역전을 했다. 3회전에 다시 김선수가 선전했으나 득점에 이르지 못하고 우세판정에 그쳐 2:1로 아깝게 패했다.



4명이 출전해 3명이 입상한 성신여대. 임신자코치는 지도상을 수상했다.

결승에 오른 정유경선수는 배은정선수(성신여대)에게 기술에 밀리며 2:0으로 패하고 말았다.

◀페더급: 윤희선수(인천체고)와 이현화(영신여고)선수가 올라온 결승전은 우세판정을 주고 받는 가운데 3회전에 우세판정을 받은 이현화선수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정남숙선수(천안여고)와 박진경선수(상명여대)의 대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은 1회전에 우세판정으로 기세를 잡았던 박진경선수가 2,3회전에 각각 득점을 올려 승리했다.

◀웰터급: 고재경선수(성신여대)와 박경희선수(고양중고)의 결승전은 여고생인 박경희선수가 대학생인 언니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미들급: 예선전에서 같은 학교 선수끼리 대전을 펼친 영신여고의 김기욱선수와 장철선수의 대전은 2회전에 장철선수가 R.S.C 승을 거두며 4강에 올라가 배성여상의 이미라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까지 진출했다.

상명여대의 양인덕선수와 패권을 다투게된 장철선수는 1회에 득점을 내주며 기선을 빼앗긴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3회전 맹렬히 공격했으나 우세 판정에 그쳐 패권을 내주고 말았다.

◀해비급 : 예선전에서 박영미선수(인천체고)와 박은주선수(영신여고)의 대전은 두 선수 다 좋은 기량으로 막상막하의 대전을 펼쳐 1,2회전에 각각 2득점씩을 올려 무려 4:4까지 나왔는데 3회전에 박영미선수가 1득점을 올려 아슬아슬하게 4강에 올라서 정완숙선수(성신여대)에게도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박영미선수는 이성미선수(문성여상)를 맞아

서도 팽팽히 맞서 2회전에 2:2까지 갔는데 3회전에 이성미선수가 1득점을 올려 아깝게 패하고 말았다.

최우수 남자부·박봉권 (한국체육대학)

선수상 여자부·원선진 (수원수성여자중학교)

지도상 남자부·이승국 (한국체육대학교수·감독)
여자부·임신자 (상명여자대학교 코치)

입상자 명단

■남자부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 경 호	한 성 고
	2	강 윤 석	풍 생 고
	3	박 진	성 동 고
플라이급	3	지 재 기	통 영 고
	1	김 철 호	한 국 체 대
	2	권 태 호	동 성 고
	3	김 훈 섭	풍 생 고
밴 텀 급	3	임 성 옥	계 명 대
	1	함 준	한 국 체 대
	2	심 우 현	동 아 대
	3	조 영 남	동 아 대
페 더 급	3	최 재 우	성 동 고
	1	이 제 범	풍 생 고
	2	박 상 로	성 동 고
	3	김 상 래	청 주 대
라이트급	3	김 병 철	한 국 체 대
	1	양 대 승	한 국 체 대
	2	이 광 로	한 국 체 대
	3	김 상 곤	경 상 대
웰 터 급	3	박 호 상	국군체육부대
	1	박 봉 권	한 국 체 대
	2	이 창 건	국군체육부대
	3	박 종 삼	경 상 대
미 들 급	3	윤 순 철	경 회 대
	1	김 현 곤	전 북 협 회
	2	이 성 훈	포 향 수 산 고
	3	이 기 훈	국군체육부대
해 비 급	3	박 종 범	청 주 기 공
	1	이 정 진	국군체육부대
	2	노 신	경 회 대
	3	정 치 호	국군체육부대
	3	최 상 진	국군체육부대

■여자부

계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김 지 향	철 산 여 중
	3	조 화 임	철 산 여 중
플라이급	1	박 경 숙	서귀중앙여중
	2	강 경 숙	상 명 여 대
	3	박 금 주	철 산 여 중
	3	강 정 선	은 광 여 고
밴 텀 급	1	배 은 정	성 신 여 대
	2	정 유 경	영 신 여 고
	3	김 경 애	문 성 여 상
	3	김 성 숙	인 천 체 고
페 더 급	1	이 현 화	영 신 여 고
	2	윤 회	인 천 체 고
	3	조 향 미	북인천여중
	3	박 현 순	성 신 여 대
라이트급	1	박 진 경	상 명 여 대
	2	정 남 숙	천 안 여 고
	3	진 혜 윤	고 양 종 고
	3	남 정 동	성 신 여 대
웰 터 급	1	박 경 회	고 양 종 고
	2	고 제 경	성 신 여 대
	3	손 정 애	인 천 체 고
미 들 급	1	양 인 덕	상 명 여 대
	2	장 철	영 신 여 고
	3	이 미 라	배 성 여 상
	3	박 혜 영	인 천 체 고
해 비 급	1	이 성 미	문 성 여 상
	2	백 영 미	인 천 체 고
	3	함 선 미	천 안 상 고
	3	정 완 숙	성 신 여 대

제 9 회 체육부장관기 및 제14회 연맹회장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11. 5~6, 국기원



임 홍 수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연맹감사

국기원에서는 11월 5~6일까지 제9회 체육부장관기타기 및 연맹회장기 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연맹회장기 타기대회에는 57개 학교에서 170명이 참가하였고 체육부 장관기타기 대회에는 200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여성태권도선수 활성화를 위해 시범경기로 시도된 여자부에는 6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연맹대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년별 품새경연대회는 5~6학년만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소외되었던 저학년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대회참가율이 높아져 각 도장의 품새교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본 연맹의 서영준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인의 대제전인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의 성공은 공산주의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올림픽사상 최대, 최고의 성공적 대회였고 경기성적에서도 세계4위라는 기적을 이루어 스포츠 강국은 물론, 문화국민으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거행하는 본 대회는 그의의가 더 깊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운용 회장을 대신해 김용휘사무국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금번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를 모두가 여러분들처럼 국민학교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였다고 강조하며 6~7년후엔 여러분들 중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내일의 꽃임을 강조하며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미동국교 태권도시범단의 시



종합우승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에 체육부장관기를 수여하는 서영준 회장.



대회준비에 노고가 컸던 국교연맹 임직원들.

범과 유도학교의 태권도시범은 태권도경기외의 위력과 가치를 보여주었으며, 유도학교 시범단의 호신술 시범은 흥미있는 연기력과 연출로 폭소를 자아내는 등,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영양공급 상태가 좋아져 신체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경량급선수보다 중량급선수의 출전이 많아져서 성인들이 외국선수들에 비해 신체적열세를 면치 못했던 것들을 상기해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최중량급인 헤비급 선수가 많이 출전하였는데, 이들이 지속적인 수련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국제적인 경기에서 중량급 열세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변화로 어린이의 신체적변화가 급향상되고 있어 현행 체급을 조정,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 같다.

두 개의 대회를 같이 치른 본대회에서는 연맹

회장기 대회보다는 체육부장관기대회가 기량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었으며, 연맹기 대회는 서울광화문국교가 종합우승을 하였고, 체육부장관기대회는 청주서원국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청주 서원국교에서는 감독은 물론, 학부모들이 대거 상경해 열렬히 응원을 하였고, 이러한

성원이 지도자나 선수가 더욱 열심히 수련하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였다고 본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국민학교태권도가 경기도 서울과 지방의 기술편차가 없음을 여실이 드러내 태권도인구의 1/3을 보유한 서울에 경종을 울려주기도 했다.

입상자 명단

■제14회 연맹회장기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권 용 수	경기부양국
	2	한 기 면	서울옥수국
	3	손 호 령	서울쌍문국
	3	유 정 호	서울금천국
플라이급	1	박 명 철	서울광희국
	2	김 정 진	서울중마국
	3	한 상 욱	서울불광국
	3	장 승 만	서울신방학국
밴 텀 급	1	박 창 호	서울쌍문국
	2	황 현 준	서울쌍문국
	3	최 학 용	서울광희국
	3	유 승 욱	경기부양국
페 더 급	1	김 윤 식	서울쌍문국
	2	최 원 규	서울쌍문국
	3	황 인 태	인천일신국
	3	김 도 환	인천일신국
라이트급	1	박 태 용	풍 남 국
	2	유 기 준	강 덕 국
	3	박 유 신	인천구월국
	3	임 창 우	경기광릉국
웰 터 급	1	유 근 무	성남단대국
	2	김 경 진	금 천 국
	3	최 환 서	중 마 국
	3	이 재 석	광 회 국
미 들 급	1	이 상 현	풍 남 국
	2	이 상 진	중 마 국
	3	신 문 기	개 원 국
	3	이 태 민	금 천 국
헤 비 급	1	방 영 선	옥 수 국
	2	한 승 훈	광 회 국
	3	하 태 호	잠 동 국
	3	임 세 명	신 석 국

■제9회 체육부장관기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김 향 수	서 원 국
	2	강 길 훈	한 강 국
	3	김 남 중	한 강 국
	3	김 창 식	경기하원국
플라이급	1	박 재 용	청주서원국
	2	박 영 민	안양박달국
	3	한 관 회	면 목 국
	3	강 명 성	한 강 국
밴 텀 급	1	함 용 호	용인신갈국
	2	남 기 영	청주주성국
	3	김 덕 훈	경기하원국
	3	김 현 일	경남좌천국
페 더 급	1	홍 의 익	청주주성국
	2	위 현 서	한 강 국
	3	정 재 학	청주주성국
	3	조 소 원	경기하원국
라이트급	1	장 동 훈	청주서원국
	2	김 명 진	휘 경 국
	3	허 승 담	제주서호국
	3	김 용 준	청주주성국
웰 터 급	1	이 진 상	청주서원국
	2	정 환 백	경기용인국
	3	노 태 주	충주수봉국
	3	양 광 민	청주서원국
미 들 급	1	서 경 원	청주서원국
	2	박 성 덕	인천주안북국
	3	조 경 자	한 강 국
	3	이 준 회	경기용인국
헤 비 급	1	한 진 회	면 목 국
	2	장 경 택	화 계 국
	3	이 동 주	면 목 국
	3	심 상 훈	경기천원국

태 권 도 경 기

제11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11. 29~30, 국기원



최 인 범

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는 1988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국기원에서 제11회 회장기타기 전국 대학 대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는 8체급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메달집계에 의하여 우승컵이 결정되었다. 본 대회는 21개교에서 22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남자부는 A, B조로 나누어서 A조는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로, B조는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로 참가제한을 두어 이 대회는 명실공히 대학 선수들의 등용문이며 학교의 명예를 짊어진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금번 대회는 올림픽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상



대학부 체급별 최강자인 A조 우승자들.

으로 상당히 늦은 경기일정이었다. 그러나 국기원의 배려로 온풍기 2대가 설치되어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상자 없이 대회가 무사히 치루어졌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B조 경기에서는 핀급과 헤비급, 여대부에서는 핀급 선수가 적게 참가하여 경기를 치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자부 A조 경기에서는 전년과 비교하여 경량급보다 중량급 선수가 많이 참석하여 선수들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견하였다.

29일 오전 11시의 개회식에서는 개회선언을 필두로 금번에 새로 취임한 김동석 한국대학연맹 회장의 대회사 및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다수의 임원들과 관중

들이 참석하여 이번 대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본 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개회식 후에는 곧바로 대한유도대학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다.

호신술, 품새, 격파로 이루어진 시범에서 묘기가 속출될 때마다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뒤 공중 회전 모듬발차기 시범에서는 격파물이 터지면서 “축 제11회 회장기타기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라고 현수막이 금테이프와 더불어 쏟아져 내리자 전체 관중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첫날 경기에서 경기번호 35번 플라이급의 최현열(유도대)선수는 예상외로 권혁선(한국체대)선수를 판정으로 이겼으며 경기번호 75번 헤비급의 김홍재(계명대)선수와 안옥현(명지대)선수는 서로 득점을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 끝에 3회전에서 김선수의 깨끗한 돌려차기 기술이 득점으로 인정되어 김선수가 승리하여 8강에 진출하였다.

경기번호 53번 페더급의 강창모(동아대)선수는 채희준(목포대)선수를 맞이하여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다 뒷차기 기술로 몸통을 강타하여 2회전 1분 30초만에 K.O.승을 거두었고, 첫날 경기에서는 어느학교가 우승할 것인지를 점칠수가 없을 정도로 막상 막하의 경기를 보여주었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우승의 향방이 거의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동아대학교와 경희대가 8명씩, 청주대학교가 4명, 한국체육대학이 3명씩 준결승에 진출하여 우승을 놓고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겨루게 되었다.

핀급에서 신재덕(동아대)선수가 우승하고 밴텀급의 조영남(동아대)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자 동아대학교의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특히 청주대학교 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각 대학마다 준결승까지 진출한 선수가 고루 분포되어 지역을 벗어나 각 선수마다 실력이 평준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회였다.

미들급 결승인 남명희(한국체대)선수와 공두환(경희대)선수의 경기에서는 1회전에서 남선



여대부 체급별 우승자

대학부 A조 동아대학교 우승 대학부 B조 대한유도대학 우승 여자부 경희대학교 우승

최우수 선수상에 정희석선수 (동아대)

수의 우세, 2회전에서 공선수의 1득점으로 공선수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3회전에서 남선수가 2득점, 공선수가 1득점을 하여 남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경기는 훌륭한 경기력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으며 관중들의 모든 시선을 한군데로 모은 훌륭한 경기였다. 웰터급 결승에서는 전년도 최우수 선수인 김용수(동아대)선수와 차광채(유도대)선수가 격돌하였는데 김선수가 차선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에 차선수는 우세한 체력으로 김선수를 제압하여 웰터급의 우승자가 되었다. 이는 경기에서는 예상도 항상성도 없는 것이며, 경기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실례가 되었다.

여대부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신숙(이화여대)선수와 조인경(유도대)선수가 격돌했는데 라이벌 관계인 두 선수는 조금도 양보없는 체력전을 펼쳤으나 조선수가 2회전과 3전에서 우세하여 플라이급의 우승자가 되었다.

남자부 B조 경기에서는 전년도 보다 많은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플라이급의 신용호(유도대)선수와 웰터급의 채수인(인천전대)선수의 경우는 기량면에서도 A조선수와 다른없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 주었다.

A조에서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종합 우승 다툼은 전년도 우승팀인 동아대학교가 금3, 은3, 동2로 2연패를 하였고, B조 경기는 대한 유도대학이 금4, 은4, 동4으로 우승하였으며, 여자부 경기는 경희대학교(금3, 은1, 동1)가 성신여대(금2, 은2, 동7)와 유도대학(금2, 은1)을 누르고 전년도에 이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정희석(동아대)선수에게 돌아갔다.

금번대회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 김동석 회장은 내년도 대회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보다 훌륭한 대회를 치루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금번대회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으로 우승기가 돌아갔으며, 각체급 우승자도 동아대, 조선대, 청주대, 유도대, 한국체대, 경희대학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대학선수들의 실력이 완전히 평균화 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태권도 명문대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태권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단체성적

구 분	등위	학 교 명	비 고
남대부A조	1위	동 아 대	금3, 은3, 동2
	2위	경 희 대	금1, 은1, 동6
	3위	청 주 대	금1, 은1, 동2
여 대 부	1위	경 희 대	금3, 은1, 동2
	2위	성신여대	금2, 은2, 동7
	3위	유 도 대	금2, 은1

■ 개인성적

구 분	성명 및 학교	비 고
최우수선수상	정희석(동아대)	남자부
우수선수상	조규식(청주대)	남자부
	차광채(유도대)	남자부
	김지숙(경희대)	여자부
감 투 상	이종선(한체대)	남자부
	김우창(조선대)	남자부
	고재경(성신여대)	여자부
지 도 상	김우규(동아대)	감 독
	전정우(경희대)	코 치

입상자명단

■ 남자부A조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편 급	1	신 재 덕	동아대학교
	2	임 창 섭	경기대학교
	3	강 철 우	경희대학교
	3	우 호 진	인천전문대학
플라이급	1	나 광 운	조선대학교
	2	이 종 선	한국체육대학
	3	송 인 한	경희대학교
밴 텀 급	3	김 영 주	동아대학교
	1	조 영 남	동아대학교
	2	이 병 용	명지대학교
미 들 급	3	김 태 형	경희대학교
	3	최 효 석	성균관대학교
	1	조 규 식	청주대학교
페 더 급	2	강 창 모	동아대학교
	3	이 주 상	경희대학교
	3	김 우 창	조선대학교
	1	정 회 석	동아대학교
라이트급	2	임 태 규	청주대학교
	3	오 세 운	충남대학교
	3	이 종 학	경희대학교
웰 터 급	1	차 광 채	대한유도대학
	2	김 용 수	동아대학교
	3	김 태 형	한국체육대학
	3	공 호 권	청주대학교
미 들 급	1	남 명 회	한국체육대학
	2	공 두 환	경희대학교
	3	이 화 상	동아대학교
	3	최 병 호	명지대학교
헤 비 급	1	김 광 섭	경희대학교
	2	김 재 옥	동아대학교
	3	노 신	경희대학교
	3	추 교 일	청주대학교

■ 남자부B조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플라이급	1	권 기 원	동양공업전문대학
	2	석 주 흥	동양공업전문대학
	3	정 이 원	경원대학교
	3	김 태 우	대한유도대학
밴 텀 급	1	남 학 현	대한유도대학
	2	신 용 호	대한유도대학
	3	이 제 철	동양공업전문대학
미 들 급	3	김 태 흥	동양공업전문대학

페 더 급	1	정 경 연	대한유도대학
	2	홍 상 백	대한유도대학
	3	이 재 운	한국체육대학
	3	임 승 찬	대한유도대학
라이트급	1	채 윤 기	대한유도대학
	2	황 성 민	대한유도대학
	3	이 두 회	인천전문대학
	3	이 주 철	대한유도대학
웰 터 급	1	채 수 인	인천전문대학
	2	박 충 열	대한유도대학
	3	하 진 호	인천전문대학
	3	공 덕 용	경원공업전문대학
미 들 급	1	여 태 성	대한유도대학
	2	한 영 수	경원공업전문대학
	3	최 재 현	충남대학교
미 들 급	3	손 동 환	대한유도대학

■ 여자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플라이급	1	조 인 경	대한유도대학
	2	신 숙	이화여자대학교
	3	배 은 정	성신여자대학교
	3	박 지 선	경희대학교
밴 텀 급	1	박 현 숙	대한유도대학
	2	박 선 영	경희대학교
	3	박 연 실	성신여자대학교
	3	모 미 라	성신여자대학교
페 더 급	1	김 소 영	성신여자대학교
	2	정 은 옥	상명여자대학교
	3	강 윤 선	경원공업전문대학
	3	박 현 순	성신여자대학교
라이트급	1	이 은 영	경희대학교
	2	석 소 정	대한유도대학
	3	남 정 동	성신여자대학교
	3	구 명 순	경희대학교
웰 터 급	1	김 지 숙	경희대학교
	2	고 재 경	성신여자대학교
	3	오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3	김 유 숙	성신여자대학교
미 들 급	1	김 현 회	경희대학교
	2	양 인 덕	상명여자대학교
	3	김 미 화	인천전문대학
헤 비 급	1	고 현 정	성신여자대학교
	2	정 난 숙	성신여자대학교
	3	나 진 아	인천전문대학
미 들 급	3	방 경 애	성신여자대학교

U.S배 태권도대회 및 친선경기를 마치고



박 필 순

대한유도대학 조교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가 펼쳐진 장충체육관이 태극기의 물결속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한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U·S 배 태권도 대회를 대비한 10명의 선수단은 동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황춘성 전무이를 비롯한 10명의 선수단은 10월 26일 오전 11시 국기원에서 결단식을 갖고 오후 7시 30분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하와이를 거쳐 L·A에 도착, 이튿날인 27일 새벽 6시에 CHICAGO에 도착했다.

오전 9시경 CONNECTICUT 주의 BRADLEY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 HARTFORD의 SHERATON HOTEL에 여장을 풀고 시차

에 적응하기 위해 산보 및 간단한 쇼핑을 했다.

10월 28일 이무영회장의 도장에서 간단하게 오전훈련을 마치고 오후 2시 NEW BRITAIN 시의 WILLIAM J. McNAMARA 시장께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다과회를 베풀어주셨다.

10월 29일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 체육관으로 오전 9시에 출발하여 오전 10시에 개회식 및 한국무용이 화려하게 소개된 후, 선수단의 훈련내용 및 격파시범으로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 날은 전미 태권도 선수권 대회로 장년부 및 청소년부로 나누어져 대회가 진행되었다.

10월 30일 U·S 배 태권도 대회는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4개국 초청으로 이루어졌

으며 우리 선수단은 오전 11시에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경기장에 도착하여 준비운동 및 워밍업을 했다. 오후 2시부터 개회식 및 임원 선수 소개 후 경기가 진행되었다.

첫 경기로 핀급 이화진 선수는 특유의 기합과 화이팅으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했으며, 예선에는 멕시코 선수를 몸통과 얼굴 등 다득점으로 가볍게 승리했으며, 결승에서는 올림픽 때 경기를 가진 상대라 자신을 가졌으며 1회전 들어찍기 1점, 3회전 찌기 2점을 선취하여 첫 승리를 안겨주었다.

헤비급 김종석선수는 미국과의 대전에서 올림픽 때 못다한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초반에 두어차례 받아차기를 시도하다가 빠지는 상대를 따라 들어가면서 점프 뒷차기로 얼굴을 강타해서 1회전 1분 경에 KO승을 거두었다. 결승전은 멕시코와의 대전으로 멕시코 선수가 부담을 가져 발 한번 제대로 못챘는데 김선수는 1회전 왼 앞발 돌려차기 1득점, 3회전 오른 뒤후리기로 다운을 빼앗는 등 가볍게 승리를 거두었다.

플라이급 하태경선수는 신장의 우세함을 전적으로 살려 멕시코와의 대전에서 얼굴득점 및 들어찍기로 다운을 빼앗는 등 여유있는 경기리드로 승리했으며 결승에서 캐나다와의 대전에서 1회전에 뒤후리기 득점을 얻었으며 2·3회전에도 얼굴득점, 점프 뒷차기 등으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었다.

임원 및 선수단 명단

- ▲단장 : 황춘성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코치 : 김세혁 (동성고 교사 · '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박필순 (대한유도대학조교·'88서울올림픽 태권도코치)
 ▲선수 : 이화진 (핀급) 이은영 (라이트급)
 하태경 (플라이급) 정국현 (웰터급)
 박선영 (밴텀급) 김현희 (미들급)
 장명삼 (페더급) 김종석 (헤비급)

미들급 김현희 선수는 여자로서는 악조건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몸이 무거웠으며, 과감한 공격을 펼치지 못해 결국 미국선수에게 우세로 패하고 말았다.

밴텀급 박선영선수는 캐나다 선수를 맞이해 1회전 오른발 들어찍기를 공격했으나 넘어져서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3회전에 뒷차기 다운 및 들어찍기의 득점으로 무난히 승리를 했다. 결승에서는 미국을 이기고 올라온 멕시코 선수를 맞아 1회전 왼발 들어찍기 1득점을 선취하며 우세하게 게임을 운영해 승리를 했다.

페더급 장명삼 선수는 체격의 열세로 다소 고전을 했으나 3회전 오른 밑발등을 득점으로 선취해 승리했으며, 결승에서 멕시코를 이기고 올라 온 캐나다의 올림픽 선수 이재훈을 맞이해 2회전에 따라 들어가면서 밑어차기로 다운시켜 1득점을

선취하면서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리드해 우승했다.

라이트급 이은영 선수는 2개국 밖에 출전하지 않아 결승전을 멕시코 선수와의 대결에서 기본기가 숙련되지 않은 선수를 몸통 다운 1득점, 2·3회전 뒷차기로 득점하여 승리를 했다.

웰터급 정국현 선수는 노장으로 멕시코를 맞아 연속 뒷차기 및 오른발 몸통 연속 득점으로 승리했으며, 결승전에는 미국선수를 맞아 앞발 밀고 들어오는 상대로 다소 고전을 했으나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고 3회전에는 두번 연속차기로 1득점을 선취하여 한국에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었다.

우리 선수단은 금7개와 동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0월 31일 U·S 배 태권도 대회 및 HARTFORD의 일정을 마치고 오전 7시에 NEW YORK으로 출발, 약 2시간 40분 후 NEW YORK STANFORD

HOTEL에 도착했다.

마스타 태권도 용품 김대현 사장께서 점심식사에 초대해 주셨고 식사 후에는 이무용 회장과 함께 관광에 나섰다.

11월 1일 새벽 4시 30분에 HOTEL을 출발하여 5시 40분 GREY HOUND(버스)로 NEW YORK을 떠났다. 약 12시간을 달려 오후 5시 30분경에 NIAGARA FALL에 도착하니 뜻하지도 않은 캐나다 올림픽 팀의 정영수 코치와 이재훈 선수 그리고 부친인 이영훈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11월 2일 오전 10시에 NIAGARA FALL의 발전소 및 폭포를 끼고 있는 공원 등을 관광하고, WHIRLPOOL STATE PARK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된 다리도 보았다. BROOK LYN이 설계했으며 1890년 약 100년전에 완공했다고 한다. NIAGARA FALL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알뜰관광을 했는데 이 폭포의 특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며 NIAGARA FALL의 어원은 인디언의 물변개(T-HUNDER OF WARTS)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CHICAGO에 오후 5시 40분에 도착해 컨덕터 회장의 안내로 RADISSON SUITE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CHICAGO 한국인의 거리 로렌스를 지나서 숙소로 돌아왔다.

컨덕터 회장께서 신문에 홍보한 기사를 보고 반가워서 연락하는 한국 사법들도 있었다.



한국대표 선수단

11월 3일 오전 10시 권회장의 도장에서 간단한 위명업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세계 제일의 수족관(JOHN SHEPD AQUARIUM)과 박물관(FIELD MUSEUM)을 관광하고 오후 4시 30분에 SEARS TOWER 103층(1353FEET)의 꼭대기에서 CHICAGO의 야경을 한눈에 보았다.

오후 9시에 CHICAGO 태권도 협회 및 교민들의 환영 저녁 만찬회가 열렸다. 권회장과 이석순 한인 회장 그리고 여러 한국 사법님들께 감사드리며 숙소로 돌아왔다.

11월 4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전 11시에는 CHICAGO BEARS 풋볼 팀의 훈련과정을 보고 CARSON'S B.B.Q 식당에서 송아지 갈비 바베큐 14대 씩으로 포식을 했다. 모처럼의 편안한 휴식을 취하였고 이용기 영사대령으로 저

녁초대를 받아 한국 음식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으며 부담없는 하루를 보냈다.

11월 5일 선수단은 오전 10시 권회장님 도장에서 친선경기를 치를 CHICAGO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오후 4시 TRITON COLLEGE 체육관에 입장식과 임원 및 선수소개를 마치고 한국선수단의 훈련내용 및 간단한 격파 시범 그리고 김세혁 코치의 뒤차기의 위력있는 격파시범으로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어 이화진(핀급)선수의 상대는 서울 올림픽, U·S 컵에 이은 숙명의 대결이었으나 이 선수의 화이팅과 특기인 들어찍기로 득점 및 우세를 빼앗아 3전 전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박선영(밴텀급)선수는 미국의 올림픽 대표선수(페더급)와의 대전에서 무릎부상으로 3회전에 기권을 했으며,

우리 선수단은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많은 친선경기를 통하여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태권도 활성화에 이바지해 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나마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다.

이은영선수는 정확한 뒷차기 공격으로 KO승을 거두었고, 장명삼(페데급)선수는 상대의 변칙 공격으로 초반에 다소 고전을 했으나 노련미와 탁월한 기술 공격으로 승리했다.

그의 정국현, 김종석, 하태경, 김현희 선수 등도 올림픽 대표 선수로서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11월 6일 CHICAGO에서 첫 눈을 밝아 보면서 간단하게 짐을 꾸려 오전 8시 30분에 St. LOUIS를 출발했다. 오후 1시 30분에 미시시피강을 건너 EMBASSY SUITES HOTEL에 도착했다. 오후 3시 30분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태권도 세미나 및 그 곳의 수련생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저녁에는 수련생 및 가족들과 같이 저녁 만찬회를 가졌다.

11월 7일 오전 6시에 미시시피강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강

변에서 런닝 및 간단한 훈련을 하고 오전 9시 30분에 St. LOUIS의 상징인 GATEWAY ARCH에 올라가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보았다. CHICAGO로 돌아오는 길에 남북 전쟁 때 화약을 만들었다는 MERAMEC CAVERNS동굴도 관광하였다.

11월 8일 비록 친선경기이지만 중주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오전 훈련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다리던 쇼핑을 나갔다.

11월 9일 오전 6시 30분에 런닝으로 몸을 풀고 개인훈련을 실시하였다. 점심식사후 잠깐 쇼핑을 끝내고 컨회장의 체육관에서 CHICAGO 대회를 비디오로 구경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안개와 우천관계로 오후 9시 50분발 비행기가 11시 30분에 CHICAGO를 출발해서 11월 10일 새벽 3시 30분에 MEXICO에 도착하였다. 문

대연 관장과 현지 여러 제자들이 마중을 나와 주었고 새벽 4시경 숙소로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오전 9시 30분에 기상하여 PUEBLO에서 치를 대회 준비물과 1박을 할 수 있는 여장을 챙겨서 오전 11시 30분 문대연 관장 댁에서 아침 겸 점심식사를 끝내고 나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극심한 환경오염과 유황냄새로 어느새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변했고 입술은 부르르기 시작했으며 머리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 멍했다.

오후 2시에는 일정에도 없는 경기를 치르기 위해 버스로 2시간을 달려 PUEBLO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오후 7시에 경기라는 전달을 받고 6시 30분에 체육관에 도착해보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태만으로 8시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 체육관은 멕시코 올림픽의 배구 경기장으로 약 2천 8백여명의 관중들이 모여 들었고, 경기후 멕시코 어린이 시범단의 시범이 있었다.

시범단들은 차렷, 경례을 일제히 한국말로 구령을 붙이면서 인사를 했다. 지금 MEXICO에는 태권도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느낌과 장명삼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과 중간 시간을 틈타 고난도 격파술을 시범보이므로써 태권도 중주국임을 실감나게 했다.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PUEBLO를 출발하여 버스로

2시간을 달려 세계적인 관광지인 피라미트에 도착하였다. 2개의 피라미트가 마주 보고 있었으며 해의 신전과 달의 신전으로 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바다, 땅, 하늘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군데군데 색칠한 것은 여러 가지 선인장을 잘라서 칠한 것이라 했다.

오후 5시에 MEXICO CITY에 있는 NIKKO HOTEL 2층 홀에서 멕시코 TV방송국(TELEVISIÓN S. A. TV)과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훈련내용을 촬영하는 등 선수들과도 인터뷰를 하였다. 그 다음날 오후 9시~10시 사이에 대회 결과와 함께 방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호텔 테니스장에서 위밍업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고 사우나 및 휴식을 취했다. 오후에는 멕시코에서 개최한 팬암 태권도 협회의 회의에 참석해 여러 한국 사범님들과 같이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 8시에 입장식 및 입원, 선수소개 등 절차를 끝내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베네주엘라에서도 남자 3체급이 참가했으며 TV방송국에서 경기내용을 촬영해 갔다. 우리 선수단은 박선영선수와 장명삼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첫 경기에 출전한 이화진(핀급) 선수가 우세로 경기를 리드했으나 아깝게 패했다. 이 선수를 이긴 멕시코 선수는 서울올림픽에서 준결승때 이선수에게 진 바있

는데 멕시코 선수는 결코 자기는 올림픽에서 패하지 않았다고 인터뷰 때 말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선수가 기필코 승리를 거두어야 했지만 어린 선수로 현직 적응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김현희 선수는 멕시코에서는 신들린 사람처럼 오른발 들어 찌기로 다운(얼굴дук점), 카운터까지 빼앗는 등, 매 회전을 위협적인 얼굴 공격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 승리했다.

김종석 선수는 1회전에 뒤차기와 뒤후리기로 2득점을 선취했으며 뒷차기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가볍게 승리했다.

이은영 선수 역시 1회전 뒤후리차기로 1득점을 선취하고 우세로 몰아 붙여 가볍게 승리했다.

하태경 선수는 다양한 공격으로 다운 및 매 회전 얼굴 2득점씩을 빼앗아 가볍게 승리했다.

정 국현 선수는 노장으로서는 다소 힘들었으나 투지로 우세 및 뒷차기로 득점을 선취하면서 게임을 리드, 승리를 거두었다.

11월 13일 아침식사를 가볍게 마치고 여러 한국 사범님들과 바쁘게 인사를 나누고 공항에 도착했다. 그 동안에는 박상권 코치가 모든 안내를 맡았으며 멕시코 팀의 코치이면서도 우리 선수단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다. 그 덕분에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오전 11시 5분 비행기로

MEXICO를 떠났다.

DALLAS를 경유할 때 공항에 광둥어 사범과 또 한국 사범 몇 명이 우리선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오후 4시 L·A에 도착하니 김찬용 회장이 선수단을 맞아 주었으며 식사 후에는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CALIFORNIA로 떠났다. CERRITOS HIGH SCHOOL 체육관에서 친선경기를 마치고 다시 L·A에 있는 NEW SEOUL HOTEL에서 휴식을 취했다.

11월 14일 오전에는 간단한 시내 관광과 쇼핑을 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디즈니랜드에서 관광 및 그 동안에 쌓인 피로를 풀었다. 오후 10시에 KE001로 L·A를 출발하여 하와이, 동경을 경유해 11월 16일 12시 2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선수단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많은 친선경기를 통하여 태권도가 세계적인 SPORT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의 친선경기를 통하여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태권도환성화에 이바지해 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나마 밑거름이 되길 기원했다. *

메아리

'88 년을 보내며



권 경 옥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속에서 문화국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국회 국정감사부활, 청문회 제도 도입실시 등으로 새로운 민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듯하고 특히, 청문회를 T·V생중계로 여과없이 보여 줌으로써 각 계각층의 주장이나 욕구들을 직접 대항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선진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변천하는 격동기에 우리들의 생활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사회 곳곳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직분에 근사한 옷들을 걸쳤으나 그 마음의 더러움으로 남들에게 때를 묻히며 보기 흉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후안무취(厚顔無恥)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어느 책에선가 본 「걸레철학」이란 글이 상기되어 그 뜻을 옮겨 같이 느껴 보고자 한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걸레」라 하면 때묻고 찢어지고, 해진 더러운 흰 옷가지를 상상하게 되고, 지쳐분한 삶을 이어가는 인생들을 걸레인생이라고 흔히 표현들을 하는데 하필이면 왜 「걸레」를 빌어 철학을 운운하는지 역설같지만 논해 보고자 한다.

걸레는 자기자신을 회생하여 모든것을 깨끗하게 하여준다. 걸레의 더러움은 자기 회생에서 오는 더러움이기에 빨고 삶으면 깨끗해 지지만 인간들의 마음과 행실에서 오는 더러움은 과욕과 악에서 오기 때문에 쉽사리 지워지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도 걸레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봉사한다면 이것이 곧 회생의 자세이며 진리를 행하는 진정한 실천자일 것이다.

특히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는 공복(公僕)은 걸레가 다른 사물들을 깨끗하게 닦기위해 자기몸이 닳고 떨어지고- 그로인해 자기몸에 묻힌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비누로 문대고,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아픔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겸손함을, 또 이러한 고통을 사명으로 알고 실행할때 공복(公僕)으로서의 채무를 다하는 것이며 공인으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뛰는 모습, 재잘거리는 모습, 크게 웃어보이는 모습 등은 어른들에게는 바로 기쁨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모든 소망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전교사가,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어린이교육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이나 부모 못지않게 어린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태권도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도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이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어주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학교에서는 공부 가르치기에, 집에서는 가정교육에 치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시키기는 여간해서 힘든 것이 사실이다.

쌍문국민학교에서도 태권도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고 하겠다. 쌍문국교에서는 5년 전인 1983년도 3월부터 인근의 수유체육관 박홍신관장이 태권도 지도를 맡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태권도 수련을 해왔다. 첫해에는 운동장을 꽉 채울만큼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을 지원했는데 6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많은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태권도에 대한 저변 확대면에서는 성공했으나 운동장에서 발차기 등을 하자 모래

알이 튀고, 한시간 가량 운동을 하다보면 몸에서 땀이나 수증기에 들어갈 때는 모래를 털어내야만 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 중에는 자연 조금만 더워도 나오지 않게 되고 마음에 내키면 다시나오는 등 태권도에



쌍문국교 태권도부 어린이들과 홍정식 교장선생님



쌍문국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해왔다.

“
**내년부터는 특활시간에
 태권도부를 지도해 체계적으로 전학년을 수련시키며
 어린이 선도에 주력하고
 우수한 기량을 가진 어린이는
 대회에 출전시킬 것**이라는
 쌍문국민학교.

”

대한 올바른 교육이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유로이 참가하는 태권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드넓은 운동장에서 산만해지기도 쉬워 「태권도 수련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박홍신관장은 학교에 건의해 태권도 수련을 매일 빠지지 않고 정확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선별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몇년 전부터는 수련생을 100명으로 제한해서 태권도를 지도해왔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태권도에 대

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수련생들도 태권도인으로서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지도자와 학생간에 교육적인 관계가 성립되기에 이르러 태권도 수련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공부도 열심히하고 예절바른 어린이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 전국국민학교 태권도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 이선영 어린이의 경우 2년간 한번도 태권도 수련을 거르지 않고 나와 태권도를 수련해온 성실한 어린이로 학교에서 공부도 1.2등

하는 우등생이어서 태권도부 어린이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아침 태권도를 하는 것도 한 여름이나 겨울에는 너무 덥거나 추워서 계속할 수가 없어 주로 봄가을에 실시하게 되자 태권도 수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내년 부터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에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협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한지 8년이나 되는 박홍신관장은 88년도는 올림픽대회 등으로 바빠 학교에서 특활시간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맡지 못하였으나 '89년 부터는 특활시간을 이용해 비록 1주일에 1시간씩 이지만 전학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올리고 이들 중 우수한 기량을 나타내는 학생은 대회에도 출전시키겠다고 한다.

한편 쌍문국교의 홍정식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위치면에서 빈부의 차가 격심한 취약지구라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



샘문국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박홍신 관장은 각종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나오는 것조차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이러한 어린이들 일수록 공부에 아닌 다른 것에 취미를 가질 경우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시간에 태권도를 수련케하여 무도정신을 심어준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박홍신관장에게 어린이의 선도적인 측면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식교장선생님은 국민학교때 비뚤어지기 시작한 어린이를 이 시기에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그들을 구제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교사와 사범은 사랑으로 최

후의 한명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생활하여야 하며 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에 박홍신관장도 태권도 지도자로서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처음에 말안듣고 공부도 안하고 말쑥피우던 아이들이 수련후 모범생으로 변모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특별히 학교에서의 문제아에 대해 각별히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특활시간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계속 배우고자 할 때 그들을 도장에서 무료로 매일 지도해 바른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렇게 학교에서 태권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박홍신

관장은 관장자신처럼 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지 않은 일선 도장의 경우 대회출전시에는 체육관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중심으로 태권도 경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 체육관에 다니면서 수련하고 있지만 대회출전시에는 소속 학교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일선 도장의 태권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각종 예체능교육기관이 생기면서 유치부나 국교생이 대부분인 일선도장은 그만큼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속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장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방안은 도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 위주의 대회가 아니라 도장별로 대회에 출전하여서도 입상하면 학교확인을 거쳐 진학등에 똑같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태권도를 사회체육으로 과감히 변모시키는데 노력해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장에 나와 심신을 연마하는 수련도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장을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평생직업으로서 일할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범들의 노후 복지문제에도 철저한 뒷받침이 뒤따를 수 있도록 태권도 관계기관의 노력은 물론 사범스스로의 복지자구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배명중학교

왕십리에 자리잡고 있었던 배명중학교는 그 지리적, 형태적 특성 때문에 강북시민이면 배명중학교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5년전 강남의 석촌호수에서 밀지 않은 곳에 교사(校舍)와 교육시설, 넓은 교정을 갖추고 새로운 강남의 교육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배명중학교의 유명한 야구부의 경우 운동장만한 연습장이 마련되어 있고 태권도부의 경우에는 40평의 도장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시설면에서 보통 옛날에 지은 학교건물들이 교실이 모자랄 지경인데 비해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예체능시설, 과학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배명중학교에 태권도가 창설된 것은 1978년도로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현재 배명중학교 체육과장으로 재직중인 최재혁교사가 태권도부를 창단해 지금까지 감독으로 태권도부를 지도하고 있다. 태권도부

지도코치로는 양승박사범이 맡고 있는데 최재혁·양승박 체재하에 태권도부는 남중부 최강의 자리를 고수하기도 했던 태권도 강팀중의 하나였다.

1981년도와 1982년도 중고연맹전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1983년도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외에도 전국대회에서 많은 입상자를 내면서 태권도부의 명성을 떨친바 있고 지난 7월에 개최된 중고연맹전에서는 단체 3위를 차지한바 있다.

특히, 배명중학교 출신으로는 '86아시안게임에서 핀급 금메달을 차지한 이종선선수(현재 한체대재학중)가 있고 경기대에 재학중인 서정원선수, 한체

대에 재학중인 김철호선수는 각각 세계 대학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는 국가대표급선수들이다.

배명중학교의 민경호교장선생님은 태권도부의 성장은 오로지 지도자의 열성 때문이었다며, 최재혁선생님과 양승박코치의 공을 높이 치하했는데 학교에서는 태권도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



민 경 호
교장선생님

강남으로 학교를 옮긴 배명중학교는 교정에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젊음이 넘치고 있다.





태권도부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최재혁 체육과장 겸 감독(오른쪽끝)과 양승박 코치(왼쪽끝).

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배명중학교는 태권도부가 창단되기 이전에 야구의 명문으로 20년전부터 야구부를 발전시켜왔고 유도부를 육성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부가 대해서는 매년 특기생을 받아 장학혜택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배명중학교는 배명고등학교와 한 울타리안에 있어 중학교에서 실력을 다진 특기생들이 고교에 바로 진학하면 좋을텐데 배명고등학교는 야구부와 육상·다이빙종목을 육성하고 있어 태권도부원들을 다른 학교로 진학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키운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배명고등학교교장이 바로 전임 배명중학교 교장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컸던만큼 고교에 태권부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배명중학교의 태권도부 발전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태권도부에는 16명의 수련생이 있는데 올해 3학년생

4명이 졸업하고 89년도에 9명의 특기생이 입학할 예정이어서 내년도에는 팀의 전력이 훨씬 보강되리라 본다.

그러나 배명중학교가 강남으로 이전된 이후 초창기보다 훨씬 시설면에서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적면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선수간의 기절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최재혁 감독의 이야기이다.

즉 강북쪽의 수련생들이 주로 투지가 강했고 적극적이고 활달했다면 강남지역은 주로 아파트촌의 주거환경 탓도 있고 보통 한자녀 내지 두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체질적으로 나약하고 성격상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왕십리에 있을 때는 주로 태권도의 명문인 광희국민학교 출신이 배명중학교로 진학, 기초가 잘 다져진 학생들이 입학했는데 강북쪽에는 아직 태권도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국민학교가 없어 선수선발 자체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애로점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특별시간에 주1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고 강남에도 태권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 머지않아 80년대초의 영광을 재현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양승박코치의 얘기다.

배명중학교의 민경호교장선생님은 요즈음의 교육실태가 대학진학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80만명에 가까우나 이중 20만명밖에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체능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이를 갈고 닦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사명감이라고 본다며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풍토에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방면에서 골고루 사회가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태권도부를 비롯한 예체능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정면에서 도움을 못하고 있는것이 교장으로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뿌린만큼 거두어들이는」는 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댓가는 메아리처럼 언젠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면 태권도부원들은 태권도부실에 모여 체력훈련과 기술지도 등을 받는다.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 내일의 승리가 보일 것이고 이들이 외치는 태권도의 우렁찬 함성 속에 태권도부의 발전은 기약되리라 본다. *

경기도 부천시 정명고등학교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남녀 태권도선수가 활성화되어 있다. 경기도의 일개 시에 불과한 부천에만도 부천공고, 시온고가 태권도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85년도에 신설된 정명고등학교가 태권도선수를 육성함으로써 부천은 막강한 태권도선수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정명고등학교는 개교한지 1년만에 특기생을 뽑을 정도로 태권도부 육성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는 부천에서 20년이상 도장을 운영해오며 부천의 태권도발전의 산파역할을 해온 삼손체육관의 정관진관장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학교의 김용철 이사장과 학교장을 찾다니며 태권도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다음해부터는 특기생을 선발하기로 함에 따라 매년 4~5명의 특기생이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3년간의 장학금이 지급

되는 좋은 혜택이 주어져 태권도부원들은 학업과 태권도 수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주로 삼손체육관에서 수련을 해온 국교부 수련생들 중에서 자질을 보인 수련생이 부천 남중에 입학, 계속해서 삼손체육관에서 태권도 지도를 받아왔으며, 이들 중에서 다시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 특기생으로 발탁됨으로써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선수는 거의 국교 때부터 삼손체육관에서 지도를 받아온 수련생들로 그 맥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련생들간의 팀워크라든가 지도자와 수련생간의 지도방식 등에 어려움이 없고 선수들이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부적응 등을 피할 수 있어 정명고등학교는 경기도 대회에서는 이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 출전, 입상자를 내고 있다.

정명고등학교의 최간열교장은 태권도 뿐만 아니라 체육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훌륭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일의 명문을 위해 3년전에 세워진 정명고등학교



졸업식날 졸업장과 함께 선물로 주기 위해 쓴 붓글씨중의 하나를 들여다 보고 있는 최간열 교장선생님

것도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라며 특기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정명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진학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전과목 수업 후 보충수업→자율학습으로 이어진 짜여진 일과시간 속에서 전체학생들에게 태권도 지도를 시킬만한 시간을 낼 수 없어 태권도부 선수들에게만 태권도 수련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아직 체육관이 마련되지 않아 태권도 부원들이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태권도부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최간열 교장선생님의 말처럼 태권도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나 태권도부가 발전할 가능

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장 자신이 태권도를 수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교장선생님의 자체들 모두가 태권도를 수련해 유단자라고 하니 태권도부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최초로 교련이 도입되었을 때 최고장은 전교생의 단결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점심시간에 실시되는 10분간의 중간체조 시간에 태권도 지도를 실시했는데 그 효과가 좋아 당시 최우수 교련김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태권도 수련이 주는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태권도부 발전 가능성은 지도자와 선수간의 유기적 관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삼손체육 관을 거쳐 부천남중→정명고등학교로 이어진 선수들은

정관진 관장, 이재성 사범에 의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권도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관심과 학교에서의 후원 뿐만이 아니라 부천시민으로 결성된 민간 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손체육관의 정관진관장이 부천에서만 20년 이상을 도장을 운영해오며 수 많은 수련생들은 지도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널리 인정되면서 정관진관장의 노력에 의해 정명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생기자 태권도와는 아무연관이 없는 부천의 뜻있는 유지들이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는 의견이 나와 올해초 태권도부 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현재 서석열회장, 김갑근 총무를 중심으로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태권도부 후원회는 매달 이사들이 2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는 태권도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명고등학교는 현재 1~2학년이 태권도부 재학생이 있는데 내년에 이들이 2~3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특기생을 선발해 1,2,3학년에 골고루 태권도부원이 입학하게 되면 정식으로 태권도부 창단식을 갖겠다고 최간열교장이 약속했는데 그동안 태권도부 창단식을 추진해온 후원회는 내년 3월에



태권도부원들이 학교뒷산에서 체력훈련을 실시하고 나서...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삼손체육관의 정판진
관장(왼쪽)과 이재성
사범(오른쪽).

거행될 창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특히 최간열 교장은 특기생으로 들어온 태권도부원들에 대한 학업과 생활태도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태권도 특기를 살려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은 바로 교육자가 지도해야 할 임무라며 이를 위해서 생활기록부, 성적부, 출석부 등도 수시로 가져와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세심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태권도부원들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쏟는다고 보다는 전교생들에게

모두 세심하게 정성을 쏟는 것이 사실이다. 3학년 재학생들의 경우 거의 80%이상의 이름을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을 정도라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인지 가히 짐작할 만하다. 또한 교장실을 학생들이 다니는 복도쪽문과 교무실쪽문을 모두 개방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어느 학교보다도 학생들이 교장과 가까이 지낸다고 자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시간이 날때마다 교장실 회의용 탁자에 마련된 먹과 붓으로 붓글씨를 쓰고 계신 교장선생님을 뵈로

온 학생들은 인생에 지침이 될 만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만도 능사가 아닌 듯 싶어 한장 두장 써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첫째 졸업생들이 한명씩 찾아와 계속 졸업기념으로 휘호를 써달라고 해 하나씩 써주다보니 이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자꾸 찾아와 결국 졸업생 전원에게 써주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는 3학년생들이 1회 졸업생에게 써주셨으니 우리들도 써달라는 부탁을 2월에 개학하자마자부터 건의를 해와 최고장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 보통 저녁 9시30분까지 글을 쓰고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단순히 화선지에 글만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름과 교장선생님 자신의 이름까지 쓰고 낙관까지 찍어 일일이 대봉투에 넣어 이것을 졸업식날 졸업장과 함께 선물로 줄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교육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쏟으며 태권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장이 있는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원들은 다른 학교의 태권도부에 비해 너무도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태권도부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명고등학교 태권도부는 머지않은 날에 고교 태권도 명문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본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호태권도장

“
연간교육계획 및
수련프로그램에 의해
태권도교육을 실시하는
청호태권도장은
유급자와 유품자를
분리 수련시키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초체력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턱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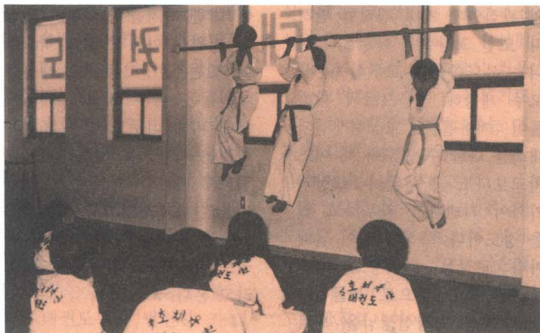
잠실 석촌호수에서 멀지않은 송파국민학교 후문쪽에 자리잡고 있는 청호태권도장은 신성환사범이 태권도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및 수련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태권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도장운영면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장이다.

11월 현재 부별 수련생수를 살펴보면 유치부 26명, 국교부 68명, 중등부 8명 등 총 100명의 수련생이 있는데 이들은 대

부분 쉽게 입관했다가 쉽게 퇴관하는 유동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매달 이사변동에 의한 수련생수의 증감 외에는 거의 2, 3년간 수련을 하고 있는 고정 수련생수라고 할 수 있다.

고정수련생이 많은 것은 청호태권도장의 수련프로그램의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데 우선 수련별 분리교육을 들 수 있다. 즉, 유급자과정과 유품자과정을 분리 수련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수련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리교육을 하지 않고 통합교육을 할 때에는 초보자 수련시간에 유품자는 대기해야 하며 유품자 수련시간에는 유급자가 대기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낭비를 하게 되며 특히 유품자일수록 고급동작을 충분히 수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수련생들은 어느 정도 수련기간을 거치면 수련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을 보완한 것으로 이러한 분리교육은 연간교육계획 프로그램에



“의해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년간 교육프로그램은 반복교육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루한감이 없도록 짜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계획표에 의해 수련생은 2년반 내지 3년간을 지속적으로 수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차기만 보더라도 32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발차기 중에서도 왕복발차기 20가지, 미트발차기 20가지, 응용발차기 24가지 등으로 나누어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 발차기가 수련내용에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것은 일년에 한두번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유급자와 유품자는 수련기간에 따라 그 실력의 차이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승급·승단시험에 참가한 선수나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최소한 유급자에 국한된다는 것에서 벗어나 유품자가 되어야 제대로 태권도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수련생들은 보통 2-3년간의 수련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유급자와 유품자 수련시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으나 그 시간에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련생은 시간표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폐단도 없지 않으나 철저한 태권도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은 감수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련생들에게 수련시간의



신성한사범(사진)이 2년여에 걸쳐 만든 연중수련계획표.

엄수는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결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야 된다는 것 등은 규칙으로 정해 입관시부터 지켜야 될 사항 등을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주지시켜 이를 연속 2회 어길 경우 제명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수련생들은 도장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호기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장의 칠판에는 매일 매일 부별로 교육내용을 적어 두고 있어 수련생들도 교육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지도자 자신도 교과과정별로 지도하고 있어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을 부별, 년별로 짜기까지는 2년이라는 장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제 이것이 기반을 잡아가고 있어 1989년도

에는 유단자수련까지 연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신성한 사범의 계획이다.

태권도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운동과 품새를 비롯한 태권도 기술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체육, 체력보강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체육의 목적은 학교체육 시간에 실시하는 종목을 보장하여 체육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감을 복돋우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시종목으로는 매트 위 구르기·뽀름넘기·줄넘기·높이뛰기·핸드스프링을 하고 있다.

체력보강훈련은 기초체력향상을 위해 팔굽혀펴기,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넓이뛰기 등을 매일 실시하는데 주1회씩 월4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야외수련을 통해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회 이상 측정하여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인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도 청호태권도장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 및 수준 등에 있어서도 유치부와 국교부가 다르다.

전 수련생에게 실시되는 정신교육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무도 정신에 입각한 관혼을 실천하며 건전한 인격형성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1회씩 실시되는 정신교육은 신성환사범 자신이 정신교육용으로 만든 스크랩을 보면서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도장에서의 예절, 대화법 나눌 때의 예절, 태권도 역사, 어른 밥상·아이들 밥상, 어린이는 씹씹하고 빠르게 키우자, 도덕적 수련으로서의 태권도, 태권도 교육론, 기타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각종 책이나 논문, 잡지 등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정신교육 측면은 사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진행되기 보다는 태권도의 무도정신을 바탕으로한 정신철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중앙협회에서 참고 책자를 발간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 신성환 사범의 바램이다. 그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잘못하면 태권도 기술을 아무리 잘 지도한다 해도 그것은 일종의 폭력의 수단이 되기 쉬운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교육을 일선사범에게 그대로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청호태권도장에서 실시하는 연중행사로서 가장 크고 의미있는 교육 중의 하나는 국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야외수련을 통해 극기훈련을 3박 4일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매년 1월이면 1년간의 행사 일정이 정해지는데 그 때 여름캠프의 장소가 선정되고 5월이면 10일간의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 지형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여름 캠프가 실시되면 10km의 산악행군, 야간 담력훈련을 위한 야간 지시물 찾기 등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련생들에게 강한 인내력, 지구력, 담력을 쌓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되지만 지도자가 지형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30~40명의 수련생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에 철저한 만큼 도장시설면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청호태권도장은 어느 문틈을 손가락으로 문질러봐도 먼지하나 묻어나지 않을만큼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계절별로 실내온도를 2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온방장치를 갖추고 있어 겨울이라도 도복을 입고 나와 운동하기에 알맞도록 해 주로 어린이들이 즐겨나 더우면 도장에 나오기 싫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호태권도장을 취재하는 짧은 시간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의 건강교육, 정서교육, 인격 도야에 태권도보다 더 나은 교육이 어디있겠느냐는 신성환 사범의 말처럼 태권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도자들의 지도방법이나 열의가 그 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권도발전 공로로 체육문화상 수상

미국 플로리다주 이기정 사범

태권도 보급에 인생을 걸고 15년간 미국에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심어 온 플로리다 데이тона비치의 이기정 사범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듯이 영광스럽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데이토나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역에 3개의 도장을 운영하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체육학 강의를 맡아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시키고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여 플로리다 태권도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온 미국태권도연맹(U.S.T.U)플로리다주회장인 이기정사범은 지난 10월 29일 미주리주에서 거행된 제13회 미국대학선수권대회시에 열린 대학연맹총회에서 미국대학연맹부회장에 선출되었다. 이기정 사범은 이를 계기로 내년도에 개최될 제14회미국대학선수권대회를 조지아주의 아틀란트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도 대회준비에 벌써부터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무엇보다도 이기정사범을 기쁘게 한 것은 플로리다주



여성수련자의 자세를 바르게 고쳐주고 있는 이기정사범

에서 매년말에 미술·음악·체육분야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기정사범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분야의 수상자로 결정, 영예의 체육문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기정사범은 진실로 태권도를 사랑하고 열려하는 마음으로 태권도보급을 위해 애써온 지나온 시절이 이 환경의 상징으로 함축되는 것 같아 감격스러울 뿐이라며 그동안 지금까지 이기까지 얼마나 눈물겨운 과정이었는가를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기정사범은 「태권도는 이제 미국사회 전역에 뿌리내려 거의 대중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고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태권도가 대중화되자 미국 청소년들이 대거 입문, 이젠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을 이끌어 나갈 효과적인 태권도지도법이 필요하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는데 우리는 이기정사범에게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하다. *

남미의 지붕 볼리비아, 태권도열기 높다

볼리비아 라피스의 강진원사범



강진원 사범

“

강진원 사범은 수도 라파스에서 경찰학교, 육사·공사·해사등 3군사관학교, 대통령궁 경호실 특별지도를 맡고 있으며, 도장에서 30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

”

남미의 지붕이라 볼리우는 볼리비아의 고산지대에도 태권도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1986년 6월에 친척의 초청으로 볼리비아로 출국한 강진원 사범(6단)은 처음에 태권도의 열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 놀랐을 정도로 볼리비아에서 태권도가 인기있는스포츠라고 한다.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은 처음 볼리비아에 태권도를 전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재 볼리비아 참사관 김만복씨의 태권도지도 때문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초 참사관이었던 김만복씨는 업무외의 시간에 한국

의 무도 태권도를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지도하며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전수했는데 그때 배운 수련생들이 이제는 태권도 지도자로서 볼리비아 전역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는 태권도가 팬암대회의 정식종목일 뿐만 아니라 '92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 태권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도 9개의 대표적인 태권도장과 지관들이 있으며 각 시도에는 12개의 대표적인 태권도장이 있는데 도장에는 각기 지관들이 있다고 한다.

태권도장은 보통 150평내지



볼리비아 태권도 발전도 후원하는 인사들과 함께.



볼리비아 전국태권도대회에 참가한 강진원 사범의 수련생들이 상패와 상장을 자랑하고 있다.

300평으로 넓은 도장에서 200~300명의 수련생들이 있는데 볼리비아 전역에 대략 만여명의 수련생들이 있을 것으로 강진원사범은 추측했다.

강진원사범은 라파스에서 경찰학교·육사·공사·해사 등 3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 지도, 대통령궁 경호실 특별지도를 맡고 있으면서, 도장에서 30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볼리비아태권도협회 기술분과 위원장으로 매년 2차례에 걸쳐 볼리비아 전역의 현지사범에게 지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15일에는 광복절

기념 및 올림픽홍보를 위한 태권도 시범 및 육사체육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바 있고 매달 1번씩 정기적으로 TV에 출연해 태권도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의 귀국을 통해 TV방영용 태권도비디오 자료를 구입해오면 매일 정기프로그램으로 방송하겠다는 볼리비아 방송국과의 약속을 받고나와 태권도 비디오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것이 TV를 통해 볼리비아 전역에 방영된다면 태권도의 보급은 더욱 더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의 태권도 열기가 대단해 태권도 수련생

지도를 강진원사범과 강진원사범을 초청해간 삼촌 김호범사범(4단)이 함께 지도하고 있으나 이들을 다 지도할 수 없어 후배인 장구사범(4단)을 초청해 함께 태권도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출국 이래 계속 떨어져 살아야했던 가족들도 이번에 함께 볼리비아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강진원사범은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에 태권도의 열기가 고조되어 있어 한국인 사범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으며 앞으로 볼리비아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협회통일에 구심점 역할 아일랜드의 정계동 사범

아일랜드에 태권도가 보급된 것은 10년전이지만 그후 가라데·쿵후 등이 전파되면서 활발하게 격투기가 발전되어갔다.

그러나 태권도의 형태는 여러 격투기의 형태가 복합된 변형된 태권도였기 때문에 유럽 태권도연맹 등에서 한국인 사범을 1년에 한번 씩 파견해 품새지도를 해오며 태권도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이무진 사범이 아일랜드로 건너가 1년간을 지도하다가 한국에 있던 정계동사범을 초청, 태권도의 정통성을 살린 태권도 보급·발전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으로 떠났던 것이다.

정계동사범은 올해 4월 1일 출국,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활약은 너무나 크다고 한다.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6개의 클럽을 맡아 300여명의 태권도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태권도 수련생 지도에만 그치지 않고 ITF협회가 결성되어 있는데다가 WTF협회가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WTF협회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아



아일랜드의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품새를 지도하고 있는 정계동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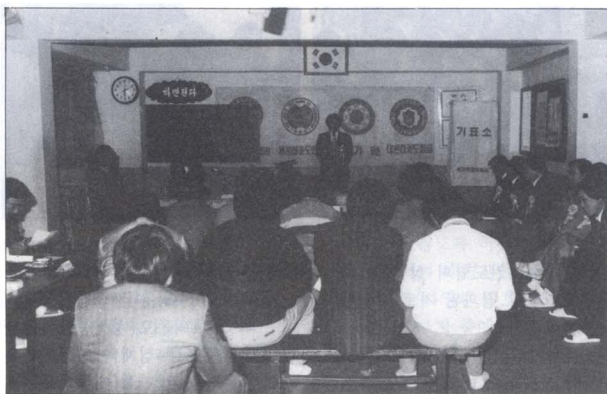
직은 아일랜드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태권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파가 나누어져있으나 앞으로 WTF협회의 결성이 이루어져야만 ITF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기술이나 정신지도에 통일을 기할 수 있고 태권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했다.

아일랜드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는 벅차다며 이번에 귀국한 정계동사범은 친구인 박경호사범을

초청해 함께 나가 아일랜드 태권도 발전에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또한 1월초 결혼하는 정계동사범은 부인도 함께 나갈 예정이라 든든한 후원자를 데리고 가는 셈이다.

그는 아일랜드에는 한국대사관이 2개월전에 설립돼 대사관저의 임직원에게서 태권도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대사관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지역대의원 직접선거로 선출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대의원 후보

서울시협회에서는 민주화시대에 적극대처하며 선진 태권도 사회정착과 다변화되고 있는 태권도인들의 욕구사항을 대폭 수용한다는 취지아래 금년말로 임기만료되는 지역대의원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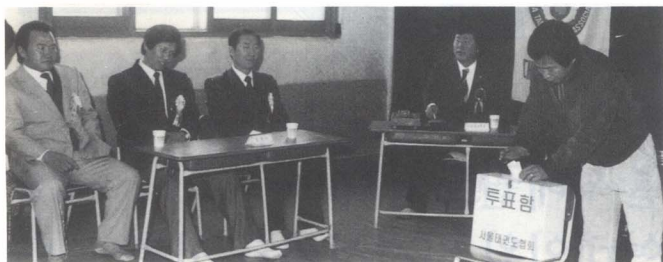
서울시협회 정관 제4장대의원 총회편을 보면 제18조(대의원선출방법) 1항, 각구관내 소재하는 본회등록단체중(수련도장)에서 6단이상 고단자로서 덕망이 있고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1인을 구체육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항, 각구관내 본회등록단체 중(수련도장)에

서 1인을 선출하여 구를 대표하여 대의원이 된다.(단 1항2항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에 의해 그동안 서울시협회에서는 제1항에 의거 위촉대의원을 구성했었는데 지난 11월 3일 제3차 전체이사회의결의에 의해 지역대의원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협회에서는 11월 8일 서울시내 각 체육관 사범앞으로 지역대의원 총선거를 공고하고 11월 18일까지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받았다.

입후보자의 자격은 등록단체 사범 중에서 6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와
입후보자들 (위)과
선거관리위원들
(아래왼쪽), 개표를
지켜보는 참관인들과
선관위원들 (아래
오른쪽) 모두 진지한
얼굴이다.



단이상 고단자이며 대한태권도협회 상발위원회
에 징계 해제된후 3년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했
다.

각구별 선거는 12월 1일, 2일, 5일, 6일 4일간
에 거쳐 22개구에서 실시되어 대의원 22명을 선
출했는데 경선을 통한 대의원 선출지역은 11개
지역이었고 단일후보로 무투표당선지구도 11개
지역이었다.

지역대의원 당선자

- ▲마포구-왕중윤(홍익체육관)
- ▲서대문구-김기용(성광체육관)
- ▲은평구-라동석(중산체육관)
- ▲성북구-한용석(화랑체육관)
- ▲동대문구-김진위(비룡체육관)
- ▲중랑구-전만옥(첼프체육관)
- ▲용산구-노달선(용일체육관)
- ▲양천구-서정복(대성체육관)
- ▲강서구-장기승(공향체육관)
- ▲강동구-윤선기(고덕체육관)

- ▲송파구-박용화(잠실중앙체육관)
- ▲종로구-박용국(한영체육관)
- ▲중구-최돈오(성동중앙체육관)
- ▲영등포구-심재익(영등포본관체육관)
- ▲동작구-전만식(대림체육관)
- ▲관악구-박찬수(무림체육관)
- ▲구로구-구정도(가리봉체육관)
- ▲강남구-조호철(청목체육관)
- ▲서초구-고동준(서초체육관)
- ▲성동구-오수관(고려체육관)
- ▲도봉구-정천수(삼양체육관)
- ▲노원구-김상하(동부상하체육관)

지역대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22명의 대
의원과 서울시협회에서 위촉하는 5명의 중앙대
의원 등 총 27명의 대의원임기는 89년도 1월1일
부터 92년 12월31일까지이며 대의원은 제4장대
의원총회 19조 기능에 명시된 대로 서울시협회
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1. 임원선출에 관한 사
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

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대의원 직접선거를 지켜본 서울시협회의 박노규국장은 협회 임원과 회원, 일선사범간에 무도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직관계를 벗어나 협의와 토론을 통한 수평관계로 전이됨을 실감할 수 있어 전 태권도 사범이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협회의 운영을 경기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일선도장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며 내년도 집행부업무에 대의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12월1일 서대문구 대의원선거에서는 이천수 사범(연희종합체육관), 노영일 사범(신촌체육관), 김기용사범(성광체육관)이 출마, 체육관의 시설풍충, 지도자의 자질향상면에 애쓸것과 무허가 도장난립방지, 체육관이전이나 명의이전시 대의원이 참가해 지역사회발전의 중심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견을 발표한 김기용사범이 당선되기도 했다.

같은날 오후 6시 고려체육관에서 거행된 은평구 대의원 선거에서는 김정대사범(신일체육관), 라동식사범(중산체육관)이 출마해 치열한 접전끝에 라동식사범이 당선되기도 했다.

라동식사범은 정견발표에서 그동안 위촉대의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이를 채찍질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직접선거가 관의식 파벌을 조장한데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사범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통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역구중 가장 많은 67개의 도장이 있는 성동구 대의원선거는 무투표로 오수곤사범(고려체육관)이 당선되었는데 오수곤사범은 성동구에는 태권도인연합회가 7년전에 구성되어 현재 2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84년도, 87년도 88년도 부회장을 맡아왔다고 하는데 이 연합회에서 의견일치로 후보로 자신을 추천해주자 다른 사범이 후보출마를 포기한 것 같아 쉽게 당선된 것 같다고 했다. 태권도인 연합회는 그동안 회장을 비태권도인 중에서 위촉해 현재 김용원 동아병원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도장의 사범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고 체육대회, 친목회, 사범강습회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앞으로 이를 모체로 태권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겠으며 연합회 임회가 사실상 회원의 동의없이 가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임회의 문이 좁았는데 이 문호를 개방, 많은 사범들이 연합회에 들어오도록 할 것이며 비회원이더라도 성동구 대의원으로서 전사범들의 의사를 받들어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다.

송파구에서 당선된 박용화사범(잠실중앙체육관)도 일선사범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우선 비등록도장으로부터 일선사범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견발표를 통해 태권도인의 친목과 단합을 강조했고 일선사범의 의사를 수렴해 집행부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땀것과 협회도장설치규정에 위배되는 도장을 정비하여 등록도장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하겠다, 차운행시 자기 구역외에 침입하여 수련생을 유치하는 것등도 단속하겠다는 등 다양한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후보자 중에는 현 집행부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야당성 투사형이 있기도 했다.

각 지역별로 누가 당선이 유력하겠다고 생각했던 후보가 참패하는가 하면 사오십대 선배가 30대초반의 후배에게 패하는 등 선거는 예상밖의 결과를 도출, 서울시에 새바람이 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선거방식이나 절차면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참관인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시에 사용했던 기표용기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절차와 형식면에서 완벽하게 치루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부후보들이 인신공격이나 물품공여 등을 하며 선거분위기를 흐려놓고 계보·파벌형성 등을 조장, 정치선거와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은 지양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

실업팀창단 울산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태권도 실업팀

현대자동차는 1973년도에 사내에 발족해 '83년도까지 지속되어오던 태권도클럽이 1983년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1987년 10월 60명의 회원으로 재발족, 회사의 적극적인 호응아래 사원복지책의 일환으로 110명의 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완공되면서 태권도클럽이 활성화되어 현재 280명의 사원이 가입해 수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태권도 전용체육관의 완공과 더불어 본사 판매본부장 김영관전무의 지원아래 서봉현부장을 서클의 회장으로 추대하고 김종관씨를 감독, 문상훈씨를 코치로 하는 태권도 지도체제를 구성하였고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및 전국가대표선수를 중심으로 실업팀을 창단, '8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태권도실업팀 창단멤버로는 플라이급 이창석, 밴텀급에 유명식, 페더급에 허현배, 웰터급에 한재구, 헤비급에 임재익 선수가 기용되었으며 미들급에 정용석선수와 헤비급에 김용수선수가 올해 말에 입단 예정으로 있다.

현대자동차실업팀은 직장체육으로서 자생된 태권도 클럽에

현대자동차 태권도실업팀 창단멤버는 전국가대표출신

“

오전에 근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수로서 뿐만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는
이상적인 실업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서 창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실업팀 소속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전념하여 현역은 은퇴후의 직장인으로서 적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신생 현대자동차팀은 오전에 선수들을 근무부서에 실무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선수로서 뿐만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는데 이상적인 실업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팀 선수부외의 일반 수련생들의 관리를 위하여 문상훈코치가 총무로 일하며 회원(수련생)중에서 4단 이상의 고단자 15명을 사범으로 위촉, 아침 8시~10시까지는 야간근무자를 위한 운동시간으로, 오후 6시~10시까지는 주간 근무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표를 짜놓고 체육관을 개방하여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공장의 25,000명의 인원예 비하면 380명이란 인원이 1.5%에 불과하나 서클로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태권도 수련은 사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회사에서도 좋은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노관호전무(공장관리담당)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돌보아 줌으로서 태권도 서클의 임원들은 물론 수련생 모두에게 활력소가 되어 여가시간의 선용측면과 레크레이션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증진과 건강생활을 위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 수

련을 시작후 회사내의 타부서와의 친목이 두터워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협동단결력이 공고해져서 부서간의 업무처리가 신속해 졌다고 태권도 수련후의 효과를 설명하는 문상훈 총무의 표정에서 이제 진정한 태권도 실업팀이 탄생되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선수단을 스카우트하여 회사의 P·R용으로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사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서클로서의 태권도 수련은 더욱 중요하며 이들 중에서 선수로서의 재질이 우수한 수련자가 자연스럽게 선수로 발탁되어 각종대회에 출전할 때 아마추어 스포츠의 정론이 형성되며 직장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위상이 확립되는 것으로 현대 태권도 팀의 형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노사가 어우러져 태권도의 함성 속에 발전하는 회사의 모습을 그려본다.*

현대자동차 태권도선수단 명단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감독	김 종 관		시설관리부 사원
코치	문 상 훈		시설관리부사원
플 라 이 급	이 창 석	63. 8. 23	'82 전국체육대회 1위 '85 전국체육대회 2위
밴 텀 급	유 명 식	67. 3. 3	제7, 8회 세계선수권 1위 '86월드컵대회 1위
페 더 급	허 현 배	66. 2. 21	'87국체군인대회 1위
웰 터 급	한 재 구	62. 12. 20	제6회 세계선수권 대회 1위 '86아시아게임 1위
헤 비 급	임 재 익	63. 4. 10	'86월드컵대회 1위
미 들 급	정 용 석	67. 2. 11	입단예정
헤 비 급	김 용 수	66. 10. 10	입단예정

태권도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11월26일,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태권도학회는 지난 해 11월 7일 태권도가 국제적인 스포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의 설정과 한국적 정신의 세계화를 겨냥한 태권도철학의 정립 및 태권도의 제반영역의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담당할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는데 1년 만에 한국스포츠 사상 단일종목으로는 첫번째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태권도학회 회원 및 태권도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26일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제1회 태권도 학술발표회는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가졌는데 태권도학회의 강원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권도를 통한 세계인의 한국화를 위해 태권도의 실기에 못지 않는 훌륭한 이론의 기반구축과 태권도 정신철학의 확립을 위해 마련된 학술발표회가 태권도 발전에 좋은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운용 IOC 위원 겸 대한태권도협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태권도는



과거 어느 때와는 달리 과학적 이론의 요구가 큰 시점에 있음을 강조하고 태권도의 종주국답게 과학적 이론과 심오한 철학, 그리고 합리적이고도 세계적인 지도방향이 당당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중하대한체육회회장은 「세계속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준 것은 바로 국기 태권도」였음을 강조하고 「태권도가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심판과 경기규정에 대한 과학화가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학술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명원 전대학 태권도연맹회장

(전 문교부장관)의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이어 계속된 태권도 학술발표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술발표 I : 12:00~12:20

진행 : 정락희(한국체육대학 교수)

주제 : 태권도 우수선수의 체력평가 기준치 설정

발표자 : 정찬모(단국대학교 교수)

중식 : 12:20~14:00

학술발표 II : 14:00~15:40

진행 : 강진홍(경상대학교 교수)

주제 : 태권도 수련실태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태권도뉴스

발표자: 김홍식(동신실업전문
대학 교수)

주제: 태권도 기본 발차기의
역학적 분석

발표자: 성낙준(스포츠 과학연
구소 연구원)

주제: 태권도 경기의 공격유형
에 따른 득점 변인과 실점 변인
분석

발표자: 정락희(한국체육대학
교수)

주제: 2000년대 태권도 발전방
향에 대한 모색

발표자: 김철(원광대학교 교수)

주제: 태권도 뒷차기에 있어
차기다리의 기계적 에너지 변
화

발표자: 배영상(계명대학교 교
수)

휴 식: 15:00~16:00

학술발표Ⅲ: 16:00~17:00

진행: 김광성(대한유도대학 교
수)

주제: 대학태권도 수업에 있어
서 ALT-PE System의 검증

발표자: 고병교(육군사관학교
교수)

주제: 태권도의 발차기 시간과
체중 및 하지장과의 상관에 관

한 연구

발표자: 조근종(한양대학교 교
수)

주제: 태권도 과학화의 선결과
제

발표자: 양진방(태권도지도자

연수원)

주제: 스포츠 마사지가 근지구
력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석련(대성중고등학
교)

인덕공고 태권도부 안용규 감독 대한유도대학 전임강사로 발령



인덕공업고등학교 체육교사
이며 태권도부 감독을 맡았던
안용규씨(32세)가 대한유도대
학에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아
체육원리와 태권도실기를 강의
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한국
체육대학과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상무태권도선수단
을 전역해 인덕공업고등학교에
서 체육교사로 재임해 왔다.

안용규씨는 현재 한국체육학
회·한국스포츠의학협회·한
국태권도학회 회원으로 그동안
「태권도 경기의 각 발차기 사
용빈도수와 득점력에 관한 조
사연구」, 「태권도 경기의 라운
드별 득점력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신체
발육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경기 승패판정에 관한연구」,
「태권도 경기의 뒷차기 기술이
승부에 미치는 영향」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제8기 태권도지도자2급 연수과정

146명 수료, 최종현·장용규·임재호씨 우등상 수상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태권도지도자 2급 연수과정을 실시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30분에 실시된 입교식은 150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우 태권도지도자 연수원장, 엄운규 대한태권도협회부회장, 홍중수 국기원 부원장, 체육부의 이양 수료자 명단

김상혁	양희재	문영길	성영권
김민식	이현만	배정국	강 옥
황 인	정대동	서영석	장윤정
서동민	박상용	차무정	문석주
박익수	전상천	김창곤	김영복
백운성	류종현	한용석	박주만
차경철	백철중	윤의식	이광순
양대석	김복현	김경주	김정록
반부근	강명이	권태진	김정기
이만희	김우섭	윤영복	서태만
홍봉기	이성현	이성주	최영태
김기만	송영철	성승제	손순호
박계희	최종현	오대영	임기철
김삼수	박창호	강인대	이동호
김원경	박기동	김정완	이명천
박경진	조규상	이경식	정재균
김정복	이재관	이광희	장지홍
이재욱	이창희	최창익	우종덕

원지도육성과장과 담당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경기지도자 2급연수과정 교육은 75명씩 2개반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교육내용은 영어, 국사, 국민윤리,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체육심리학, 체육사회학, 트레이닝원리, 체력측정 및 평가, 실기지도, 수기법, 스포츠맛사지, 스트레칭, 논문지도 등

으로 총 128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제8기 경기지도자 2급연수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은 총 146명으로 우등상은 최종현, 장용규, 임재호씨가 공로상은 김정기, 남광신, 김복현, 장용규씨가 받았으며 그밖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정호	김현준	우형승	김승준
최성균	장경수	박복태	허영길
문해용	최쌍형	오기주	장수영
장정열	김동근	남광신	유춘성
최강찬	김진홍	김성환	이정인
임영길	유병천	김화섭	김진택
송후섭	이혁수	김종진	서운열
지남영	황철규	김영식	이정돈
임종만	임재호	박상원	양희석
김진도	이준명	문원재	최원석

최규영	장용규	김형건	최재선
김선훈	최무흠	양일해	이직생
박대희	김순웅	정의택	한승룡
김성현	오성환	김선범	진명범
김현태	모영환	김지곤	이우일
고홍석	신은주	김동주	곽영호
이인순	고영철	바비·클레이튼	
오미근	송승복	이영기	이상재
최민호	장명수	신동환	

제58기 3급 경기지도자교육

161명 수료, 이종삼·이우식·최선길씨 우등상 수상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경기지도자 3급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10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입교식에서는 강원식 태권도지도자연수원 부원장의 체육인현장낭독에 이어 김운용 국가원장을 대신해 홍종수 부원장은 개식사를 통해 「올해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새역합격자 명단

김명기 김영록 홍종석 강인대
김희중 정일홍 권철진 전상천
김형우 김형환 성승제 박경원
김창곤 이정재 박득근 이우영
바비클레이톤 신하철 이대일
정원석 여태성 이원재 최선길
김하연 이정현 김동환 최광근
박기동 이경식 김주홍 김영기
김기태 윤광준 황보배 한상수
김기만 심우성 조오훈 우종덕
김창호 이인순 염주철 박태선
김지일 장수영 김지곤 배정일
정광복 박종철 강동희 김홍길
전용담 이우식 이종삼 두은균
이재우 김선대 박재성 박민원
김성삼 강사민 박수만 김성환
장백규 송민용 김영현 최원석

사를 창조한 뜻깊은 해로서 이를 발판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태권도를 위해 전 태권도인이 단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태권도인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종우 태권도지도자연수원장은 「교육에 참가한 전원이 지적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같은 길을 걷는 태권도인으로서

김진표 김태연 정주호 정재판
김경래 고영중 박대희 박익수
최창익 문해용 안효열 박용희
배정국 김덕년 유효성 송형국
노천식 유정근 정의택 박창호
심재우 김범선 고영철 장재희
정성남 박문일 심진섭 최원석
김원경 김순웅 김경운 이직생
김동일 강명국 김진택 김진봉
김숙자 박종혁 김동주 정대동
오미근 황세령 정연우 윤의식
김화섭 변용선 김성곤 김경남
고재덕 김용기 손상무 김우섭
이주열 배덕환 박수인 문양배
오세웅 김경수 이정연 민충기
서영석 장경수 정희윤 김장환
문명곤 문병영 최돈영 김영수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길 당부하였고 「1년 계획은 곡식을 심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으며, 100년계획은 사람교육을 잘하여야 된다」며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도 했다.

총 172명이 수강한 제58기 지도자교육 수료식에서는 161명이 수료하였다.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등상

이종삼 · 이우식 · 최선길

▲표창장

두은균 (학생장)

김진택 (학생장)

배정국 (총무)

고영철 (총무)

김숙자 (모범상)

구봉조 정영식 최찬덕 허경수
이현재 박영석 공교환 문병권
서성영 금동욱 박희석 이인철
황창환 김재민 박만호 김종표
김상만 류종현 최병호 이주호
이현만 문원재 위성영
이송우 이성수 황승하

(총 161명)

태권도학과 89년2월 졸업생 지도자 자격시험 실시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89년도 2월졸업 예정자의 지도자(3급 과정) 자격시험 신청자(유도대 69명, 경희대 14명 총 83명)에

지도자 자격시험신청자

안원재 박홍수 이승택 박유희
김형구 심장수 이영희 김현수
박필원 유시종 김기현 김대휘
김봉희 신희덕 한민주 시강근
이민권 최병조 박병철 안희정
박현철 양우석 이창성 김진호
한경희 김태환 남준모 박남희

게 지난 12월 12일 오전 10시
실기와 이론 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들 태권도학과 졸업자들에
게 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

조성철 김영주 류병관 김현일
최영호 이홍우 김윤수 박희수
강성준 김대식 이청원 황인찬
최병조 박은석 나양환 정재호
박용구 김유정 정순자 홍승택
천주녕 연태희 오부환 강석재
정찬일 정경희 정영원 류종선

시키지 않고 시험을 치루는 것
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시험
결과가 주목된다.

지도자 자격시험을 치루게될
명단은 같다.

윤운룡 이광원 김홍필 양일중
엄영구 최윤종 고승현 이송학
윤두중 전종대 김문성 김경신
황인재 신동철 이인자 최기종
양일동 박경찬 석원욱 주봉진
정복인 정승기 정용원 김용무
유병철 유병재 이창돈

88서울올림픽 태권도 헤비급 국가대표 김종석, 전북 상산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발령



실업팀인 서울지하철공사 태
권도부선수로서 '88올림픽에
헤비급으로 출전, 은메달을 차
지한 바 있는 국가대표 김종석
선수가 전북 상산고등학교 체
육교사로 부임하여 지도자로서
의 길을 걷게 되었다.

김종석교사는 1980년도에 제
61회전국체육대회에서 라이트

미들급 1위를 차지한 것을 시
작으로 '88올림픽 국가대표선
수로 선발되는 등 수많은 대회
에서 입상하면서 한국의 헤비
급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굳건
히 지켜온 바 있다.

김종석교사는 원광대 체육교
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3단인
다.

“대학태권도의 진수를 보이겠다”

대한유도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

한국에서 최초로 1981년도에 태권도학과를 개설해 그동안 유능한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해온 대한유도학교 태권도학과에서 1982년도에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한 이래 7년째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규석태권도학과장의 지도 아래 18명의 인원으로 창단된 태권도 시범단은 현재 4학년 9명, 3학년의 7명, 2학년 8명, 1학년 16명으로 구성되어 진중의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 태권도인을 대표한 시범단으로 그 면모를 다지고 있다.

태권도 시범단 선발은 1학년에 입학할 때 태권도 시범단이 되고자 원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일정한 체력검사와 개인특기 및 난이도의 평가를 통해 15명을 선발하여 전공실기 시간을 통하여 체력육성과 기술지도 및 강인한 정신력을 증강시키며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시범기술의 1인1기술을 완전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태권도 시범단은 그동안 각종 대회시에 국기원 시범을 비롯해 각 대학 축제, 민간사회단



체, 국영기업체, 국내의 인사 초청시범 등에서 179회의 시범을 보인 바 있고 창단 때부터 매년 대학로에서 유도학교 태권도학과 태권도 시범 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태권도시범단은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및 특기기술과 묘기 등의 시범을 통하여 태권도의 실재행위와 능력을 실험해 보이는 한편 힘과 기술의 극치를 짧은 시간내에 보여주면서 태권도를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시범은 일반 관중으로 하여금 태권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태권도의 신

기와 흥미를 통해 태권도 수련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아내게 하는 동기유발을 가져옴으로써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태권도학과 시범단을 지도하고 있는 진중의 지도교수는 「태권도시범단은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성인으로서 무도 정신을 통해 개인의 인격완성을 도모하며 한국의 태권도 진수를 보여주는 시범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태권도 기술발휘와 정신력함양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함 성



글 · 김 전 중

그림 · 고 우 영

도사범은 정리하던 서류를 책상 옆으로 밀쳐 놓고 입김으로 손을 녹이면서 난로가로 다가왔다. 사실 말이지 요즈막 날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난로 앞에 앉아 있어도 등짝이 시릴 정도였다. 엇그제 내린 함박눈이 녹기도 전에 얼어붙어 아스팔트는 온통 빙판이었다. 그 위로 겨울의 매운 바람이 휘릭휘릭 바람자락을 날리며 지나칠 때마다 앙상한 가로수에 걸린 눈송이들이 낙엽처럼 휘돌며 떨어지는 그런 풍경은 사람들을 옥죄이듯 더욱 움추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쌀쌀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 끝머리에 너스레를 달았는데 시간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존칭을 붙일 수 있는 건지, 도사범은 순간적으로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그와 때를 같이해 털모자를 쓰고 사무실로 들어

서던 정영감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웃는 줄 알고 모자를 벗으며 대뜸 말문을 열었다.

「왜? 내 꼴이 우스워?」

「아, 아닙니다.」

도사범이 자리를 권하면서 한손을 저으며 말했다.

「으앗파, 날씨가 원체 춥기도 하지만 늙어서 그란지 몰라도 뺨골로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것 같애. 거 오늘이 몇도라구?」

「영하 이십이도래요.」

「아휴, 거 말만 들어도 춥다구.」

어느새 도사범은 난로 위에서 뚜껑이 들먹거리고 있는 주전자 물을 따라 커피를 타고 있었다.

「따끈한 커피 한잔 드세요.」

도사범이 권한 커피를 홀서력거리며 마시던 정영감이 갑자기 남은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

려 놓으며 정색을 하고 말문을 열었다.

「도사범, 거 분해서 살 수가 있겠어?」

난로열 때문인지 얼었던 몸이 풀려선지 몰라도 아롱든 발강게 상기된 얼굴을 쩡그리며 정영감이 알 수 없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젠 내가 태권도인이라 하는 소리가 아녀. 글썄,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뭐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연금인가 뭔가를 딱따딱딱 받게 됐다는 거야. 우리 태권도 선수도 뭐야?」

「아하, 그러요 태권도 선수도 받는 사람 있어요.」

「글썄 받아도 그 사람들하곤 다르게 취급해서 받는다던데 그래.」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종목이라서 규정상 그런게 있어요.」

「내 아주 기분 나뻘어. 웬고하니 그때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금메달을 좀 많이 땄어, 원 그래도 다른 경기에서 금메달 하나만큼도 대우를 안하는 것 같아 영 기분이 나뻘고 그 비중도 시원찮은 것 같더라고... 젠장 시범종목이고 정식종목이고 간에 내가 무지랭이라 잘 모르지만 헛튼, 금메달은 금메달이 아니란 말야.」

숨을 헉헉 몰아쉬며 흥분된 음성으로 말하는 정영감의 심정을 도사범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같은 감정의 물결로 출렁거릴 수는 없었다.

「영감님, 그러나 우린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가 비록 시범종목이긴 했지만 세계인의 스포츠로 인정받아 올림픽에서 경기를 치룰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머지않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겠지만... 어쨌건 오늘이 있기까지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야 그랬겠지만, 기왕지사 할 바에야 정식종목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저희 맘대로 되는 문젠िका.」

「맞아, 그 뭐드라 쌀가마니가 뭔가하는 그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고개를 가우뚱 꺾으며 정영감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예? 하하하... 쌀가마니가 아니구요 사마란치예요.」

「글썄 뒀었거나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원 영감님도... 사마란치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쌀가마니 혼자서 안된다구?」

「쌀가마니가 아니라 사마란치라니까요 하하하...」

호탕한 도사범의 우렁찬 웃음소리는 지나온 세월 속으로 빠르게 메아리쳐 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사슬에서 풀리면서 일반에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태권도는 사실 우리 역사와 더불어 맥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아득한 옛날, 삼국시대인 고구려에는 무(武)를 숭상하여 건국 초기부터 지금의 태권도라고 할 수 있는 선배라는 무술이 행하여 졌고, 신라는 진흥왕 때 화랑도가 필수적으로 택견을 수련했는데 이 화랑도 무술정신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지주가 되기도 했다. 그후 왕건이 고려를 건설하고 택견을 체계화하여 수박(手搏)이라 명명하여 그 맥을 이어갔는데 그것은 손을 널리 쓰는 무술이라하여 그리했던 것이었다. 또한 수박은 이조 때에도 성행하여 수박을 잘하는 사람을 무과에 등용시키기도 했는데 정조14년 이덕무와 박제가는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고 그것은 현재의 태권도에서 볼 수 있는 품새와 동작수련 방법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적혀 있는 무예교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데(空手道)와 유사한데다 우리민족이 태권도로 무장된다는 건

무서운 힘이 배양된다고 믿기에 아무래도 식민지 정책으로는 아주 불리하니까 우리의 태권도를 말살하려 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무덕관의 황기, 청도관의 이원국, 조선연무관의 전상섭, 송무관의 노병직, 창무관의 윤병인 등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사설도장을 개설하여 우리의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헌신 노력했던 것이었다.

그후 1960년대 초 태권도협회가 창설되어 세계에 선포되면서 빠르고 무서운 힘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즈막에 초창기 고단자 가운데 한사람인, 아주 아물딱지고 무도정신이 빠빠한 사람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한문호사범의 도장에 도사범은 입관하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 도사범은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찬 열서너살 먹은 소년이었다. 그 시절의 풋풋한 삽화들은 중년에 접어든 도사범의 가슴 속에 농밀한 앙금으로 남아 가끔씩 향수처럼 그리움을 더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무도정신으로 가득찬 스승 한문호 보다는 뜨거운 인간애를 간직한 한문호를 존경하는 애뜻함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그 근원이야 어땠건 도사범은 늘상 그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끈끈한 연결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도광육 사범 자신의 자존이었고 긍지였다. 이를테면 자신은 민족역사와 함께 자란 태권도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기도 했다.

「커피 식어, 뭘 그리 생각해?」

잠시 지난 세월과 태권도의 맥을 집느라 도사범이 쫓점 흐린 눈동자로 침묵을 지키자 정영감이 걸망스러운 음성으로 그 침묵을 갈랐다.

「도사범, 난방시설을 더하던가 해야지 애들 운동하기 춥잖어?」

정영감이 앉은 채로 몸을 추스리며 말하자

「아닙니다. 난방시설을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가 아니라 정신이 문젠니다. 지금 저희 체육관은 옛날에 비하면 호텝입니다.」

도사범은 단호하게 답변하며 이어 자신이 수련하던 시절로 헤엄치듯 미끄러져 들어갔다. 헛간인지 창고인지 구분하기 힘든 30여평 되는 건물인데 수수깡을 넣고 황토흙으로 싸바른 벽, 그것도 낡아 빠져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갈색회푸대 종이로 때워 바람을 막을 정도였으니 겨울이면 매물찬 바람은 현관문을 후려쳐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냈고 찬바람은 사방에서 술술 들어와 냉기로 가득차 그 썰렁함에 온몸이 으시시 떨리고 발끝은 얼어붙듯 시리기만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춥다는 표현이나 그 핑계로 수련을 게을리하는 관원은 아무도 없었다. 수련이 끝날 즈음엔 온몸에 김이 무럭무럭 나고 땀으로 후줄근히 젖어 있는 것이었다. 그 뿐인가 몸이 완전히 풀리기 전엔 으레 그렇듯 빠빠한 상태인데 그 연살이 방어를 잘못해 한대 얻어 맞을 양이면 참으로 눈물이 쭉빠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저런 시련을 극복해야만이 검은띠를 두르게 되는데 그것은 애오라지 수련자 누구나가 갖는 바램이고 최고의 가치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참! 그뻘 힘들었습니다.」

반쯤 감은 눈을 뜨며 도사범이 술회하듯 말했다.

「아, 그렇담 팬스레 내가 주책을 부렸구먼. 그럼 나도 검은띠 따려면 더 고생해야겠구먼.」

정영감은 멀썩한 기분으로 도사범의 말을 받았지만 내심으론 그 시절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영감님, 저희 스승이신 한문호사범님 얘기 좀 해볼까요?」

「그야 우리 도사범을 보면 훌륭한 사범님이었겠지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태권도계에 길이 남겨야 될 미담입니다.」

도사범은 차분히 한문호사범의 이야기를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술술 풀기 시작했다.



막상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한문호 사범의 지시대로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뛰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흡사, 양쪽 발을 묶어 놓고 뿔박질을 하듯 답답하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결국 그날의 3회전 게임은 무득점으로 싱거운 무승부로 끝나 종당에는 심지뽑기로 판가름이 났지만 결코 후회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후부터 도사범은 승부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뜨거운 인간애를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몇몇한 승부가 주는 의미를 실로 터득하게 되었다.

그때는 태권도가 국제경기는 없었고 중앙관 장기쟁탈이나 대통령기 쟁탈, 전국체전 등의 전국규모대회가 있을 뿐이었는데 도사범이 대통령기쟁탈에 체급없이 5명으로 구성된 단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2:2라는 동점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관중의 열광으로 상당히 고조되었고 선수들도 흥분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1회전 2회전을 동점으로 만든 도사범의 가슴은 조급함에 설레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 3회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더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2회전을 끝내는 호르라기 소리와 함께 코치석으로 돌아온 도사범은 승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상대선수는 오른쪽 발을 다쳤는지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름대며 코치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됐다! 저 발을 차면 된다.)

도사범이 쾌재를 부르며 작심하고 있는데 한

문호 사범은 엉뚱한 코치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도사범의 작심에 뼈기를 박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다.

「도광육! 상대선수는 오른 발을 다쳐어. 자세히는 몰라도 정강이 뼈에 금이 갔던가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너는 땀땀하게 이야기 한다. 절대로 오른쪽 발을 공격해서는 안되고 또한 너도 오른발을 쓰면 안된다. 알았나?」

한문호 사범의 지시는 엄숙하고 진지했다. 그 음성은 이때껏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문호의 음성이었고 거대한 누지름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네, 알았습니다.」

3회전을 알리는 호르라기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며 도사범은 3회전 게임을 치루기 위해 자리를 떴다. 막상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한문호 사범의 지시대로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뛰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흡사, 양쪽 발을 묶어놓고 뽕박질을 하듯 답답하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결국 그날의 3회전 게임은 무득점으로 싱거운 무승부로 끝나 종당에는 심지뽕기로 판가름이 났지만 결코, 후회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후부터 도사범은 승부 이전에 인간이여야 한다는 뜨거운 인간애를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땀땀한 승부가 주는 의미를 실로 터득하게 되었다. 땀땀한 승부! 그것은 커다란 함성소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수 있고 가슴에서 살아 숨쉴 수 있다고 깨닫게 된 것이었다.

「한문호 사범은 대단한 스승이었던 그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잠자코 듣고 있던 정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했다.

「물론입니다. 대단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보다는 훌륭한 태권도 선인(先人)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겁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서 후진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하는 것도 실은 그 분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분의 가

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태권도 사범 생활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뭘 수 있는 한 절대로 도복을 벗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한문호 사범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 우리민족의 혼과 맥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믿기에, 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라, 뭐가 우리 도사범은 다른 구석이 있겠거든…」

「과관의 말씀입니다.」

「아나 아나, 내 늙어도 실없는 소린 않는다구. 도사범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같은 늙은이도 태권도를 배운거.」

「아까 영감님 말씀에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금메달을 땄데도 대우가 시원찮다느니 뭐니 하셨는데 그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승리의 태극기가 오르는 순간, 그 감격에 눈물이 났읍니다.」

그건 사실이였다. 태극기가 하늘로 오르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도사범은 우선 한문호사범의 근엄하고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철학처럼 여기던 말씀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태권도는 행동철학이다. 인간에게 가장 싸우기 힘든 상대는 자신인데 그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태권도 수련에서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진실한 수련을 했을 때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정확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여름 어느날이었다. 땀에 흠뻑 젖은 도복을 비틀어 짜서 툭툭 털어 입은 도사범을 향해

「광육아! 넌 기필코 태권도를 중단하지 마라. 태권도 정신을 네 인생의 지표로 하면 반드시 영광된 날이 올 것이며 풍요로운 인생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능력보다는 진실이 문제겠지…」

말끝을 흐리며 스적스적 사무실로 들어가던

한문호사범의 모습이, 하늘로 오르는 태극기에 선명히 재생되기도 했다.

(스승님은 우리 태권도에 이런 영광된 날이 돌아올 것을 예견했던 말인가?)

도사범은 승리의 감격과 한문호 사범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수습하기 힘든 감정에 소리없이 흐느끼고 말았다. 하지만 그 흐느낌은 머지않아 열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태극기를 올려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래, 그 한문호 사범은 지금 어디 계신가?」

감명과 호기심이 엉킨 눈망울을 굴리며 정영감이 물어왔다.

「...모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약간은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도사범은 정영감에게 담배한대를 권하며 성냥불을 그어댔다.

「모르다니?」

「한마디로 말해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건 왜?」

「긴 말씀은 못드리고 속세를 떠났다고 할까,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허탈하게 말하는 도사범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뜻인지 정영감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애꿎은 담배만 길게 빨아댔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리며 유치부 개구장이 동원이가 끼적끼적 흐느껴 울며 들어왔다.

「사범님, 제가 떼기장 써요.」

제법 분하다는 투로 도사범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편 갈라서 땀샘을 하는데 손으로 밀어 이겨요.」

아직도 울음꼬리를 자르지 못하고 울먹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는 동원이의 모습이 귀엽기만 했는지 도사범은 동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

며 달래었다.

「아니, 어떤 녀석이 비겁하게 땀샘을 해? 이녀석아, 고추 달린 놈이 그간 일을 가지고 울긴 왜 울어?」

정영감이 짐짓 호령하듯 동원이를 꾸짖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수련장으로 나갔다.

「야 이녀석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홀룩한 도사범이 있는 체육관이야. 여기서 그런 비겁한 행동은 용서치 않아.」

정영감의 격센 음성이 수련장에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 하던 분위기가 찬물은 끼얹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봉고차로 등원하는 유치부 아동들이 떼지어 들어왔고 사무실에 있던 도사범이 동원이를 데리고 수련장을 나왔다. 해맑고 싱그러운 재잘거림이 수련장을 가득 메꾸웠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천진스러운 유치부 아동들의 장난은 모처럼 엄숙하려 했던 정영감의 표정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꿈나물니다.」

도사범은 조용히 정영감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말없이 창가로 시선을 던졌다. 창밖의 전신주에 걸린 조그만 가오리연이 바람결에 찢기우며 제멋대로 퍼뜩거리고 있었다.

「영감님, 여기 꿈나물들이 태권도의 주역이 될 때는 저도 할아버지 연세가 되겠지요?」

어린시절 가오리연 방패연을 뚝방에서 날리던 기억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중년에 접어든 자신이 갑자기 세월을 한꺼번에 먹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도사범은 뚝뚝자같은 질문을 정영감에게 던진 채, 잣빛으로 차갑게 가라앉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와 하늘이 맞닿는 지점에 시선을 꽂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먼후일 반드시 태권도가 온세계 사람의 사랑 속에서 각광을 받으며 우리 민족의 드넓은 혼을 심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다. *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시리즈(Ⅱ)

— 아동체육편 —

건축에 있어서 기반공사의 중요성은 더 말할나위 없이 상식화된 사실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것들은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인 발달에 긴요한 충분하고도 올바른 신체활동이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대적 환경의 특성이나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동기 어린이들의 신체적, 발달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의 유아체육편에 이어 아동체육편을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발간한 「아동체육」(김기웅·이화여대교수)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1. 아동은 어떠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현대교육의 중요한 관점은 어린이로 하여금 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 발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적절한 신체활동과 운동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골격성장에 대한 서투른 지식으로 매일 강력한 연습을 시키는 것이 뼈조직의 정상적 발달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신체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알맞은 운동시간이나

운동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1) 아동의 골격계

골격의 기능은 뇌, 척수나 내장기관 등과 같은 연조직을 보호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뼈는 신체의 체중을 지지하고 골격근을 부착시켜 준다. 국민학교 어린이의 뼈는 길이나 넓이, 구성 등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상완골이나 대퇴골같이 긴 뼈는 뼈의 중심부와 골단에 생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뼈의 성숙은 생장점이 점차 연골로 바뀌게 됨에 따라 완전해진다. 어린이의 뼈구조는 부드럽고 유연하여 상처나 충격에서 회복이 빠

“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주요한 근육의 명칭과 위치 등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운동을 설정하고
운동패턴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기 어린이의 골격근은
크기나 힘에 있어 빠른 변화의 상태에
있게 된다.

”

르다. 그러나 너무 심한 타격이나 모든 관절에
과도한 중량을 건디는 일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의 뼈는 5세에서부터 11세까지 꾸준히
성장을 한다. 이 시기 어린이의 뼈조직은 약하
고 유연하다. 어린이가 11세 내지 12세에 도달
하면 뼈의 성장은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정상
적인 뼈의 성장을 위한 운동은 이러한 신체형성
시기 동안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충분
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즉 우리가 활동을 하면
뼈는 잘 광화(鑲化)되고 뼈의 근육이 강해진다
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으면 뼈
의 탈석회질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광화작용
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욱 약해져 부서지기 쉬우
므로 골절이나 상해를 받기 쉽다.

뼈에 근육이 어떻게 접합이 되는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른 자세 유지와 뼈와 관절사이
의 관계, 어린이의 신체활동에서의 근육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된다.

2) 아동의 근육

신체는 세가지 형태의 근육으로 형성된다. 불
수의 근이나 민무늬 근은 뇌의 직접적인 조정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내부
기관의 근육을 형성한다. 심장과 같은 내장기관
의 근육은 뇌에 의하여 수의적으로 조정되는 것
이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

다. 수의근이나 골격근은 뼈에 부착되어 있고
뇌의 직접적인 조정을 받는다. 이러한 후자의
근육형태는 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
육이다. 골격의 구조는 섬유조직을 둘러싸고 있
는 섬유근의 다발로 되어 있다. 근육의 끝부분
은 수축되지 않는 섬유근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부분은 뼈나 인대에 부착되어 있다. 신경
자극이 근육에 전달되면 근섬유가 수축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며 두꺼워지게 된다.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주요한 근육의
명칭과 위치 등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어린
이들을 위한 적절한 운동을 설정하고 운동패턴
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기
어린이의 골격근은 크기나 힘에 있어 빠른 변화
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근육조직의 최초의 성장은
5세 내지 6세에 일어난다. 따라서 이시기에 있
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잠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
고 침착하지 못한 것이 때문이다. 신체의 다
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근육조직은 그 잠재
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신체발달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5세
와 12세 사이에는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다
소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근육기관의
유전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에서 비롯된다. 즉 남아들은 격렬한 신체활동에
대한 권장을 받는 반면 여아들은 신체적인 활동
을 덜 요구하는 운동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명백히 지난 10년간 사회
적이며 문화적인 변화에 의하여 좁혀지고 있다.

현대에서의 경향은 남녀 성차를 무시한채 공
통적으로 동등한 시간동안 스포츠나 신체활동
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현대적 체육프로그
램에서는 이 시기에 과거에 나타났던 신장이나
전반적 신체적용의 명백한 차이는 실제로 사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아동이 사춘기에 도달
하면 소년들은 근육근의 길이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고, 소녀들은 생리적인 변화를 보
이면서 근육근의 발달보다는 지방조직의 발달
이 현저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간 구체적인 변
화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남녀의 현격한 차이
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3) 아동의 심장호흡계

심장이나 폐는 국민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뼈와 근육의 성장과 거의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맥박과 호흡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1학년울 지나면서 낮아지기 시작해서 9세가 되면 맥박율은 1분에 90회정도가 된다. 호흡율은 대략 1분에 20회 정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쉽게 피로해지며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 12세가 되면 맥박율은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1분에 80내지 90회이고 호흡율은 1분에 15내지 20회가 된다. 9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은 여아들의 경우 맥박에 있어 피로가 더 빨리 오기는 하나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부터 12세 사이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장의 구조적 변화는 남아와 여아가 대략 동등하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뼈나 근육 그림의 조직에 대한 정상적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발달은 각 아동의 시기와 성숙도에 알맞는 활발한 신체활동을 매일하는 나 안하느냐에 달려있다.

2. 아동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아동기 어린이의 운동발달은 기본 운동기능, 일반 운동기능, 전문화된 운동수행의 세단계에 걸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아성, 주의집중기간, 동기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변화와 동료집단과 관계되는 사회적 변화는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1) 아동의 운동발달

4, 5세 정도의 아동들은 많은 양의 기본적인 운동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서기, 균형잡기, 움직이기, 그의 주변활동에서 접하게 되는 사물을 조작하는 등의 단순기능을 배우게 된다. 비록 아동들의 뛰기, 오르기, 돌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언제 배우게 되는지는 다양하지만 모든 아동은 운동능력에 대한 잠재적 수준에 따라 거치게 되는 공통적인 발달단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운동기능발달의 단계는 세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 단계는 2 세부터 6세까지이고, 두번째 단계는 7세부터 9세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운동기능에서 일반적운동기능으로 그 기능이 좀 더 통합되며 세련되게 된다. 세번째 단계는 그 전 단계의 연장이다. 아동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흥미는 개인경기나 팀 스포츠, 무용 등의 좀 더 전문화된 기능을 요구하는 단계로 형식적이며 정형성을 띤 운동으로 발전된다.

모든 운동기능은 뇌의 조절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능들은 아동 자신의 심리운동적인 면의 성숙도나 배우는데 있어 자신의 고유한 형태로 학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아동에게 각기 위로 던지는 운동을 실시하게 했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동작이 더욱 세련되고 이상적인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각 학년 단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중요한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는 신체활동의 선택이나 이러한 활동을 가르치는 방법 또는 어린이의 학습기대 정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저학년 프로그램은 첫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기능 즉, 걷기, 달리기, 뛰기, 오르기 등의 움직임에서 파생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기본운동을 하면서 균형잡기, 이동하기, 공이나 다른 작은 기구를 다루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적인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두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아동들은 전문화된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기능들을 습득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으며 몰두하게 된다. 또한 좀 더 조직화되고 도전적인 게임에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 교사는 그들의 운동수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도전적 게임이나 무용 등과 같이 단순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탐구심과 창조적 표현의 기회

“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운동발달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특성 또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

”

를 제공해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경쟁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협동적인 신체활동을 즐긴다.

세번째 발달단계의 경우 바로 그 전단계의 연속이다. 물론 아동들은 모두 운동수행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몰두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소녀들의 생리적 성숙도의 차이는 몇몇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운동의 흥미와 선호도를 나타냄으로써 몇 가지의 문제가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개별화된 교수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2)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운동발달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특성 또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 다음은 5세부터 8세까지와 9세부터 12세까지의 두가지 단계에 있어 좀 더 일반화된 인간적, 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또한 신체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저학년 아동(5세부터 8세까지)

5세부터 8세까지의 시기는 분쟁의 시기와 불려도 좋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아직도 매우 개인적이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독립적이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분담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기피하려 하기도 한다.

7세가 되면 어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8세가 되면 “패거리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단계로 올라선다. 이것은 집단 게임이나 팀정신, 팀의 명예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비록 조직화된 게임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을 지라도 아동들은 인간적 성취감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성취감은 증가된 주의집중력과 전문적 기능을 연습하고자 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아동들은 아직은 매우 동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또한 그들은 리드미컬한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표현적인 동작하기를 좋아하며, 이 시기에는 비평에 대해 민감하며 쉽게 흥분한다. 그러나 그들을 인정해 준다든가 친근하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2) 고학년 아동(9세부터 12세까지)

신체 성숙도는 9세부터 12세 사이 어린이들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는 소년 소녀모두의 흥미나 행동에서 변화와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록 각기 다른 이유 때문이기는 하나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의 신체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

소년들은 의복 상태가 항상 단정치 못한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적응성이나 기능 개발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격렬한 경쟁적 스포츠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그들의 동료들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며 어른들에게 만만한 자신감을 보인다. 특히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한 영웅심리는 예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화된 현상이다. 요즘들어 더욱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은 모든종류의 활발한 신체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는 여아들의 태도 변화이다. 점차 많은 여아들이 조직화된 교내경기는 물론 대외경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동의 시기를 구별하는 분명한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을 담당한 교사들은 어린이 등의 심리적 특성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고학년의 어린이들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지켜져야 하는 몇가지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3) 아동의 특성과 요구

어린이들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뿐 아니라 신체활동의 선택도 그들의 발달특성과 요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비록 개인적인 다양한 때문에 실제로는 성장의 여러단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학년이나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특성과 요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체육 프로그램에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1) 신체적으로 재능있는 아이

체육분야의 학자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분석과 수행의 관점에 의해서 현대적 해석을 명백히 내릴 수 있다. 스포츠나 무용이나 체조에 있어서 그 고유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 경기나 팀 경기에 있어서 재능있는 아동은 학교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학교 대표선수나 공공단체의 회원이 된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또한 국민학교교육프로그램 즉 교수 프로그램이나 과외 프로그램에서 인정받는다. 만약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우수아동은 현재 국민학교 프로그램의 교육적 철학이나 원리에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신체적 재능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유의한다.

ㄱ. 체육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를 공정하게 고려하고 강조하여 제공해야 한다.

ㄴ. 능력있는 아동은 학급의 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등의 많은 일을 수행케 해야 한다.

ㄷ. 더욱 높은 성취기준이 능력있는 아동을 위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ㄹ. 능력있는 아동을 학교나 공공단체의 전문적 클럽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고 흥미를 확대시키도록 격려해야 한다.

ㅁ. 스포츠나 무용, 체조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육 프로그램 작성에 관여해야 한다. 전문가란 그의 특별한 재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인정받은 실력자를 말한다.

(2) 신체장애아동

정상적이며 건강한 아동은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에 대하여 자유로운 어린이라 정의할 수 있다.

현대의 교육철학과 원리는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설정된 근본원리를 고수한다. 그러므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언제 실행할 수 있든지간에 체육 프로그램은 신체장애아를 위해 바람직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의 고려사항에 어느정도 기반을 두어야 한다.

ㄱ. 연습의 형태는 자격있는 의학분야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한다.

ㄴ. 활동의 종류는 어린이의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ㄷ. 교육전문가는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ㄹ.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즉각적인 성공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짜여야 한다.

ㅁ. 언제 실행하든지 장애의 정도를 다른 동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ㅂ.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의 오락적 가치를 지닌 활동이어야 한다.

3.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

체육에는 많은 교육활동이 종합되어 있다. 즉 건강, 교육, 레크리에이션, 가외교육(家外教育), 신체치료요법과 경기들은 기여도가 높은 활동들이다. 인간발달을 위하여 그러한 활동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은 매우 의미있으며, 이같은 여러가지 교수활동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은 단지 그러한 기반에 의해서 판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만일 각 분야가 적절히 제공되고 한 개인이나 그룹의 바람직한 성취를 진지하게 바라면서 참여한다면 성취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요소에는 많은 하위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분류하기 위해 중점적인 특성을 가진 이음, 인간신체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 건강한 사회인, 민주적 리더십과 동료의식, 자아적응 등이 성취해야 할 생활체육의 목표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체육활동이 결정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1) 개인건강

체육활동을 통하여 개인건강의 잠재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체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 건강이란 목적을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부수적인 결과이다.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신체기관 전반에 걸쳐 생활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인 협응력을 갖추게 된다.

좋은 건강의 기반은 생물학적 기관으로서의 신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매일의 건강관리에 반영되는 기관에 대한 지식과 이해정도에 의해 영향받는다. 건강은 또한 사회적, 정서적 기반을 갖는데 그것은 인간의 요구와 훈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잠재력으로 형성된다.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건강의 결정요인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건강발달에 기여하는 힘이나 조건 모두를 확실히 제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 요인은 신체활동으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으로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많은 교육적, 환경적 경험들과 여러가지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가정과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학교, 사회조직체, 교회, 교사, 체육코치, 체육교사, 간호원 그 밖의 다른 것들로부터 유래된다.

여기서는 건강에 관계되는 요인, 건강을 위한 환경과 제어, 시기에 따른 신체적 요구, 건강을 위한 의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신체건강요인

건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함으로써 건강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생활체육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건강이란 기관조절을 말한다. 그것은 절대적

이면서도 상대적이다. 또한 그것은 모든 구조와 기능을 포함한다. 즉 신체로부터 기인하는 정서, 사회관계(본질, 종류, 효과) 그리고 지능(자신을 안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건강요인은 다음의 다섯가지 주요범주로 분류된다.

ㄱ. 질병과 질병의 조절

체육은 질병의 예방과 조절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체육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기여를 현실화하는 데는 체육활동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도 건널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질병을 약화시켜서 합병증과 오랜 시간의 회복기를 피할 수 있는 강하며 활발하고 생명력있는 기관의 발달이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손실을 복구하면서 기관을 재확충하는데는 거쳐야하는 신체적인 과정이 있다. 가능한한 많은 정상기능을 회복하고 보충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 신체활동의 하나의 목표이다.

ㄴ. 신체장애

장애란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것을 말한다. 신체부위의 손실로 인해 구조적 장애가 나타나고 신체이상으로 인해서 기능이 변형되어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의술의 발달로 교정 가능하며 후자는 올바른 신체활동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장애는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은 모든 성장단계마다 그 나뉠대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장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숙한 기관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

교정을 위한 체육의 목적은 가장 적절한 신체활동을 사용하며 최적의 능력이나 완전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특별하면서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있다.

신체적 훈련은 습관의 재형성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훈련을 위해 시간을

투여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이 되살아 난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수업과정이 무시된다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다른 장애의 원인이 유발될 수 있다.

ㄷ. 유기적인 힘

건강은 한 개인에게 행하거나 반응하게 하는 적절한 힘에 견디면서 유지하는 능력에 의해 나타난다.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장애가 아니라고 해서 건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각 단계나 성숙수준과는 다른 최적의 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성숙의 단계에 맞추어 진보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오랜 시간의 환경적 억압에 의한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으며 강한 신체를 소지하면서 생동감있고 정열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

체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건강이다. 그러나 신체는 많은 여러가지 힘-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정신, 정서, 사회적 스트레스, 풍토, 지리적 상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최고수준의 생리적 결과를 생산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개인의 건강은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신체능력을 소지하고, 최고수준의 활동을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졌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이며, 사회적 패배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 어떠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ㄹ. 체중조절과 조화

체중과 신체비율은 건강의 핵심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능력과 활동에 대한 에너지 자원에 영향을 준다. 축적된 피로와 비만의 부산물들은 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쳐 마침내 죽음을 유도하기도 한다.

모든 체육활동은 힘을 기르는 신체활동 뿐 아니라 연습에 최적의 상태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지식까지도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적당한 영양섭취와 다이어트는 필수적이다.

요즘 도시 아동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만형은 외모뿐 아니라 생리적인 측면이나 일의 능률적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ㅁ. 피로

건강은 신체기관이 피로로부터 습관적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건강한 신체를 갖춘 사람은 만성적 피로감이 없이 활기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다. 일시적인 불만이나 싫증은 피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은 신체의 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신체를 능력이상으로 사용하고 다시 이러한 능력을 직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피로하다. 계속되는 피로는 비정상적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신체의 기능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번 입은 손상은 정상복귀를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빨리 피로하지만 쉽게 회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심한 운동에 의해 정도 이상의 피로가 누적되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적당량의 운동을 제공해야 한다.

인간행동의 근본은 신체에 있다. 전 과정의 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면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 더구나 일상의 생활도 더 한층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2) 건강을 위한 환경과 제어

어떠한 그룹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신체적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은 질병이나 건강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의 원인이 된다.

환경제어에 대한 지식은 한 개인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호행동에서 그 기반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체육프로그램에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무엇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제어인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생긴 불화가 원인이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습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

으로 나타난다면 일의 능률을 잃게 되고 마침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회적 습관은 공동사회에서의 건강에도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기 때부터 건전한 사회성 형성을 위한 여러가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생활 속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강생활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환경은 반드시 신체의 성숙도에 따라 완성되어야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이룰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일은 스스로 직접 다루어야 하는 일 중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개인의 저항력 역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적절한 음식 섭취, 의복, 신체의 힘과 인내심, 휴식 등은 주요한 요구사항들이다. 아동은 정상적인 신체훈련의 과정이나 바람직한 환경조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환경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환경은 건강에 기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환경은 상해나 질병, 스트레스 등에서 기인하는 모든 여러 요인들이 배제된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3) 시기에 따른 신체적 요구

나이, 요구, 건강은 실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연령증가에 따른 성장과정은 인간구조에 대한 모든 기능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를 통과하면서 아동의 신체적 요구는 성장비에 따라 광범위해진다.

나이는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가장 의미있는 요소는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년기까지의 기간은 즉 12세까지는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후 조건의 통합과 제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숙되어 간다.

노년기에는 신체 각 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이 감소되므로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힘에 견딜 수 있는 기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힘과 건강의 기반은 21세 이전에 거의 이루어

진다 할 수 있다. 아동기 동안에 체력은 급속도로 발달된다. 신체활동은 정상적인 수준의 체중과 신체기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동시에 피로에 견디는 힘도 길러준다.

태어나면서부터 건강 증진의 과정이 시작된다.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부모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만약 부모들의 생활이 바람직하면 학교나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아동에게 주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결코 모든 피해를 다 줄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건강을 위한 여러가지 신체활동교육이나 훈련 등이 강조되고 매일 비중을 두어 오락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아동 생활체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동기에 그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신체활동은 전반적인 개인건강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2) 신체기관의 효과적 활용

인간신체는 기계이다. 그것은 신체의 움직임과 효율성을 다루는 크기, 무게, 기능과 그밖에 모든 요소들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소모되는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한다. 운동은 어떤 일정한 절차없이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은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행동을 보낸다.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산화과정은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근수축은 이용할 수 있는 연료의 양만큼 길게 계속될 것이고 무익한 부산물은 제거된다. 궁극적인 결과는 좀 더 큰 힘과 인내력,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함께 갖춘 기능습득에 있다. 이것은 체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즉 작업, 놀이, 휴식 등 신체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신체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데 있다.

신체기관은 지레나 체중계 등 다른 기구 등과 같이 역학적 법칙에 따라 반응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체육에서의 관심사는 신체의 크기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 때 효과적인가?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과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매일 계속되는 활동에서 어떻게 피로하지 않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등에 있다. 충분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생기는 피로는 마침내 만성이 되어 신체기관이 어떠한 상황하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된다. 만성적 피로는 건강을 해친다. 따라서 아동기 체육에 있어서도 그 단계에 맞는 기관의 효과적인 활용과 이를 위한 환경적 요소, 시기에 따른 요구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

3) 신체구조에 대한 이해

생활체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막연한 신체활동에 그치지 않고 신체에 영향을 주는 조건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신체발달을 위해 중요한 영역으로 첨가된다. 여기에서는 신체내부기관, 생물적 환경이나 무생물적 환경의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아동들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좋은 건강상태와 효율성에 대한 몇가지의 요구조건을 알아야 한다. 주목할만한 가치가 없는 효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건강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건강은 근본적으로 “힘의 구축”에 관계된다. 신체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육활동의 목적은 “힘의 보존”에의 방향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논의된 세번째의 체육활동을 통해 달성해야만 할 목적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오랜기간 동안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일에 대해 효용성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식의 본질을 다루는데 있다. 만약에 이러한 목적들이 어린시절부터 적절히 제공되고 성취되고 일생을 통하여 올바르게 적용되어 훈련된다면 아동들은 유전된 능력 한도내에서 최적의 건강상태를 확실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허약한 신체를 갖고 있는 아동은 신체기관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 활동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강한 신체를 소유한 아동은 좀 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

사회적인 가치관은 개인이나 그룹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개인은 생존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될 때 한 개인의 사회적, 도덕적 발달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의 의무처럼 되어있다. 물론 첫번째 의무는 가정이나 부모에게 있다. 이것은 개인이나 그룹에게 중계역할을 한다. 학교나 각종 사회단체 등도 어린이들을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어린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생활에서도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5) 민주적인 개인과 사회

민주주의 사회는 지위나 신념, 경험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모든 관계, 공동사회, 가정이나 학교 등의 모든 생활방식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각종 게임 등은 민주적인 인간관계, 민주적인 지휘구조, 민주적 조정 등의 요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 사람들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6) 자기적응과 그룹적응

인간의 계속적인 투쟁은 생물적이거나 무생물적인 환경내에 항상 존재한다. 이투고자 하는 목적에 반대 작용을 하는 많은 제약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만약 특별히 힘이 강하다면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적응이라는 문제가 인간에게 주어진다. 비록 여러가지 능력을 갖추지 못해 환경의 힘에 굴복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다른 것들의 도

움에 적응하고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생존을 위한 적응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명은 인간이 적응함으로써 이룬 성취의 총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능력있는 사람은 바다, 하늘, 육지 등을 정복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과 투쟁해 왔다. 강력한 독재적인 리더십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적응은 다수의 선호도에 의해 형성된다.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적응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뜻한다. 과정으로서의 적응은 어떠한 외부적 조건이나 목적에 대해 만족스런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거나 적절하게 초점을 맞춰 부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국제적인 통합이라든지, 민족적인 통합, 기술발달로 인한 노동의 기회감소, 계속되는 전쟁위험, 생존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나날이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주어진 상황을 여하히 적응해 나가느냐 또한 이를 위해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최적능력을 어떻게 발휘해 나가느냐가 내일의 성패를 가늠게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4. 얼마나 달성해야 하는가?

양적인 측면에서의 체육은 집단이나 개인의 목표설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목표설정이 아니다. 아동에게 친근한 것이면서 달성 가능하게 적용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에서 인간발달의 초기시기는 학년 전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최적의 발달을 위한 기반마련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양적인 기준을 정하기 전에 먼저 아동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와 “아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이 바로 그것에 대

한 안내역할을 해준다.

(1) 어린이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아동기는 전염병의 질병에 대해 가장 저항력이 약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예방주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건강과 질병에 대해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태도가 보일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이 이 시기의 가장 첫째가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질병으로부터 인한 기관의 상태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일생에 걸칠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2) 어린이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장애는 두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것은 전제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이다. 많은 장애요인은 매일의 신체운동과 연습에서의 적응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나 가끔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이를 위해 계획, 수정, 뒷처리 등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나쁜 자세나 미발달된 신체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교정된다. 따라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안정된 자세 뿐 아니라 걷고, 뛰고, 달리고, 앉고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종종 의학방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기능이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3) 어린이는 기관의 힘이 발전되어야 한다.

빠른 기관발달로 신체가 정상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이 시기에 강조되어야 한다. 성장은 또한 다양한 영역의 바람직한 연습에 의하여 자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능력은 이 시기에 확대될 수 있다.

건강 훈련 또한 중요하다. 음식, 휴식, 건강관리, 의복 등도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들의 근력, 지구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과 같은 신체기관의 힘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폐기능의 발달은 달리기와 같은 능력과 관계되며 근력이나 근지구력은 놀이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 즉 흔들기, 매달리기, 오르기 등과 같은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킨다.

(4) 어린이는 체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비만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마른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정상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식, 운동, 건강상태는 체형을 이루는 결정적 요소이다. 체형은 조정될 수 없지만 음식, 운동, 건강상태는 적응여하에 제재를 받는다.

모든 아동의 요구를 부모나 교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동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는 역시 그 의무를 간파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관심을 갖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

(5) 어린이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적응은 중요한 특성이며 그것은 여러가지 도움으로 좀 더 쉽게 학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를 파로하게 사용하면 만성적 피로와 극심한 피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도의 역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12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은 약8시간 내지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휴식과 활발한 운동의 결합은 자연스러우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달과의 조화이다.

(6) 아동은 기본적인 신체운동과 기능을 배워야 한다.

아동들이 신체기능을 습득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주면 더욱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발달되기 시작하는 단순한 신체운동은 움직임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복잡한 기능으로 발전되어 간다. 부모의 도움은 아동의 학습속도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12세가량으로 성장하면 기본운동요소(정확성, 지구력, 민첩성)등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며 운동의 기본이 되는 달리기, 뛰기, 던지기, 집기 등이 개인 활동으로써 강조된다. 그러나 이 시

기에는 기본요소나 기능을 포함하는 좀 더 높은 단계의 게임, 리듬 그 외에 이 시기에 알맞는 경쟁심리의 유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활동은 자연적인 발달을 이루는 체력이나 기능을 성취하는 중간 매체가 되어야 한다. 기능의 발달은 순서적인 유형을 따르게 된다.

(7) 어린이는 운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신체판리는 어린이가 그 원인을 알고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질 때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질병을 일으켜서 성장발달을 방해하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활동적인 놀이 생활을 위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육체적 장애를 이끄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지식이란 게임방법이나 규칙 등을 말한다. 원리나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게임을 위한 적응의 중요성은 학습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개인 대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8) 어린이는 대인관계를 폭넓게 가지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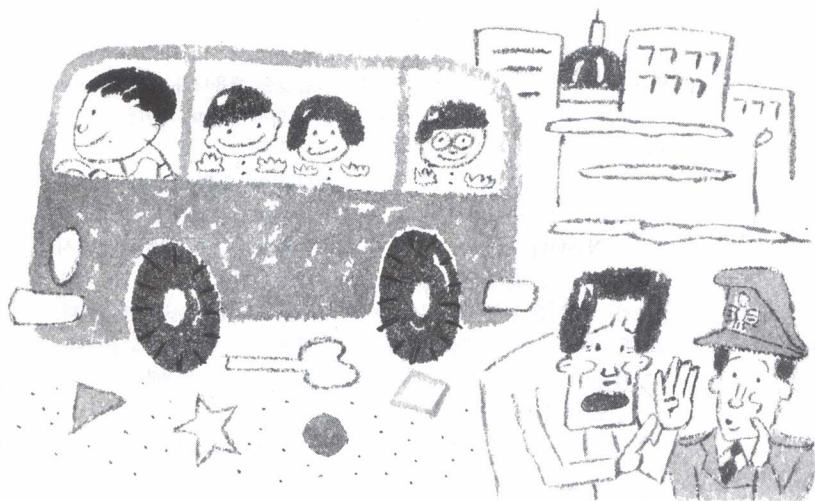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부터 아동들은 얻어진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부모는 아동들이 다른 아동과 더불어 민주적으로 놀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사회인으로 발전되도록 도와주는 첫번째 교사의 구실을 한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는 개인적 특성이나 특징에 적응할 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성이 길러진다.

개인적 특성이나 특징의 발달은 높이와 신체활동의 과정을 통해 확대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노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의 놀이도중 성인 사회를 축소시켜 인간성에 관해서 적용하게 된다. 부모나 교사는 놀이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전 네간 아이

글 · 정 형 일

그림 · 정 세 원



아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잠시 불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공터에서 소년은 동네 꼬마 아이들의 골목대장이 되어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인이, 대인이, 미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중국 여행을 시켜 주겠다”

“피-. 중국이 얼마나 먼 데...”

다섯 살 박이 미라가 입술을 뽀루뽀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 믿을거야. 중국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어”

올해 ××국민학교 5학년인 우인이가 미라의 말 끝에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소년은 꼬마 아이들의 못믿어 하는 표정을 보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런 멍청이들 !”

소년은 꼬마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를 타라. 내가 중국까지 싣고 가겠다.”

“정말 ?”

대인이가 반색을 하며 차 문을 열려고 몸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차 문을 당겨 꺾어주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꼬마 아이들이 주르르 올라탔습니다.

“셋 ! 조용히 해야돼 . 우리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소년은 운전석에 앉아서 가게쪽을 훑음 내다보고 나서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두세 차례 다시 그렇게 해보았으나 차는 죽은 듯이 가만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뒤쪽에 앉아서 중국에 갈 꿈에 부풀어 떠들어댔습니다. 소년은 꼬마 아이들이 강종거리며 떠드는 것에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너희들, 모두 의자 밑으로 머리를 처박고 엎드려 있어. 우리 아버지에게 들리면 쫓겨난단 말이야”

꼬마 아이들은 소년의 말에 따라 모두 엎드렸습니다. 소년은 운전석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서 운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잠시 불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공터에서 소년은 동네 꼬마 아이들의 골목대장이 되어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인이, 대인이, 미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중국 여행을 시켜 주겠다”

“피-. 중국이 얼마나 먼 데...”

다섯 살 박이 미라가 입술을 뽀루뽀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 믿을거야. 중국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어”

올해 ××국민학교 5학년인 우인이가 미라의 말 끝에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소년은 꼬마 아이들의 못믿어 하는 표정을 보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런 멍청이들 !”

소년은 꼬마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를 타라. 내가 중국까지 싣고 가겠다.”

“정말 ?”

대인이가 반색을 하며 차 문을 열려고 몸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차 문을 당겨 꺾어주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꼬마 아이들이 주르르 올라탔습니다.

“셋 ! 조용히 해야돼 . 우리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소년은 운전석에 앉아서 가게쪽을 훑음 내다보고 나서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두세 차례 다시 그렇게 해보았으나 차는 죽은 듯이 가만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뒤쪽에 앉아서 중국에 갈 꿈에 부풀어 떠들어댔습니다. 소년은 꼬마 아이들이 강종거리며 떠드는 것에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너희들, 모두 의자 밑으로 머리를 처박고 엎드려 있어. 우리 아버지에게 들리면 쫓겨난단 말이야”

꼬마 아이들은 소년의 말에 따라 모두 엎드렸습니다. 소년은 운전석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아서 운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으응. 그래 생각한다. 아버지가 키를 돌리고 나서 발로 클러치를 살짝 밟았었지’

소년은 기억을 되살려 운전석으로 가서 소년의 아버지가 하던 대로 다시 해보았습니다.

“됐다!”

소년은 그렇게 한 마디 내뱉고는 핸들을 움직여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맛 같지만 소년은 그때 난생 처음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차는 작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제법 큰 봉고차였습니다.

소년은 봉고차의 운전대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몰고 돌아다닐 때마다 소년을 옆자리에 태우고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아버지의 운전 모습을 실컷 눈여겨보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꼬마 아이들을 태우고 중국에 가기 위해 봉고차의 운전석에 앉은 소년은 신이 났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운전을 마침내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우기 소년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에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머리를 쳐들고 의자에 앉아도 된다.”

소년의 말이 떨어지자 꼬마 아이들은 의자 위로 올라앉아 차창에 얼굴을 대고 인도의 사람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좋아라 했습니다.

“형! 땡땡 올려봐! 쪼그만 차들더러 비키라고 하게”

우연이가 큰 소리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 노란 등이야. 노란 등은 잠깐 기다리는 거야”

“형. 빨간 등이야. 스톱해 스톱”

꼬마 아이들이 서로 거리의 신호등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가만들 있어. 난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 앞차의 뒤만 따라 가면 되는 거야”

소년은 앞에 달리는 자가용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 저차도 중국으로 가는 거야?”

대인이가 소년의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몰라. 그치만 계속 쉬지 않고 북쪽으로 가면 우린 중국에 가게 될거야”

소년은 앞 차가 서면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가 달리면 엑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고, 자동차 운전은 자전거 보다 더 쉽다니까’

소년이 꼬마 아이들을 싣고 차를 몰고 있는 동안 가게 안에 들어갔던 아버지는 소년과 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누가, 내, 아이들을, 싣고, 차를, 훔쳐 달아났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말도 잘 잊지 못하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도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서 함께 놀던 우리 우인이, 대인이, 미라도 안 보이는데요.”

가게 주인 아저씨도 허겁지겁 놀란 표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가게 앞 공터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택의 아드님이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사람들 중의 누군가가 소년의 아버지를 향해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운전면허요? 개가 이제 열여섯살밖에 안됐어요. 내 아들은 운전의 ‘운’자도 몰라요.”

“그럼 누구 다른 사람이 차와 함께 아이들을 납치해간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는 동안 봉고차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가게로 장보러 나온 어떤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차가 빨간 색 맞습니까?”

“그래요, 아주머니”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나들이 갈 때처럼 차창에 얼굴들을 붙이고

손을 흔들며 좋아라 한 것 같았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그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어린 소년이던가요?”

“글쎄, 운전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었는지는 생각이 안나는구먼요”

꼬마 아이들을 실은 봉고차는 길을 따라 싱싱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 강이 보이더니 차는 어느새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야, 형 운전 잘한다!”

“오빠, 이담에 커서 운전사해”

소년은 꼬마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자 어깨를 으쓱해 하며 활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날 바보 취급을 한단다.”

소년은 아버지께 대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라는 거야. 그까짓 공부쯤 못한다고 학교에도 그만 다니게 하고 말야”

“그으래?”

우연이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처럼 운전 잘하는 형들은 없을거야”

“맞아. 형은 나이가 가장 어린 운전사로 기네스 북에 오를 걸”

신기한 것만 보면 기네스 북을 들먹이곤 하는 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바보라며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옆에 데리고 다니거든. 바보는 우리 아버지야. 하하”

소년은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차는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느라 잠시 섰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들이 운전석의 차창을 두드려댔습니다.

“애! 우리 인천 가는데 거기까지 좀 태워 주련?”

소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천서 중국을 갈 수 있어요? 아저씨”

“중국?”

“그래요”

“가다마다. 중국사람들이 요즘 인천으로 많이들 온단다. 그런데 중국은 왜?”

“타세요.아저씨”

술에 취한 아저씨 두 사람이 봉고차에 탔습니다.

“음-. 우리 말고도 꼬마 손님들이 있었군 그래.”

두 사람의 아저씨가 자리를 잡자 대언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들도 중국에 가세요?”

“뭐라구? 중국이라구?”

“만리장성이 있는 중국 말예요”

“오오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겠다는 애긴가보구나”

다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술데 없는 소리 말고, 꿀꺽, 인천으로 데려다 주렴. 꿀꺽, 우리가 취했다고 택시들이 꿀꺽, 태워주지 않아 한시간도 넘게, 꿀꺽, 기다렸단다”

소년은 일단 술에 취해서 집에도 못가는 이 불쌍한 아저씨들을 인천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꼬마 아이들을 실은 차가 인천으로 향해 달리고 있는 동안 소년의 아버지와 꼬마 아이들의 아버지인 가게 주인 아저씨는 경찰서로 연락한다, 방송국으로 연락한다, 야단이었습니다.

16세 소년, 김동식, 뇌성마비를 앓은 적이 있음.

11세 소년 정우인, XX국민학교 5학년

7세 소년 정대인 XX국민학교 1학년

5세 소녀 정미라 XX유치원생

방송국에 실종된 어린이들에 관한 옷차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알려 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날을 저물고 각 직장의 퇴근시간이었습니다. 곧 밤이 될 참이었습니다. 소년은 차의 라이트를 켰습니다. 두 줄기 불빛이 곧게 뻗어 나갔

읍니다.

두 아저씨는 어느새 코를 골며 꿈아 떨어졌습니다.

“애들아, 아저씨들을 깨워라. 여기가 인천인지 어딘지 물어보자.”

꼬마 아이들은 돌이 엉켜 코를 꿰고 있는 아저씨들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중국이어요, 중국”

“아니, 인천이어요, 인천”

한참만에 아저씨들이 일어나 차창에 눈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 아저씨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너석! 운전기사가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난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사”

소년은 아저씨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북경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풀고 트랩을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은 마치 진짜 비행기 조종사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 맞다. 인천이다.”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의 어깨를 부축하며 차를 내려갔습니다.

“옛다. 이걸 우리를 실어다 준 차비다”

그러면서 아저씨 중의 한 사람이 돈을 꺼냈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 다. 우연이가 돈을 받아들고 나서 말했습니다.

“형, 우리 또 사람들을 태우자.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먹고 중국에 갈 게 아냐.”

소년과 꼬마 아이들은 차를 몰아 중국을 향해 달렸습니다. 길을 잘 몰랐으므로 지도에서 본 대로 무조건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라디오를 통해 아이들과 봉고차를 찾는 방송이 벌써 몇 차례씩이나 나온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소년은 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통



알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쉬었다 가자. 누구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우연이가 소년의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우유, 초콜릿, 오징어, 과자, 과일, 껌...

“나는 조종사다. 우리는 오늘 밤을 여기서 샌다. 날이 새면 다시 중국을 향해 달린다.”

“피-, 조종사가 어떻게 하늘에서 선담?”

미라가 비행기 조종사는 하늘에서 될 수 없다며 불лен 소리를 했습니다.

“여긴 공항이다. 잔 말 말고 다 먹었으면 잠자도록 한다. 시작”

소년은 차 안의 불을 켜었습니다. 소년과 꼬마 아이들은 금방 잠이 들었

읍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가게주인 아저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읍니다. 아무 데서도 소년과 꼬마 아이들, 봉고차를 보았다는 소식이 오지 않았읍니다. 소년과 꼬마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밤새도록 걱정애 싸여 흐느끼며 지냈읍니다. 무사하기를 빌며 오직 기도만 할 따름이었읍니다.

다음날 새벽, 소년은 일찍 눈이 떠졌읍니다. 소년은 꼬마 아이들을 부러 깨우지 않았읍니다. 꼬마 아이들이 잠든 새 중국에 다다를 생각을 한 것입니니다.

차가 한 시간쯤 더 달렸을 때, 저만치 군인아저씨들이 서 있는 검문소가 나타났읍니다.

‘으응. 여기가 국경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한 소년은 차를 세우고 꼬마 아이들을 흔들며 깨웠읍니다.

‘애들아. 다 왔다. 중국이야. 중국’

아이들이 부시시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총을 든 군인 아저씨들이 서있었읍니다.

“너희들은 누구지? 더 갈 수가 없다.”

“우린 중국에 가는 중이에요”

“뭐라구?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다. 알았나?”

“왜 못가는 거죠?”

소년이 제법 툭툭하게 말했읍니다.

“저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란다. 누구도 그곳엔 갈 수가 없다.”

소년과 꼬마 아이들은 더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경찰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정말이지 아버지, 어머니, 동네 어른들이 걱정했다는 말을 듣고 더더욱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읍니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시 가는거다. 알았지.”

소년과 꼬마 아이들은 그렇게 다짐할 뿐이었읍니다. *

●작가약력

19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7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당
선. 저서로는
「아침이 오는 길」
등 다수 있음.
현재 중앙일보사
문예중앙 근무.

태권가족



이향원





한강시민 공원에 울려 퍼진 태권도의 함성

—한국사회체육센터, 한강시민공원 무료스포츠교실 운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한강 시민공원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교실에 참가하여 국기 태권도를 비롯해 축구, 농구,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야구 등 7개 종목을 국가 대표선수 출신의 선생님께서 무료로 배울 수 있다.

평생체육을 바탕으로 사회체

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케 하며 나아가 나라 사랑과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향리,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체육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체육센터(이사장

김종하)는 지난 8월 16일 부터 한강시민공원에 무료스포츠교실을 개설하여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였다. 서울시민이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한강시민공원 스포츠교실은 판나루, 잠실, 여의도지구 시민공원에서 열려 운동을 하

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거나 마땅히 기회를 잡을 수 없어하던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스포츠 겸 휴식의 장소로서 각광을 받았다.

종목별 지도자들은 주로 전국가대표 출신이거나 종목별 경기협회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는 박해만 대한태권도협회 지도위원이 지도하고 있고, 트레이니로는 유도대에 재학중인 박성철·이영진씨와 동덕여대에 재학중인 김현숙양이 맡고 있다.

한국사회체육센타의 전임강사 전만동씨는 지난 4개월동안 태권도 종목에 참가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710명이라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참가한 인원은 총 1600여명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가 강화되고 널리 시민들에게 사회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면 태권도는 어느 종목보다도 각광받는 사회체육으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태권도에는 주로 국민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평소에 태권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라 무료 스포츠교실이 개설되자 매일 나오고 있어 다른 종목이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비해 태권도는 기본폼새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박해만씨는 9월과 10월만해도 적당한 날씨와 한강의 푸르른 물결을



박해만 지도위원의 지도에 따라 수련에 임하는 참가자들.

호흡하며 태권도를 수련해온 수련생들 중에는 11월에 접어들자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불어오는 강바람과 쌀쌀한 바람 때문에 차츰 수련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신 태권도를 수련해온 수련생들 중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위의 도장에 등록해 도장에서 태권도를 계속 수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스포츠교실이 사회체육의 바람직한 양태를 보여 주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렇게 태권도가 일반 시민들이 즐겨하는 사회체육의 한 종목으로 선정되어 한강시민공원 스포츠교실을 통해 태권도의 합성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것을 볼 때 감개무량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련생들에게 있어 한여름이나 겨울에 야외에서 수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볍게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쉽게 외면당할 소지가 많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각

종 사회체육의 전당이 문호를 개방하여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강남에 치우친 한강시민공원 무료 스포츠교실 뿐만이 아니라 강북시민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강북지역에도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올해는 한국 사회체육센타에서 스포츠교실의 개설이 처음이라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속적으로 1·2년간 스포츠교실이 실시된다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운동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강시민공원에 개설된 무료 스포츠교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종목에 참가해 마음껏 즐긴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인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규 인
본회 홍보실장

현정사상 40여년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들로 굴절된 역사속에서도 객관적으로 신기하다 할 만큼 성장을 계속하며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여 최대, 최고의 기록을 남기며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루었다.

이로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문화국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성큼 들어섰다.

또한 상명하달(上命下達)로 일사분란(一絲不亂)을 요구하던 반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는듯 평화적 정권교체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부활, 청문회제도 도입실시 등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기가 고조되어 온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임을 새삼 재확

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태권도 계에도 이에 부응하여 서울특별시 태권도 협회에서는 89년도 대의원을 22개 구별로 자유경선하여 소속 사범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집행부를 선임하는 민주방식의 실제적 첫 출발을 하였음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라 하겠다.

최근 유포되는 「Love Letter (?)」 등도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포문(?)으로 생각되나 이는 조금하거나 서두름없이 한계단 한계단씩 충계를 오르는 지혜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리라. 이 모두가 우리의 일들이니까.

지금은 1988년을 보내고 1989

년도를 맞이하면서 태권도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88서울올림픽을 치루기까지 우리 태권도는 선수육성면에서 최선의 정책을 다해왔고 그런 까닭에 우수한 기량으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엄을 떨쳐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선수육성에 치우치다 보니 선수위주의 태권도부 육성에 박차를 가해와 성인태권도인은 태권도 선수들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고 일선도장에서는 유지부나 국교부원들만의 태권도 수련도장으로 변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가 유아와 국민학생들만의 참여로 사회체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선 도장에서는 그동안 수련비 잘내고 심사보는 재미(?)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장을 운영해 오면서 건강 및 예절, 정서교육 등에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조기교육의 붐에 의해 주산, 속셈, 웅변, 피아노, 컴퓨터, 미술 등의 조기교육기관이 출연하면서 태권도 도장은 이들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도장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타 예체능교육기관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기위해 태권도

지도자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가?

지도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공부에는 소홀히 하고 상업적 운영에만 급급하였던 것은 아닌지?

태권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원거리를 보지 못하고 틀에 박힌 방법으로 답습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시작은 언제나 늦은 법이 없다」고 하니 지금 부터라도 우리 태권도장이 유아 및 국민 학교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상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면서, 청·장년·여성층까지 태권도인구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사범 스스로 자기혁신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내용의 과학화를 꾀하고 태권도에 대한 전문지식(실기, 정신, 품위 등)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의 태권도 정신의 생활화 실용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나 누가 무어라해도 일선 사범님들이 지금까지 수련생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승품, 승단을 시킴으로서 국기원, 협회운영에 간간이 되며 우수한 경기인들도 여러 사범님들의

흘린 땀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모든 태권도의 원동력이 사범님들이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8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뛰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경기장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라 하겠다. 태권도 경기시 필수요원인 심판님, 감독님, 코치님, 선수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따지는 경기장의 모든 불평불만을 89년도에는 88년도에 오공(五共)을 청산하듯 훌훌 털어버립시다.

어느 코치의 수첩에는 이렇게 다할 심판님들의 전화번호, 집 주소는 물론, 생년월일 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인간적으로 생일날 축전이나 생일 선물 보내는 것 아름답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나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경기장에서 코치님이 지도한 선수가 억울한 판정의 입장에 있을 때 코치님은 심한 어필을 하지요. 그러나 코치가 지도한 선수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졌는데 이긴 것으로 판정이 나왔을 때, 내 선수가 졌다고 판정반복을 요구하는 양심(?)은 한번도 본일이 없으니...

쓰면 뵈고, 달면 삼키는 지도자들의 양심도 한번쯤 자성해 보십시오.

경기장의 비리는 심판과 코치의 관계로 계란이 먼저냐? 답이 먼저냐? 의 시비이니 지도, 판지도 않는 풍토를 89년도에는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태권도는 객관적으로 어느 운동단체보다도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태권도는 남·녀·노·소가 특별한 기구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국 각처에 분포되어 있는 3000여개소의 도장과 1만여명 이상의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8월 부터 12월까지 한국사회체육센터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스포츠 교실을 개설하여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꾀했는데 이때 채택된 스포츠가 7개종목으로 이중 태권도가 가장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하니 이는 객관적으로 태권도의 사회체육으로서의 가치가 실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비추어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지역사회의 체육 지도자로서 술선수범 함은 물론, 각종 단체들을 찾아가 상업성을 떠난 적극적인 태권도 지도 등에 발벗고 나서 태권도가 국민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한 사회체육으로 부상될 때 국기 태권도의 위상은 물론, 태권도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 강 에 서

안 의 선

지울 수 없는 지평

동구 밖 먼 한 굽이

세월이 머물다 간

가슴빈 골짜마다

바람은

바람집 짓고

문을 열며 또 닫고...

풀기로 젖은 역사

저승 어느 골목에서

잊어도 좋을 기억

재치며 뒤집으며

저물녘

음정을 골라

이끼로나 돌는다

노을이 앉은 강가

짙듯 가는 내 발자국

저 하늘 별사락을

한무더기 떼끼면서

돌 발에

돌처럼 앉아

내가 나를 씻는다.



태권도의 간판스타 정국현선수 은퇴

“

앞으로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 코치로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며, 계속 공부해 내년
말쯤에는 미국유학도 준비할 예정이라는 정
국현 선수.

”



한국의 태권도 간판스타 정국현선수가 태권도 선수의 옷을 벗고 지도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태권도 선수로서 은퇴하게 된 시원섭섭함과 미련을 달래는 정국현선수는 지금이 은퇴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나이(28세) 때문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은퇴하는 것은 아니고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동안 다하지 못한 공부도 계속하기 위해서 은퇴하기로 했다는 정국현 선수는 앞으로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 코치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며 계속 공부해 내년 말쯤에는 미국유학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정국현선수가 태권도에 입문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때 배구선수였기 때문에 배구를 특기로 전남체중에 입학했는데 키가 적어 배구보다 태권도를 해보라는 박헌종코치의 권유로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국현선수는 한체대 2학년때 처음 국가대표 선수로 박탈된 후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 아시아선수권대회 2회 우승, 88서울올림픽대회 웰터급 금메달을 따내는 등 한국 태권도 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며 태권도의 간판스타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로 1982년도에 체육훈장 백마장을, 1984년도에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았고 국민체육진흥재단(이사장 김종하)으로부터 매월 35만원의 연금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화려하게만 보이는 정국현선수에게도 좌절의 시절이 있었다. 86서울아시아게임 대표 선수선발을 앞두고 꼭 출전에 승리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훈련을 쌓아 왔으나 최종선발전에서 문종국선수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다. 당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그는 선수생활을 계속해서 다시 국가대표선수로 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선수생활을 마치고 지도자로서 변신을 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방황의 시간을 맞보았다. 당시 협회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노력해 재기한다면 보통 대학을 마치면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어 다시 도복을 챙겨 입고 수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절을 딛고, 졸업과 함께 서울지하철공사 실업팀에 입단한 정국현선수는 다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었고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올림픽무대에까지 출전하며 노장이면서도 노력하는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계의 귀감이 되었고 태권도계의 거목으로 우뚝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정국현선수는 이렇게 은퇴하기까지 지도해주신 전남체증의 박현종선생님, 한체대의 이승국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대한태권도협회와 전남태권도협회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선도장에서 묵묵히 태권도 수련생을 배출하며 태권도 발전의 기틀을 잡아온 일선사범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앞으로 태권도가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반드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정국현선수는 후배들이 더욱 열심히 수련해서 세계태권도 강국의 위치를 지켜주길 당부했다.

요즘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종주국이니까하는 생각으로 외국선수를 앞잡아보던 시대는 이미 10년전 얘기라며 라이벌로 의식하고 체력을 바탕으로한 기술로서 경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현선수는 국제무대에 나가 한번도 패배한 일이 없는데 승리의 요인은 바로 체력에서 나오는 기술이었다고 했다. 기술보다도 체력을 강조하는 정국현선수는 비록 외국선수들에게 신장면에서는 열세에 있으나 체력만큼은 장담할 정도로 훈련에 임해왔다고 한다.

특히 경기를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 훈련을 해본적은 한번도 없다는 정국현선수는 학교에서나 도장에서 또는 국가대표 합숙훈련 등 짜여진 수련시간에 100%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련해 왔으며 후배들에게도 주어진 시간내에 성실하게 수련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늘 성실한 수련자세를 부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에서 웰터급 금메달을 차지했던 정국현 선수

탁하는 정국현 선수는 수련만큼이나 공부도 열심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태권도인의 최대의 목표는 국가대표선수가 되는 것이겠지만 국가대표는 체급별로 한명에 불과, 남여 총 16명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수련에는 늘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학업에 열중해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권도 선수중에서 공부하는 태권도인으로서도 모범을 보여온 정국현선수는 현재 한체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졸업논문을 쓰고 있다.

자기 자신이 요즘 대학원 졸업논문을 쓰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해도 좋으나 연구논문의 주제를 선택하는데서부터 분석, 이론 전개 등에서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뿐만 아니라 외국서적을 볼 때는 영어해석이 어려움을 느끼면서 과연 최고학부에 다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 진다며 중고교 대학시절에 좀더 빨리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노력했다라면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하는 사람들보다 육체적 피곤은 더 하겠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공부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태에서 비롯된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학문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적인 바탕이라며 후배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 코치로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으로 팀의 사기를 올릴 예정이며 내년 후반기쯤에는 미국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분간 영어공부에 치중하겠다고 했다. 이제 결혼적령기를 맞은 그에게 결혼계획을 묻자 아직은 상대가 없어 못한다며 「1, 2년후쯤에는 나도 장가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좋은 신부감을 소개시켜 달라며 수줍어했다. *

정국현 선수 역대전적

1978. 10. 29	제13회대통령기쟁탈전	단	체	2위
1979. 4. 26	제6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전	라이트미들급		1위
1979. 10. 16	제60회전국체육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1. 3. 14	1981년도한국대표선발전1차전	라이트미들급		1위
1981. 3. 28	1981년도한국대표선발전최종	라이트미들급		2위
1981. 6. 13	제16회대통령기쟁탈전	라이트미들급		1위
1981. 10. 14	제62회전국체육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1. 9. 20	제8회대학연맹전	라이트미들급		2위
1982. 10. 18	제63회전국체육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2. 11. 5	1982년도전국우수선발전	라이트미들급		1위
1982. 2. 27	제5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3. 4. 22	1983년도한국대표선발전최종	라이트미들급		1위
1983. 10. 23	제6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4. 4. 27	1984년도한국대표선발전	라이트미들급		1위
1984. 11. 11	제6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5. 4. 5	1985년도한국대표선발전(1차)	웰	터	급 2위
1985. 4. 20	1985년도한국대표선발전(최종)	웰	터	급 1위
1985. 9. 8	제7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	터	급 1위
1985. 10. 14	제66회전국체육대회(일반)	웰	터	급 1위
1986. 6. 24	제67회전국체육대회(일반)	웰	터	급 1위
1987. 4. 3	1987년도한국대표선발전(1차)	웰	터	급 1위
1987. 4. 10	1987년도한국대표선발전(최종)	웰	터	급 1위
1987. 6. 16	제22회대통령기쟁탈전(일반)	웰	터	급 1위
1987. 10. 11	제8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	터	급 1위
1988. 2. 12	1988년도한국대표선발전(최종)	웰	터	급 1위
1988. 3. 25	제8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웰	터	급 1위
1988. 6. 16	제23회대통령기쟁탈전(일반)	웰	터	급 1위
1988. 9. 20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태권도경기	웰	터	급 1위

논 단

2000년대 태권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특히 실천적 심신(心身)병행교육과 무도 및
경기태권도 이원화 문제를 중심으로—



김 철
원광대학교 교수

I

인류의 역사 발달 과정에서 제기된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관한 문제이다. 정신과 신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 종교인들이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태권도도 이와 같은 거시적(巨視的)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시적(微視的)인 교육과목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생존하고 있는 주체인 인간과 살고 있는 공간, 즉 시대적 환경 속에서 훌륭히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은 중요한 인간과제임에 틀림없다.

현대인들은 과학적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한 상태도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에 비례하여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정말 어떤시대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니시다니 게이찌(西谷啓治)박사는 현대인들은 각자의 욕구와 욕망에 몸과 마음을 떠맡기고 있어 심신을 안착시킬 곳을 상실하고 있으며, 삶의 초점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인의 자기외적 물질 소유욕구의 증대와 편리추구성향은 항상 정신적인 경쟁의식, 대립과 긴장, 신체적인 약화와 질병을 유발시켜 건강장해를 준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정신과 신체적 불합리성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교육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태권도의 연구와 실제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태권도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상과 투기활동이 융합 토착화되어, 한국고유의 무도로서 정립되어 왔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사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를 온 국민, 혹은 전 세계적인 현대인의 전인격 단련의 교육방법으로 이해하고 수련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수련방법이 요청되고 있다.

흔히 우리는 태권도 중주국이니,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으나 진정한 중주국과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 있는지 의심할 때가 많다. 특히 학문의 뒷받침없이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속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정신과 기법교육에 개발함으로써 태권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태권도의 기법위주의 교육방법은 경쟁과 승단심사에 따른 상업성향을 조장시켰기 때문에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학문적인 이론과 정신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 실기교육에 병행함으로써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태권도의 획일적인 행경관으로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세계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수련시키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근대 태권도의 반세기가 지난 전환시점에서 구체적 심신병행(心身併行) 수련교육과 무도 태권도와 경기 태권도 이원화(二元化) 문제를 2000년대 태권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미시적 문제로 제기해

보고자 한다.

II

인생이란 인격완성을 위한 끊임없는 의지적 노력의 과정이며 교육은 인격완성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바람직한 인격완성」이 곧, 교육의 목적일 때 태권도교육도 태권이란 신체훈련을 통한 인격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현대인들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때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현대인들은 고도화된 물질문명과 기계적인 조직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상가나 교육자들은 불안(Malaise), 우울(Ennui), 생기(生氣)의 상실, 인간의 자동기계화, 소외(疏外)라고 하는 위기상황에 살고 있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인간완성에 두었던 것이 현대인들은 물건의 완성,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에 중요한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현대인의 성향에 나타난 것은 물량추구의 성향이다. 현대인의 가장 강렬한 욕구의 대상이 돈과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자기의 정신, 자기의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외적 현상이나 자기 이외의 물질에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기가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확립은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며 이는 자력에 의한 자기교육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즉 심신이 건강 상태일 때 자기존재의 가치나 삶의 의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태권도의 수련은 자기자신의 정신과 신체의 힘을 규칙적인 단련에 의해서 강하게 합성시키는 무도이다. 자기수련이며 자기교육이란 점에서 다른 운동경기와 달리 자기내면세계를 구체적 동작으로 형성화(形成化)시키는 수련과정에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힘과 두뇌만 가지고 수련할 수 없을 뿐더러 동물적인 신체의 힘, 체력만 가지고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없다. 정신과 신체의 통일과 합일의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가능하다. 정신을 연마하고

통일시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신체적 단련에 의한 동적인 조건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자기의 힘의 인식은 곧 자신에게 자신감(Self-Confidence)을 갖게 하고 이 자신감은 자기가 치를 부여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하는 것이 규칙적인 태권도수련의 단계적인 목적이다. 자기 자신과 주관정신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의식구조가 형성됨으로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고 인체활동의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부분 신체사용은 현대인의 건강에 불합리성을 증대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와 같은 투기적이며 적극적인 심신병행수련을 규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현대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적 에너지를 축적시켜 갈 수 있다. 즉 강한 극기력 혹은 인내력(Spirit of endurance)과 신체적 용기(Physical Courage)를 육성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스포츠활동에도 정신과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으나 다양다변한 현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권도와 같은 적극적인 단련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태권도의 규칙적인 심신병행단련법이 힘(자신감, 절도, 극기심, 끈척성)을 형성하여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제심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은 현대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편리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편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타적인 정신을 조장시켜 인내심, 용기, 극기력, 사려깊은 생각이 약화되고 신체적 약화를 초래한다. 즉 현대인의 편리추구 성향이 태권도 심신병행수련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태권도의 교육은 정신과 기법수련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법위주 수련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범과 도장중심의 교육방법, 승단심사에 따른 경쟁과 승부의욕, 협회주도의 행정체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수양성과 경쟁적 경기형태가 기법중심, 수련형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범이나 지도자들이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체단련을 통한 정신적인 장점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호흡방법이나 정신단련에 관해서는 대부분 별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심리, 생리학적인 면, 해부기능학적인 측면에서 호흡단련과 정신 집중훈련에 대한 교육자, 사범들의 전문지식이 앞으로 더욱 요청된다.

정신훈련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법위주 수련형태가 발달하는 사실은 앞서말한 현대인들의 정신상태를 고려해 볼 때 태권도 발전에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원국은 “이는 필경 지도자의 인격이 천하고 부족하여 기술과 수준만을 단련시키는데 그치고 태권도의 근원인 정신을 무시한 폐단”이라고 혹독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태권도의 실기수련은 육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신체의 조건이 우선한다고 생각되나 정신적 바탕이 없는 신체적 훈련은 동물적 기능양성의 교육결과를 초래하여 본래 태권도 교육의 목적과 상반되며 현대인의 정신과 신체적 사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의 적극적인 인격교육방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법이나 정신, 어느 쪽에 편중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태권도정신과 기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련자 개인의 정신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본과제로서 인간행동의 지배요인인 정신작용에서 효과적인 태권도 동작변화와 기법변용의 정신집중 훈련이 필수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신집중훈련 방법은 중국의 무도가 선종(禪宗)과 함께 우리나라에 선문무도(禪門武道)로 전래될 때 이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전수되다가 점차 고려말, 이조시대에 태권도가 군인

의 필수교육과목 혹은 일반화되면서 마음 집중 훈련의 전통적 방법은 사라지고 다만 기법수련에만 치중하여 대부분 기법훈련을 잘 하면 마음 집중 훈련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믿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태권도의 마음집중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인 선수행법(禪手行法)이 점점 사라지고 가시적인 기법수련만 전승되어 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선문에서는 지금도 무도수련에 좌선법이 마음 집중훈련으로 전수되고 선무일치(禪武一致), 선검일치(禪劍一致) 등의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도장에서는 앞서 말한 현대인의 성향 태권도의 스포츠화, 경쟁심리, 급승단심사의 제도, 선수양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막연히 정신통일이니, 정신집중이니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련 적용없이 강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권도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신훈련과 기법훈련이 구체적으로 함께 실천됨으로써 현대인의 성향에 맞춰 태권도인의 수련계층 저변화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요가, 선(禪), 도가(道家), 선가(仙家) 등의 호흡법을 적극 수용하여 태권도의 정신집중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 적용함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무도 역사의 사례를 들면 마음을 집중하여 기법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구체적 마음 집중훈련을 선수행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선이란 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Dyana로서 한문으로(禪那)라 번역하고 줄여서 선(Zen)이라고 한다. 진정한 이치를 사유하고 생각을 고요히하여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마음을 안락자제한 경계에 드는 것을 말한다. 법관경(法觀經)에는 좌선수련을 통해서 심력을 길러 진리의 체성(體性)에 도달할 수 있는 신정(身定), 구정(口定), 의정(意定)의 삼정을 닦아 심신의 절대안정을 얻어 진리의 체성(體性)에 합일한다는 말이 있다.(大正藏經 15. No.16, 法觀經, p. 240)

좌선법은 선문무도수의이 기본교과내용으로 수련하였고, 중국무도 전래시 우리나라 고유무도인 태권도와 융합 전승되어 오다가 조선시대부터 일반화되면서 선수행법은 선문에서만 전

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마음 집중수련의 구체적인 방법인 선수행법을 태권도정신교육과목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선은 불교나 종교수행 목적의 전유물이 아니고 무도수련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태권도 교육의 발전은 지도자 및 교육자들이 인간의 생리기능이나 태권도기법지식과 아울러 현대인의 심리, 가치관, 성향을 연구하고 현대인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심신병행교육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시대적 환경에 따라 태권도의 가치와 수단의 적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인간교육이란 근본적인 목적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외적상황이 급변함으로써 태권도의 본래 무도적이며 투기적인 성격들이 점차 다른 체육활동과 동일시하는 스포츠적 경향과 상업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이를 경기 태권도와 칭함)

태권도는 무도로서 종교적 근원을 갖고 자연과 조화 또는 합일하여 정신적 통일집중, 안전을 주안으로 신체의 전체 부위를 순리에 따라 연마하는 동양적인 자기체합적 자각교육이다. 그러나 스포츠나 서구적인 체육활동은 대부분 신체기능의 발달을 도모하는 인위성이 주가 되어 외적자극을 통하여 신체의 각기관을 기능적으로 발달시키는 상대적 경쟁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태권도가 본래 호신, 호법 또는 호국적인 무도로 발달되다가 다른 스포츠 활동과 동일화되면서 일반적인 물질적 의식구조와 경쟁성에 맞추어 승부와 상대성을 중요시하는 유희적이고 대중을 의식하는 경기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무도화의 태권도와 경기성의 태권도 이원화 양상을 가지고 발달되었다고 본다.

무의 이념은 인의 도로서 상대적 입장에서는 침략이나 정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성에서 볼 때 자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무도는 인간이 자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인간 전체(超個의生命)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도로써 심신단련을 통한 체형적 인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현존을 위한 투쟁방법에서 전체적 인간집단의 현존을 위한 정화와 화합의 방법이라는 개념속에 무도의 넓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무도성은 정신과 기법이 우세함으로 남을 정화와 화합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정신과 신체적인 힘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넘어선 초개의 상태, 즉 우리를 모두 이익되게하는 융화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무도적 자각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태권도의 무도적 정신과 기법을 최고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도적 태권도의 개념은 심신이 하나가 되는 심신일여사상(心身一如思想)과 동정일여사상(動靜一如思想)에 근간을 둔 특징을 알 수 있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본능에서 출발하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심신일여를 성취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무도 태권도는 승부나 경쟁이 아닌 자기 발전, 곧 자각을 목적으로 심신을 연마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도는 인간의 자연성을 적극적으로 순리에 맞춰 단련함으로써 동작 자체가 부분적 신체단련이 곧 전체적 단련과 연관되어 있다.

바른 자세에 바른 호흡, 바른 정신에서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다. 바른 자세는 바른 동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바른 생각과 동작의 계속적인 반복연습은 내면적으로 좋은 품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무덕을 쌓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의 병행수련은 자기의 정신과 신체를 자제하고 조정하는 힘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심신일여사상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이며 중도적인 원만한 무도인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다만 무도수련과정에서 겨루기를 하는 것은 승부나 경쟁에서 이기려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무도기법 수준을 확인하여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우수한 기법을 연마시키기 위한 실제상황을 가

상한 수련과정이다. 동작을 하는 동안 심안(心眼)은 나와 상대의 전체를 볼 수 있고 동작을 멈추고 상대방을 주시하는 동안에도 상대의 마음과 동작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동중정(動中靜), 정중동(靜中動)의 동정일여의 원리를 실재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심신병행단련의 핵심이며 무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련내용이 된다. 그러나 경기태권도는 신체기법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경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가 대중화 또는 군사교육 수단화되면서 기법을 겨루어 선별함으로써 경쟁과 승부, 승단심사, 과시적인 효과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기법위주의 경쟁적인 교육방법이 선수 양성의 직업화 현상과 상업화 경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도태권도의 경기태권도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협회조직은 태권도 일원화라고 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이와같은 제도는 행정상 통일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무도의 본래 목적과 특성을 살리는 것보다 획일적인 운영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도적 입장에서 볼 때 순수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각종대회와 승단급 심사에 따른 경쟁심리와 정치성이다.

셋째, 태권도 교육자들의 타인지향적(他人指向的)의식구조이다.

넷째, 태권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무도태권도와 경기태권도의 이원화 문제를 2000년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기하는 것이다. 무도태권도에는 승부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태권도와 달리 자기와의 대결이며 심신일여와 동정일여 바탕에서 자각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과 단련이란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무도태권도는 본래 종교적인 자각을 위한 심신단련의 체험과 지식을 인격으로 전이(Transfer)시켜서 호신, 호법(진리, 정의) 또는 호국으로 승화시키는데 있고, 경기태권도는 스포츠와 같이 관중이 있고 경쟁적인 승패나 승부, 승단에

집착하는 것으로 반세기 전부터 서구적인 경쟁 경기형태의 운동도입으로부터 급성장되었다.

무도와 스포츠는 인간이 유기체로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한 심리적 동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점은 같으나 행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목적과 단련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도는 동양적인 수도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인간의 행(行), 주(住), 좌(坐), 와(臥) 어떤 상태에서도 수련의 마음 자세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즉 행, 주, 좌, 와의 사위의(四威儀)라는 말과 같이 무도인은 일상 생활을 도(道)를 닦는 마음과 자세가 위의(威儀)를 갖추고 계속 수련하는 전생애 단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무도로서 태권도의 순수성과 목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지도자나 교육자 자신의 무도인의 긍지를 갖고 무덕을 쌓아가며 직업이나 경제적 이해보다 인간교육적 측면에 지도할 수 있는 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태권도의 무도적 특성을 살려 수련하는 무도적 태권도와 경기성의 태권도, 혹은 스포츠적 태권도로 양분하여 학문적 연구 지원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태권도의 스포츠화, 경기화에 따른 태권도 무도성의 약화와 흥미, 형식적인 겨루기 위주는 기법발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래 태권도는 태권도의 무도적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경기태권도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도태권도와 경기태권도(스포츠태권도)의 이원화문제는 서로 대립경쟁, 분리의 차원이 아닌 상호보완과 협조, 화합의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정한 다는데 있다.

IV

태권도는 우리 고유 무도로서 전통사상인 단군선신사상, 불교의 선사상, 도교의 태극사상에 근거를 두고 발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서구 스포츠적 경기형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

시적 기법의 경쟁이 불가시적인 정신의 단련, 집중통일을 경시하였고, 가속화된 Sport화, 경기화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는 태권도 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본래의 무도성을 제외하였을 때, 태권도 목적외의 과도한 경쟁, 경제적 이익, 제도적인 권위와 확립성, 무도의 자율성과 창조성의 붕괴 등의 충분한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복합 발전된 태권도 근저 사상이나 철학을 인간 동작화시켜(품세) 단련시키는 문제는 쉬운 일은 아니다.

2000년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우선 태권도 행정이나 교육집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기관 설치와 실용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태권도의 행정조직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나, 교육시키는 교육자나 사범의 자질향상과 학술적 연구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소 설치와 운영은 태권도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라고 하겠다. 이는 태권도가 태권도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온 국민을 태권도인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태권도 지도자, 교육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나 교육자들의 수준향상, 교육내용의 과학화, 전문화, 실용화와 수련계층의 다변화는 발전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권도 수련연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중심의 유년화 현상을 빨리 탈피해서 청년, 장년, 여성계층까지도 수련생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사범들이 태권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인식시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도장중심의 태권도 교육 공간을 각종 직장, 산업단체, 교도소, 종교단체 등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도 필요하고 찾아오는 수련생을 가르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찾아가 가르치는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 태권도 워크 샵, 태권도 여름학교, 여성과 노인을 위한 태권도 실기회 등 새로운 태권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통하여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논 단

민족무예 태권도의 정신성



지 삼 업
부산수산대학교수

태권도는 신심의 고양을 개발해 가는 인간과 학이다.

그러므로 도장 활동은 신심연마이기 때문에 체험과 직관을 통한 자각이나 인격함양은 물론 인간 본질로서의 회귀(Return)가 그 명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권도는 인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성숙의 고도화와 정신수준의 증폭이라는 이대(二大) 기능을 관련시키기위해 신심일여를 지도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질을 변화시킬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특히 태권도 조기 수련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태권도를 수련(국민학교 4~6학년의 학생 60명; 수련기간 1~2년 미만 30명, 2년이상 30명)한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활동성과 정서 안정성 그리고 남향성(浩然之氣)등에서 월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태권도 조기 수련이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매우 효과가 큼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독의 갈웨이(Gallwey)와 티발트(Ti-

wald)는 「동양의 무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태권도가 전통적으로 테크닉보다 예지적인 무예정신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에서 전일(全一)의 이데아로 신앙되어온 인간존중의 정신이 문예부흥기 이래 서구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수량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합리성과 맞닿아 있어 서구인들이 새롭게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독의 발프강(Walfgang)은 동양과 서양스포츠의 총아인「태권도와 테니스에 있어서 사범과 수련생 그리고 트레이너와 선수간의 인간관계에 관한 비교분석」에서 태권도는 오랜 역사의 문화적(불교, 유교, 도교) 배경에 이념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범과 제자 사이에는 무예적(인격적인 신뢰성)인 혈액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테니스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테크닉의 향상에만 정열을 쏟아 왔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가끔 나타나게 되는 권태감이나 인간적인 갈등을 순화시키지 못해 일부 선수가 훈련장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태권도의 수련에서는 인간존중의 정신, 즉 무예정신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테크닉의 고도화는 그 결과론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로서 니시야마(西山菴藏)를 비롯한 일본의 학자들은 그들의 중등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원인으로서 종전이후 풍미한 자유방임 사상이 일본고유의 사회적 가치관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그들은 땅에 떨어진 청소년의 도덕성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도교육의 진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영국, 서독, 호주 등을 비롯하여 일부 공산권 학자들까지도 물질의 풍요가 바로 인간의 행복지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지혜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 대상이 중국의 성리학(理氣二元論)이나 또 다른 한국의 퇴계학(理氣互發說)이 되고 있다

는 점은 새삼스러운 감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동양철학이 중시해온 정신존중의 입장을 사변적인 서양철학과 접목시킴으로서 제3의 철학(물질 및 정신문명의 풍부화)을 창출(Origination)하여 현대문명의 독성에 시달리고 있는 인류에게 해독제가 될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아무튼 이와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볼 때, 이미 고도의 분별력을 발전시켜 첨단산업사회를 발전시켜 놓은 현대인에게 낙원을 지킬 불꽃이 없다해도 에덴의 동산을 향한 단순 회로가 쉽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물심(物心)에 대한 조화의 달성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지름길은 없을지라도 시간, 공간, 존재 등의 개념을 동양의 주관적인 체험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자 하는 관계 학자들의 관심에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

미국 버클리대학 카프라(capra)교수는 “사람의 마음에 추론적(推論的)인 것과 직관적(直觀的)인 것의 두가지 지식이 각기 과학과 종교에 연관되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에 대한 편애 때문에 동양의 체험적이고 직관적인 형태의 지식이 왕왕 평가절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인 태도는 이와는 반대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또한 노자는 “사람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여 지식에 대한 동·서의 가치평가 기준을 극명하게 나태내고 있다. 그리고 인도의 우파니샤드(Upanishad)에서는 이를 상·하급지식으로 분류한다. 상급 지식으로서는 종교적인 자각과 연관시켰고, 하급지식은 각종의 과학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대적지식과 절대적지식 혹은 조건적진리와 초월적진리로 언급한다. 특히 중국철학에서는 직관성과 추론성의 상호보완적인 성질, 즉 수수(授受)원리를 항상 강조하여 왔다. 실제로 중국사상의 기반을 이루는 음양론(양이 절정에 도달하면 음을 위해서 물러나고, 음이 그 절정에 이르면 양을 위해

명상상태와 태권도인의 정신자세 사이에는 절대지(絶對知)라는 차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인의 이미지 (Image)에서 우리의 정신적·문화적 생활에 메시아니즘 (Messianism)적인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물러난다)의 원형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관찰을 중시하는 서구의 추론적인 지식은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것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범위화하는 기능을 가진 지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호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대립·갈등의 세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Descartes)적인 분할과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마음과 정서를 황폐화시켜 물질만능의 풍조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인류는 근 2천년 동안 과학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더 현명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그러나 동양의 직관적인 지식은 모든 현상의 전일성과 상호관련성이며, 또 본질적으로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란 영겁토록 움직이고, 유기적이며, 정신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하나의 실체라고 볼 때, 운동과 변화가 사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객체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 그 자체의 본원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본 것이다. 바꾸어 말해 동양사상은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체를 생멸하는 변화(色即是空 이 空即是色)로서 초월적으로 보는 4차원적인 시공의 차원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 결국 그것은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개선이 필요없는 조화된 통일체 속에 용해된 「깨달음」이랄 수도 있고, 선종에서 말하는 도통(道通·The Vision of the Tao)일 수도 있다.

사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문화사는 이와같은 절대지(絶對知)를 구하기 위해 명상적인 형태의 기예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명상의 목적은 한가지 것에 주의(Notice)를 집중시킴으로서 사고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절대지를 추론적인 데서 직관적 의식의 모습(透視)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예컨대 서도(書道)는 절대지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그 방법론으로서 삼매경(三昧境)의 손놀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태권도의 수련도 따지고보면 구두지시에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범과 함께 조화와 통일을 이룰 때 체득화 된다. 즉 태권도의 정신을 타나내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의식의 객관적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서 정신적 위업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특히, 노자는 “학문을 닦으면 나날이 지식이 늘고, 도를 닦으면 나날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선(禪)의 대가인 스즈끼(鈴木)에 의하면, 마음을 텅 비우면 직관적 형태가 비상한 깨달음을 가져오고, 또 환경은 개념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경험된다. 그래서 주

위의 환경과 합일하는 체험은 명상상태의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분별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분별력조차도 없는 통일체로 사라져가는 의식상태인 무(無)나 공(空)의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명상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 있기 때문에 실체에 대한 비감각적인 인지를 비롯하여 모든 소리와 주위환경의 변화까지도 받아 들일 수 있으나 그것을 분석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감각적 영상으로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의 야수타니(Yasutani) 도 “선명상은 긴장되거나 조급하지 않으며 분명 이완도 되지 않은 집중된 자각의 고양상태이다. 또 그것은 죽음을 마주보고 있는 자의 마음일 수도 있다”고 했다. 마치 관중들이 경기장에 온집했을 때, 선수의 장님이 아니고 청력 장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과 귀의 한쪽 귀통이로는 그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게임에 몰입해 있는 선수가 한 순간이라도 그 같은 감각적인 상황에 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체험이다.

그러므로 명상상태와 태권도인의 정신자세 사이에는 절대지라는 차원에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인의 이미지(Image)에서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생활에 메시아니즘(Messianism) 적인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험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를 내세우는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인간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관계학자들의 갈등과 관련지워 볼 때 시간, 공간 또는 인간행위에 저해가 되는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태권도인의 무예정신은 현대적인 고민, 즉 완전(無爲, 舞待, 無已)한 자유인의 추구에 큰 희망을 준다.

왜냐하면 한국의 태권도는 동양문화권 속에서 독창적으로 정립된 무예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개인의 심리적상태, 즉 무념무상(空)의 세계이고, 마음의 방향성 혹은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신력이다. 또한 마음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만물의 근원력, 즉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므로 태극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태극의 원천이 곧 무

극이라고 전제할 때, 결국 무극은 전체집합이요 태극은 무극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념으로서의 태권도 정신은 개인에 머무름이 없이 초개인적인 뜻을 맞는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회생과 봉사정신으로 쉽게 승화되기에 그 덕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장에서는 사범들에 의해서 이와같은 무예정신이 수련에 참가 한다는 자주성(출석), 자기를 제어하는 극기력(겨루기의 문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청소, 규칙에 따르는 준법성, 수련생간에 어울리는 친목성(예의결함), 소속의식(국기에 대한 경례), 역할의 분담(공중위생을 위한 도복과 신체의 청결)등으로 구체화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무예정신은 그것 자체가 행동이 아니고 행동을 유도하는 정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전환기의 한국에 있어서 주목되는 스포츠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놀이의 연장인 단순한 스포츠라기보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인간학》이나 《정신학》으로 평가 받아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身心 : 15~6세기의 주자학자들은 심이 신의 주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심과 신을 함께 쓸 경우에는 반드시 신의 자를 앞으로하여 「身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身心」이란 글자에 해당하는 외국어로서는 psycho(心)와 soma(身)의 합성어인 Psychosomatic 혹은 Psychophysica 이란 것이 있다. 이것들은心を身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학이나 심리학의 용어이기 때문에 결코 체육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身心은 이와같은 근거에서 원용되고 있다.

메시아니즘 : 악과 불행에 찬 현세를 멸망시키고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종교적 신앙 *

논 단

태권도 철학(I)

(Philosophy of Taekwondo)

—그 의미, 과제 및 방법에 관한 고찰—

김 영 선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
많은 동물 중
인간만이 유일하게
철학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듯,
많은 인간 중
태권도인이
철학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I. 머릿말

최근에 와서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증대되면서 '태권도학(跆拳道學)'이란 말이 흔히 거론된다. 태권도를 대상으로한 독립된 학문으로서 태권도학은 아직 이른 듯 하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태권도학의 성립 요건 중에 태권도 철학이 있음을 대부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별 학문¹⁾에 대한 철학의 역할과 같이,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학의 성립 근거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태권도학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해명함으로써 태권도학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²⁾

1)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문을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세분야로 구분한다. 인문과학의 영역에는 역사학, 문학, 언어학, 교육학 등이 속하고 자연과학에는 물리학, 천문학, 생리학, 생물학 등이 속하며 사회과학의 분야에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이 속한다(강영계, 「철학에 이르는 길」, 54면)

2) 강영계, 「위의 책」, 59면

원래 태권도는 격투기술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철학—특히 윤리도덕관·진리자각의 동양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 태권도는 격투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다양한 역할은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철학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불러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우리는 태권도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논의를 등한시해 왔다.

사실 철학하면 ‘깊은 생각’이 따라야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골치아픈 것임이 틀림없다. 또한 태권도 보급과 당면과제 해결에 우선해 급급해왔던 태권도인의 현실은 철학이 뒷전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들 사이에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철학이다.”라는 그릇된 신념이 팽배하여 즉흥적이고 감성적(感性的)이며 고착된 생활습관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권도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중 많은 것이 철학(철학적 판단과 연구)의 부재(不在)에서 기인됨을 알게될 때, 우리는 세심 철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치관의 정립과 사고(思考)와 학문에 대한 방향성의 확립,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그간 간간이 태권도 철학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했으나 편협한 자기 주장과 타당성을 결여한 이론에 그친 예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태권도 철학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이해 부족과 상이(相異)한 인식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태권도철학이 원만한 논의되려면 그 개념 고찰과 과제전반적 내용의 인식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태권도 철학의 의미와 과제 및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봄으로써 태권도 철학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일반철학을 참조하되 태권도 상황에서 부각되는 문제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찾기로 한다.

II. 태권도 철학의 의미

태권도 철학을 논의하려면, 그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간 태권도 철학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달리 상정(想定)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람은 태권도 철학을 ‘태권도의 기초(基調)를 이루는 사상 체계’로 인식하며 또 어떤 사람은 ‘태권도인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같은 규범적 의미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태권도 철학을 협소하게 한정하거나 편파적인 개인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짙다. 일단 ‘태권도 철학’이라고 할 때는 태권도와 철학이란 낱말이 합쳐서 형성된 단어이다. 즉 태권도 영역에 철학의 견해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태권도 철학인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철학의 의미와 내용 고찰을 거쳐 태권도 철학의 의미를 밝혀보기로 한다.

1. 철학의 뜻

철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철학자에 의해 그 의미가 모색되어 왔지만 철학의 본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규정된 모든 철학의 정의(定義)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결정하게 하는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형태의 소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사전(辭典)의 정의와 그 어원 고찰을 통해 철학에 내포된 뜻을 알아 보자.

사전에 의하면, 철학의 영어명인 philosophy는 고대 그리스어인 philein(사랑)과 Sophia(지:知)가 결합된 말로서, ‘지식에 대한 사랑’ 또는 학문 일반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과학의 분화·독립화와 더불어 이러한 의미는 점차 특

3) 김대식·김영환, 「체육철학」, 19면

4) 김용옥, 「철학강의」, 158면

철학이란 '인생 및 세계의 궁극적인 근본원리를 추구하는 학(學)' 또는 '사물의 근본 혹은 최고의 원리를 다루는 학'이라고 정의된다. 동시에 그 존재방식에 관해서 '철학은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태도를 문제화하며 이런 뜻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상(思想)'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정한 내용을 띠게 되었고, 주로 '사물의 일반 원리에 관한 학(學)'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철학이란 '인생 및 세계의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學)' 또는 '사물의 근본 혹은 최고의 원리를 다루는 학'이라고 정의된다.⁵⁾ 동시에 그 존재방식에 관해서 '철학은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태도를 문제로 하며 이런 뜻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상(思想)'이라는 성질을 갖는다.⁶⁾

동양에서 philosophy는 19세기 무렵 일본의 철학자 니시 아마네(西周)에 의해 哲學(우리말로 철학, 일본말로 테즈카구로 발음함)으로 번역되었다. 한자어 哲學은 중국어 '밝을' 哲과 '배울' 學의 합성어이며 이에 해당되는 순수한 우리말은 '밝은 배움'이 된다.

필로소피아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피타고라스(Pythagoras, 582?~500? B.C)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고대 회랍사상가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이 쓰여졌으며, 이 말을 쓰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달랐다고 한다. 흔히 필로소피아를 '지혜의 사랑'으로 풀이하지만 Sophia는 지식이라는 의

미에 더 가깝다.⁷⁾ 지식과 지혜는 비슷하게 생각되기 쉽지만 철학에서 그 뜻이 완전히 구별되며 그 차이를 통해 철학의 본성을 설명한다.

지식(知識: Knowledge)은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사실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또는 특수한 것인가 일반적인 것인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한편 지혜(知慧: Wisdom)란 사물에 대해 매우 폭넓고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어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실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⁸⁾

이전의 회랍사상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며, 우주의 객관적 실재 모습에 관한 우리의 참된 앎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은 그 전반 철학사의 경향이 지혜를 결핍한 철학이 된 반면에 동양 철학은 지혜가 중심이 되고 지식이 결핍된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⁹⁾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든가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한편 '지혜'¹⁰⁾를 추구하는 사

5) 황세연, 「철학입문」, 11면

6) 임석진, 「철학사전」, 360면

7) 김용옥, 「앞의 책」, 161-166면

8) 로널드 J. 글로셉, 「철학입문」, 이치범역, 11면

9) 김용옥, 「위의 책」, 162면

10) 포괄적인 조망을 의미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들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란 일반적 원칙을 알고 따라서 특정사실들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그 사실의 상대적 중요성까지도 평가하는 것이다. -로널드 J. 글로셉, 「위의 책」, 11-12면

람(철학적 인간)은 “왜?”라고 묻는다. “왜”라는 물음은, 어떤 사건 혹은 행위가 보다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어떻게 개별적인 경우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태권도 국면에서 “왜?”라는 질문이 사용된 예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86년 여름,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조직폭력배 집단살인극(숙청 서진룡살롱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권(利權)문제와 악감정(惡感情)이 얽혀 상대와 폭력단원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였던 장본인들이 거의 대학 유도인이었다는 사실은 특히 무도계(武道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한 태권도인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문을 제기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사람을 죽였을까?”

“왜 그들은 무도를 통해 자기수양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에 있어서 무술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폭력수단일진데, 무술의 본의는 무엇인가?”

“왜 무술은 쉽게 폭력으로 변할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태권도인은, 본질적인 철학자의 성격, 즉 보다 일반적이면서 근원적인 설명과 이유를 끈질기게 추구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변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자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반적인 원칙과 다른 사건의 경우에 관련지어져서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전망을 갖고자 하며 모든 ‘행위’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적절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길 바란다.¹¹⁾

2. 철학의 분야

철학자들은 만물의 실재(reality)와 진리(truth) 및 가치(value)를 효과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철학을 형이상학, 인식론 및 가치론 등 세 분야로 나눈다.

◎형이상학

형이상학(形而上學: metaphysics)은 희랍어 meta(beyond: 초월해서)와 physics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용어이다. 영어로 ‘beyond the physical’로 ‘눈에 보이는 만물현상을 초월한다’는 뜻이다. 즉 ‘만물의 실재(實在: reality)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¹²⁾ 일명 존재론(存在論: ontology)라고도 한다. 고대철학자들은 존재의 총체로서 우주 혹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근본적인 것과 생성·소멸·변화의 짜임새를 탐구했다.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신(神: God) 정신과 물질·도(道: Tao)·기(氣: Chi)·공(空: emptiness)의 문제가 형이상학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자아(自我)의 문제, 현상과 본질, 가능성과 현실성,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도 이 영역에 속한다.¹³⁾

◎인식론

인식론¹⁴⁾(認識論: epistemology)은 그리이스어 episteme(知識: knowledge)와 logy(학문)의 복합어로서 지식의 근원·본질·방법 등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만물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진 것인가’ ‘직관력(直觀力)·계시·추론(推論)·경험 등을 통해 세상의 만물을 알게 되는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인식론적 질문이다.

우리는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주로 경험·합리성·직관의 세 계기를 통하여 우리

11) 로날드 J. 글로셀, 「앞의 책」, 11-13면

12) 김대식·김영환, 「앞의 책」, 16면

13) 황세연, 「앞의 책」, 17면

14) 인식론에는 논리학(logic)이라는 올바른 사고의 형식 및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철학의 한 분야이지만 모든 학문의 예비학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멋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글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일정한 사고의 규범에 따라서 말하고 쓴다. 이러한 논리의 절차와 형식을 다루는 학문이 곧 논리학이다.-강영계, 「철학에 이르는 길」, 48-49면

의 의식을 형성시켜 나간다.

● 경험(experience)—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된다. 예를 들면 여름에 장마가 진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 합리성(rationality)—논리나 추론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즉,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한 변보다 길다든지 또는, 두 점을 이은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다 라는 것은 경험이 아닌 논리적인 생각이나 교육을 받아서 얻게되는 지식이다.

● 직관(直觀:intuition)—어떤 느낌이나 직관에 의해서도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수사관이 범인을 찾아낸단다가 아니면 첫눈에 신부감을 발견해 낸단다가 하는 것은 모두 직관을 통한 것이다.¹⁵⁾

◎가치론

가치론(價值論:axiology)은 보통 인간행동의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윤리학(倫理學:ethics)과, 세계 현상의 아름다고 추한 것을 연구하는 미학(美學:aesthetics)으로 나눈다.

그럼 윤리학에서는 옳은 것(right)과 그른 것(wrong) 혹은, 좋은 것(good)고 나쁜 것(bad)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같은 행동이라도 그 당시 처해진 상황에 따라 도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비도덕적 일 수도 있다. 스포츠나 체육 현장에는 윤리에 관한 일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우수선수를 스카웃 하는데 있어 금전 거래라든가 선수의 납치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구타사건도 흔히 볼 수 있다. 경기인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즉 도덕적 선택(moral choice)을 담구하는 것이 윤리학

의 적용이 된다.

미학은 자연과 예술에서 나타나는 미(美)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미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술(art)은 무엇인가? 훌륭한 예술과 그렇지 못한 예술은 어떻게 구별하나? 예술에서 창조(creativity)는 무엇인가? 창조는 어떻게 설명되고 인정되며, 교육되어 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회의(懷疑:doubt)거듭함으로써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의 궁극적인 아름다움, 즉 조화(造化)와 인간성 실현의 해안까지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3. 태권도 철학의 정의

앞서 철학은 문제의 성질에 따라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으로 구분됨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철학의 영역이 개별학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향할 때는 ‘—에 관한 철학(philosophy of—)’이 성립한다. 예를들면 역사에 관한 철학은 ‘역사철학’이 되며 교육에 관한 철학을 곧 ‘교육철학’이 된다. 철학이 체육을 대상으로 한다면 ‘체육철학’이고 무술(武術)을 대상으로 한다면 ‘무술철학’이 된다. 따라서 ‘태권도에 관한 철학’ 또는 ‘태권도를 대상으로한 철학’이 곧 ‘태권도 철학(philosophy of Taekwondo)’인 것이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라는 독자적인 영역에 관한 철학적 물음(과제)을 다루게 된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의 실재(본질)과 가치에 관한 고도의 일반적인 물음(highly general question)¹⁷⁾과 지극히 근본적인 물음(highly fundamental question)¹⁸⁾을 다루는 것이 태권도 철학인 것이다. 다른말로, 태권도 철학이란 ‘태권도 영역에

15) 김대식·김영환, 「알의 책」, 17면

16) 김대식·김영환, 「알의 책」, 18-19면

17)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물음이 모든 물음들 중에서 고도로 일반적인 물음이 된다. 태권도 영역에서 예를들면 “태권도란 무엇인가?”, “태권도 기술은 무엇인가?” 등은 극히 일반적인 물음이 된다.

18) 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지니고 있는 신념들은 어느 정도 질서잡힌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법인데, 어떤 신념이 다른 신념을 근거로 삼고, 다시 이 나중의 신념은 또 나중의 신념을 근거로 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나중의 신념이 앞의 신념보다 더 근본적인 신념이 된다. 예를들면 “태권도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건강을 위해 한다”라고 답했을 때, “왜 건강하려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후자의 질문이 전자의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에 관한 근본적 물음을 다루는 것이지만 중국에 가서는 일반철학 사상과 자연히 접속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비어슬리, 「철학적 사고의 초대」 이명숙역, 18-19면

대해 철학적 방법과 견해를 적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철학이란 말의 학(學)의 의미를 부각시키면,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의 근본 원리나 의미·가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도 규정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권도 철학이란 '태권도인이 가져야 할 도덕적 행위규범'의 의미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다. 태권도인이 지피로 삼아야 할 올바른 정신과 태도를 많은 이들이 태권도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개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지만 태권도 철학을 협소하게 한정짓고 있다. 태권도 철학은 그러한 규범적·실천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본질과 가치를 다루는 학문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학문성과 일상 언어 개념속의 실천적 의미를 포괄하여 최종적으로 태권도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의 본질(근본원리)과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일 뿐 아니라 주변상황에 대한 태권도인의 실천적 태도를 다루는 살아있는 사상이다.”

4. 태권도 철학의 성격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행위주체인 수련자와의 관계성을 심층적으로 밝혀가는 작업이다. 태권도와 수련자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철학적 물음과 의미는 탐구함에 있어, 태권도 철학은 철학의 특성과 합치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띠게 된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를 대상으로하되 근원적이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룬다.

태권도 철학은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철저한 방식으로 묻는 일이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뿌리에서부터 파악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며 항상 “왜?”라는 것을 묻는다. “왜 나는 태권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경기를

하는가?” “왜 태권도는 교육적이어야 하나?” “왜 태권도에서 예절이 중시되는가?” 등의 질문을 예로 들 수 있다.

태권도 철학은 기술향상을 위한-태권도 역학 생리학과 같은-과학처럼 가설(假說)과 전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태권도 과학은 태권도에 관한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지식체제이기는 하지만 자기존립의 근거와 같은 근본적 물음을 배제한다. 그러나 태권도 철학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하게 묻는다.

또한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고 애쓴다. 과학적 입장은 부분을 엄밀히 파고들어가 해명함으로써 큰 성과를 기대하지만 철학은 “진리는 전체이다.”를 주장하며 하나의 종합된 생동함을 생동하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면, 태권도는 격투기술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이며 정신수양을 위한 교육수단이기도 하다. 이들 각각은 과학의 영역내에서 기술, 운동, 교육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진다. 그러나 태권도 철학은 이들 다양한 시각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지향한다. 그럼으로써 상호연관적이고 생동적인 전체를 통찰하는 혜안(慧眼)을 획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인식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직관력(直觀力)을 요구하며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있다.

◎태권도 철학은 가치론적 경향을 띤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 본질 추구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인간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히 “태권도 제요소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를 묻는 가치론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가치¹⁹⁾라는 말은 쓸모·유용·필요·의의와 비슷한 뜻으로 쓰여진다. 가치는 사물 그 자체로서 있는게 아니고 욕망이나 요구를 가진 인간에 의해 매겨지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향이 짙다. 태권도 또한 수련자의 개별적 동기나 의도에 의

19) 인간의 욕구, 욕망,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나 성질 혹은 만족시켜주는 따위의 것이나 성질, 나아가서는 만족시켜줄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어지고 있는 것이나 성질을 가르켜서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한다.(나옴이사, 철학이란 무엇인가 37면.)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의 본질 (근본원리)과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일 뿐 아니라 주변상황에 대한 태권도인의 실천적 태도를 다루는 살아있는 사상이다.”

해 다양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는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이 갖추어진 건강 운동으로서, 위력적인 호신술로서, 적극적인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의지력과 인격 배양 수단으로서, 삶의 기회증진을 꾀하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체험을 바탕으로 도적(道的) 자각의 방편으로서 수련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

태권도 철학은 수련 목적과 목표, 규범 고찰을 통해 수련자 나름대로 인식·추구되고 있는 가치 근저를 꿰뚫는 가치체계 확립을 도모한다. 또한 태권도 정신과 기술등 태권도 제요소의 의미 파악을 강구한다. 개인 욕구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통합해주는 보편타당한 최고가치를 발굴해내고 가치의 서열(순서·질서)을 담은 가치체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태권도 철학이 가치론적 입장에 설 때, 태권도인의 올바른고 정당한 행동관을 다루는 윤리적 영역과 태권도 수련행위에 내존된 아름다움을 논하는 미적(美的)영역을 포괄한다.

◎태권도 철학은 비판적 검토과정을 통해 훌륭한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신념 확립을 강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권도철학이란 태권도인이면 의당 받아들여야 하는 이미 짜맞추어진 신념체계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태권도 본질과 추구방향, 수련 목적과 의의, 태권도에 내포된 사상, 태권도인이 취해야할 행동관 등이 사범이나 선배를 통해 전달될 때, 아무런 의심(숙고)없이 수긍하는 것이 통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신념은 막연하고 불투명한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여 얼마간의 의심에도 와해되고 만다.

예를 들면, 만일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 태권도 정신²⁰⁾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련자에게 “왜 그것들이 태권도 정신이나?”라고 묻게 되면,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다.”라는 얼버무린 대답이나 “태권도를 하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독단적 확신에 접할 수 있다.²¹⁾ 이 경우 전자는 그가 지닌 모호한 신념이 질문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경우이고 후자는 타당한 이유를 결여한 개인적 확신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빈약하고 독단적인 신념은 비합리적 신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존관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으로부터 기인한다.

반면 근거충실한 합리적 신념²²⁾은 철학적 사

20) 최홍희, 「태권도 교서」 14면.

21) 어떤 경우는 자신이 그러한 신념이나 의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러한 신념에 의거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해 왔을 수도 있다.

22) 합리적 신념이란 그 신념을 입증하는 훌륭한 근거를 거느리고 있는 신념이라는 뜻이다. 합리적 신념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적 신념은 비합리적 신념보다 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신들의 신념들이 옳은가에 마음쓰는 사람은 누구나 그 신념들이 합리적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비어슬리, 「앞의 책」 13면)

고를 거쳐 형성된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묻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인 것이다. 태권도 철학에서 합리적 신념을 요청하는 것은 수련자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태권도적 삶을 영위해가도록 기대하기 때문이다. 태권도에 관한 신념이 비판²³⁾적으로 검토될 때, 오류와 독선, 미신성향의 무지한 믿음을 경계하며 훌륭한 근거를 지닌 합리적 신념으로 뿌리내리게 한다.

◎태권도 철학은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적 행위로 귀착된다.

학문적 입장에서의 철학은 논변(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사고체계를 주장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 논변속에 사용된 핵심용어가 명확히 규정되고 타당한 근거제시와 일관성있는 논리와정을 갖추게 되면 특정한 이론이 성립한다. 태권도 철학도 태권도 본질, 수련목적, 중심사상 등에 대해 철학과 같은 방식으로 이론 확립을 도모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태권도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즉 태권도 실체가 머리속에서 추론되고 논변으로만 표현되는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확장됨으로써 비로소 태권도 철학이 제구실을 완수한다. 사고(思考)와 이론으로만 일관하는 무의미한 공리공론화(空理空論化)를 경계하고 우리의 삶속에서 생동하는 의미를 심고자 하는 노력이 실천이다.

태권도 영역에서 이러한 실천적 의미는 수련을 통한 자신과 태권도와의 교감과 사범·다른 수련자·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 태권도인이 숨쉬는 어떤 곳이면—수련도장, 경기장 그리고 일상생활까지도—태권도 철학이 수행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론은 실천의 필요에 의해 생기므로 상호보

완적 관계속에서 양자 모두가 의미를 지닌다. 태권도인으로서 ‘왜 어떻게’ 인생을 꾸려갈 것인가 라는 철학적 물음은 결국 개개인의 실천적 행동으로 표면화된다. 바람직한 태권도 인생관과 건전한 풍토는 참다운 이론과 실천의 조화로 온 결실로 이룩된다.

◎태권도 철학은 곧바로 태권도, 교육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 교육 영역에서 한층 그 진가가 발휘된다. 태권도 철학이 태권도와 자신과의 내적인 관계를 궁구(窮究)히 해가는 것이 라면 태권도 교육은 타인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조장하는 노력일 것이다. 특히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은 도장사범이나 코치에 있어서는 철학함을 통해 얻은 가치관을 수련자·선수와의 교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즉 태권도 지도자면 누구나 철학과 교육을 통합·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른사람에 맞서 싸우는 격투기술인 태권도의 근본 의의, 수련 목적, 지도이념, 사상 등에 대한 본질적 관심은 사고를 심화시키고 합당한 가치 판단을 진작시킨다. 아울러 태권도 철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정신요인들(예를 들어 인내·집중력 등 의지적 요소와 예의·겸양 등 인격적 요소, 그리고 자아통찰·심신합일 등 도적자각 요소)은 태권도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집단차원으로 확산된다. 그럼으로써 통념이나 타성에 젖은 습관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행동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태권도에 관한 숙고끝에 얻은 결론들이—비록 그것들이 편협한 것이라 할지라도—교육영역에 투입될 때, 행위주체자인 지도자와 수련자 모두가 성숙할 수있는 계기가 된다. 결국 태권도 철학은 특정 연구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태권도인이 움직이는 현장 어디든지 잠재되어 있다.

23) 비판은 논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감정적 비난이나 비방과는 반드시 꼭 구별되어야 한다. 보다 타당성 높은 이론이 확립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고 격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감정적 대립이나 논쟁은 삼가되어야 한다.

5. 태권도 철학의 필요성

“왜 우리는 태권도 철학을 해야 하는가?”

태권도 철학의 필요성 고찰에 앞서 수련자가 태권도 철학을 접하게 되는 이유 즉 내적 동기를 알아보자. 수련자가 태권도 철학을 추구함은 다음과 같은 동기에 의해서이다.

태권도 본질(자신의 태권도관 및 이념)에 대한 깊은 탐구심, 자신과 태권도와의 관계를 더욱 궁구하(窮究-) 하려는 바램, 무모한 권위의 강압·경기장 폭력·금전거래·승부조작 등 태권도인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회의(懷疑)에서 기인되어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하려는 의지, 태권도와 동양사상(한국사상포함)과의 관계 규명을 통한 진리추구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교육 실시 의도 등이 그러한 동기일 것이다. 이들 동기들은 태권도 철학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겠다. 이들 동기와 연관시켜 태권도 철학의 필요성을 다음 다섯 항목으로 구성한다.

◎태권도 철학의 필요성

첫째,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의 본질과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태권도의 존재의의를 확립하며 수련자에게 태권도 행위(수련 및 활동)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모든 행동 의지의 바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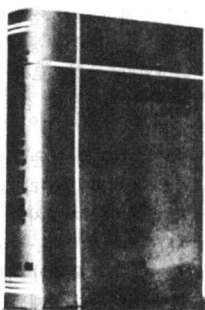
둘째,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학의 성립근거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태권도학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해명함으로써 태권도학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

셋째,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태권도인들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태권도가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네째,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인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바람직한 태권도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다섯째, 태권도 철학은 사회로 하여금 태권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을 돕는다. *

(다음호에 계속)



고급양장가 18,000원

「국기 태권도 교본」구입안내

국기원은 대망의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됨은 물론 국기원 개원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11월 3일에 「국기태권도교본」을 발간한 바 있다.

태권도 교본은 총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 태권도 사관의 합리성을 다지고 기술상의 용어를 학술적으로 고증하여 보완했다. 또한 기본 및 품새의 기법과 기술에 따르는 동작을 입체적으로 분해하여 용이한 지도와 수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기 및 겨루기 실기와 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태권도 교본」은 국기원 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편찬된 세계태권도 공인지도서로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국기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기원 : 567-1058-9).

논 단

태권도 선수들의 손과 팔 부위의 Sports Massage

—본고는 지난 66호의 「태권도 선수들을 위한 경기전 Sports Massage의 실제」편에서 다루었던 다리의 massage에 이어 손과 팔부위의 Sports Massage편을 계속해서 싣는다.



김 석 런
대성중고등학교
체육교사

- 1) 그림에서와 같이 피술자의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가지런히 쥐고 가볍게 5~10회 정도 문지른다.
- 2) 두 손으로 그림과 같이 피술자의 손바닥을 잡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지국이 누르면서 →표 방향으로 문질러 준다.
- 3) 피술자의 손등을 그림과 같이 잡고 가볍게 →표 방향으로 10회정도 문질러 준다.
- 4) 그림과 같이 피술자의 손등을 두 손바닥을 대고 잡은 후 지국이 5~6kg의 압력으로 두세 번 늘린다.
- 5) 엄지손가락으로 피술자의 손등을 그림의 →표 방향과 같이 손가락의 뼈를 연결하는 뼈와 뼈사이를 5~6kg의 압력으로 지국이 누르면서 2~3회 반복한다.
- 6) 피술자의 손가락을 그림과 같이 잡고 한손가락, 한손가락 차례로 좌우로 벌려서 지국이 잡아 당긴후 쓰다듬듯이 잡아 당긴다.
- 7) 그림과 같이 피술자의 손목을 잡고 →표 방향으로 지국이 신전시킨 다음 좌우측으로 2~3

바뀌 천천히 돌려준다.

8) 두 손바닥을 겹쳐서 피술자의 손목부위에서 부터 어깨의 견봉까지 약하고 부드럽게 좌우로 약간씩 흔들면서 문지른다. 이때 어깨쪽으로 올라갈 때는 5~6kg의 압력으로 하고 손목 부위로 내려올 때는 2~3kg의 압력으로 약하게 해준다.

9) 그림에서와 같이 →표 방향으로 팔의 근육부분을 크게 꼬집듯이 잡고 약간씩 밀어 올리면서 5~6kg의 압력으로 들어올린다.

10) 피술자의 손목부위의 근육부분에서 상완부위까지 바당손으로 1/3부분부터 5~6kg의 압력으로 누르면서 올라 갔다가 내려올 때는 2/3부분을 누르면서 내려온다. 이 방법을 2~3회 반복한다.

11) 피술자의 팔굽 관절 부위에 한손은 아금손을 대고 한손은 손목을 잡고 손목부위를 어깨쪽 방향으로 5~6kg의 압력으로 지긋이 2~3회 신

전시킨다.

12) 한손으로 팔굽관절에서 상완부위 쪽을 잡고 고정시킨 후 한손으로는 손목을 잡고 5~7바퀴를 돌려준다.

13) 피술자의 팔을 그림과 같이 잡고 손목이 몸의 정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머리 윗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신전을 2~3회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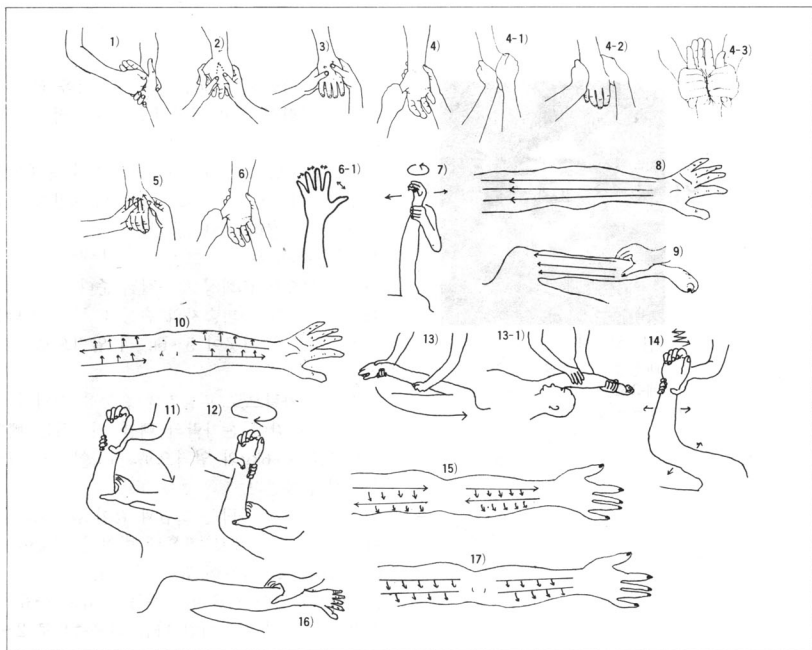
14) 한손으로 피술자의 손목을 잡고 좌우로 부드럽게 20~30초 정도 흔들어 준다.

15) 피술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림의 →표 방향으로 8번 massage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6) 그림의 →표 방향으로 9번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massage한다.

17) 그림의 →표 방향으로 10번의 massage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시술한다.

(다음 호에는 등 부위와 복부 부위의 massage 방법이 계속된다.)



뉴스초점

NEWS FOCUS

김운용회장은 10월 25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을 받았다.

Dr. Un Yong KIM received National Order of Merit from the French Government on 25 October, 1988.



김운용회장은 11월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22차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됐다.
Dr. Un Yong KIM, KTA President, was reelected President of GAISF in the 22nd GAISF General Assembly held in Lausanne on 5 November, 1988.



마카오에서는 지난 88서울올림픽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여 올림픽 우표까지 발간한 바 있는데 이 우표 속에는 마카오의 인기스포츠로 정착한 태권도도 들어있다고 마카오 주재 이동섭사범이 보내왔다.

The people of Macao have had a great interest on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her central post office has published memorial post stamps among which stamps on Taekwondo are included. Taekwondo has become a popular sport in Macao, Master Lee, Dong Seop in Macao reported.



개회사를 하고 있는 태권도학회의 강원식회장.

태권도학회 제1회 학술발표회

11. 26, 63빌딩 코스모스홀

태권도학회 제1회 학술 발표회 THE 1ST TAEKWONDO SEMINAR OF THE WORLD TAEKWONDO SOCIETY 1988. 11. 26 (土) 63빌딩 코스모스홀



학술발표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이 김운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명원전대학연맹회장(전문교부장관)이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이란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축사를 통해 「중주국답게 과학적 이론과 심오한 철학·합리적인 지도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는 김운용회장.

사회체육으로 첫발을 내딛는 태권도

—한강시민공원
스포츠 교실—



태권도를 지도하는 박해만지도위원(뒷줄중앙)과 트레이너 박성철씨(왼쪽 끝) 김현숙양(오른쪽 끝)이 수련생들과 함께.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지는 스포츠교실에 참가해 태권도를 비롯한 7개종목을 배울 수 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서울시민의 밝고 우렁찬 함성이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U.S배 대회 및

Taekwondo Tour
TROPHY and



장도에 오르기에 앞서 10월 26일 국기원에서 거행된 결단식에서 김운용회장이 황춘성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있다.

At the Korean Team Inauguration Ceremony held in Kukkiwon on 26 October, Dr. Un Yong KIM, KTA President, delivers the Team Banner to Mr. Hwang, Choon Seong,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team.



U.S배 태권도 대회에서 금 7개 동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

Postures of victorious members of the Korean team who took 7 Gold Medals and 1 Bronze Medal at the U.S. TROPHY Taekwondo Tournament held in U.S.A.

태권도 친선경기

ament for U. S.
Goodwill Matches

U.S배 태권도대회에서
우승컵을 든 감독들의
모습은 승패를 떠나
밝기만 하다.

Chief Delegates holding trophies
which they took in U.S. TROPHY
Taekwondo Tournament are in all
smile in satisfaction.



한국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4개국 초청으로
치루어진 이번 대회에는
우수한 기량을 갖춘
올림픽스타들이 대거
참가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In this Goodwill Taekwondo
Tournament, teams from
Korea, U.S.A. Canada and
Mexico have participated and
have exhibited wonderful
techniques in their tight
competitions.

각국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태권도를 통한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Taekwondo player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ssembled in a place and have
exchanged their friendship
through Taekwondo.



관광을 통해
세계문화를 호흡하기도
했던 한순간.
Taekwondo players had on
opportunity to appreciate
other culture through
sightseeing and cultural tour.





본회의 엄윤규 부회장이 최우수여자선수상을 차지한 원선진선수에게 트로피와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봉권선수, 원선진선수와 지도상을 수상한 한체대의 이승국교수, 상명여대의 임신자교처.



정확한 기술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순간.

'88년도 선수선발

11.2~4,
국기원

승리를 향한 코치와 선수의 표정들도 가지각색이다.



전국우수 대회

올해 체급별 최강자가 된
8명의 여자 태권도선수들



한해동안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우수선수들만의 대결로
이어진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하는 치열한
접전의 연속이었다.



89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한 체급별 1위자

제11회 회 전국대학 태권도

11. 29 ~ 30.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김동석회장.



대한유도대학 시범단의 공중회전 발차기시범에서는 격파물이 터지면서 현수막이 금테이프와 함께 쏘아져 나와 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A 조 경기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동아대학교가 2연패를 차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기타기 내항 대회

국기원



신임 김동석회장과 대학연맹 임원들.



뛰어난 기량으로 대학 태권도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들.



B 조 경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대한유도대학



여자부 경기에서 2연패를 차지한 경희대학교

전국국민학교
제9회 체육부
제14회 연맹회

11. 5 ~ 6, 국기원



국교연맹의 서영준회장이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어린이들의 선서.



개회식에서 최선을 다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은 굳은
의지로 가득했다.



국교연맹의 임원들이
우승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장관기타기 및 장기타기대회

개회식에 이어 미동국고 태권도시범단이
6명의 어린이를 뛰어넘는 격파시범을
보여주어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품새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정확한 동작을 펼쳐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체육부 장관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청주서원국민학교 어린
이들이 교장선생님, 학부형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